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94-10

2023년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용역보고서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23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94-10

2023년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용역보고서

2023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2023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11.

수행기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을 기초로 한 연구진의 의견입니다.

목 차

01. 2023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 총괄보고	1
1. 사업의 개요	3
2. 세부사업 추진내용	5
02.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 설문조사 결과	19
설문조사 결과	21
- 참조1.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당사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아동용]	45
- 참조2.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당사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청소년용]	51
03.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57
- 감자(강원 LENS)	59
- 안성초프렌즈(경기 1 LENS)	68
- 라이트빌더(경기 2 LENS)	73
- 안양외고(경기 3 LENS)	79
- 경남즈(경남 LENS)	92
- 청자(경북 1 LENS)	98
- DHI 인연동(경북 2 LENS)	101
- 기억해(서울 1 LENS)	124
- 징징컴퍼니(서울 2-1 LENS)	131
- 불사조(서울 2-2 LENS)	135
- 포에버드림(서울 2-3 LENS)	142
- 은광(서울 3 LENS)	151
- 카프리션(전남 1 LENS)	154
- 세렌디피티(전남 2 LENS)	159

- LENS US(전북 LENS)	169
- NLCS(제주 1 LENS)	177
- Youth Activists(제주 2 LENS)	183
- 다함께조(충남 1 LENS)	192
- 우리가이기조(충남 2 LENS)	201
- c_lens_w(충북 LENS)	212
04. 제언	225
05. 부록	233
- 모니터링단 월별 활동보고서(권역주제)_우수사례	235

01

2023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 총괄보고

사업의 개요

1) 사업목적

- 아동권리 관련 주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당사자의 권리 주체성 강화
- 아동권리협약(CRC) 제12조, 제12호 일반논평(피청취권) 및 UN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최종 견해에 입각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권리주체인 아동의 의견 제도적 반영
- 아동이 자신 주변의 문제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함
- 지역 사회적·국가적 아동권리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의 아동권리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2) 사업기간

- 2023.05.22.~2023.11.30. (6개월)

3) 참여대상 및 활동지역

- 참여대상 : 만10세 이상 18세 미만 전국의 모든 아동
- 활동지역 :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4) 모니터링 주제

- 공통주제 : 아동 ·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 권역주제 : 권역별 선정

5)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LENS(Lens of children)’

- 아동들에게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고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LENS’라는 별칭 사용
- 권리의 주체인 아동의 관점(Lens)으로부터 출발
- 능동적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6) 수행 내역

일정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세부추진내용
6월~7월	● 프로그램 계획 및 자료 제작 ● 자문팀 구성 및 회의진행 ● LENS 모집 및 선발 - 홍보 및 모집 : 6.2(금) ~ 7.2(일) - 선정결과 : 7.4(화) ● 코디네이터 모집 및 선발 - 홍보 및 모집 : 5.31(수)~6.25(일) - 선정결과 : 6.27(화) ● 공통주제 체크리스트 개발 - 자문회의 : 6.26(월) 서울역 회의실	[홍보] -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 각 지역 시도교육청, 아동친화도시 협력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홈페이지, 인권위원회 블로그 등 SNS 홍보(포스터, 카드뉴스) [모집]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7월	● 코디네이터 오리엔테이션 - 7.1(토) 10:00~17:00 / 서울시민청 동그라미방 ● 모니터링 발대식(10개 권역) - 7.8(토) 13:00~17:30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LENS 권역별 추가 모집 - 모집 : 7.13(목) ~ 8.6(일) - 권역 : 강원, 서울, 충청권역 등	[사업소개 및 활동 안내] - 모니터링 사업 소개 및 코디네이터 역할 [아동인권교육] - 아동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해 - 아동친화적인 아동인권교육 진행 [모니터링 사례] - 코디네이터 사례발표 [공통주제 교육] - 코디네이터 대상 공통주제 이해 교육을 통해 아동들에게 쉽게 전달 [발대식] - 아동인권교육, 권역별 세부주제 논의 - 모니터링 활동계획 수립
8월~10월	● 권역별 모니터링 활동 - 활동계획서 7.8(토)~7.16(일) - 1차 활동 7.8(토)~8.20(일) - 2차 활동 8.21(월)~9.24(일) - 3차 활동 9.25(월)~10.29(일) ※ 모니터링 활동 Daum LENS 카페 게재 ● 공통주제 체크리스트 조사 (8.29~10.5)	[모니터링 활동] - 공통주제 체크리스트 조사(8월~9월) - 권역별 세부주제 모니터링 활동 [체크리스트 분석] - 모니터링단이 표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
11월	● 아동인권 보고대회(11월 25일) ● 최종 결과보고서 제작	[아동인권 보고대회] - 권역별 모니터링 활동 결과발표 [결과보고서 제작] - 결과보고서 제작(200부)

세부사업 추진내용

1) 모니터링단 모집 및 선발

- 모집기간 : 2023. 06. 02(금) ~ 08. 06(일)
 - 1차 : 2023년 6월 2일(금) ~ 6월 23일(금)
 - 1차 연장 : ~ 7월 2일(일) (6월 19일 연장공고 게시)
 - 추가모집 : 7월 13일(목) ~ 8월 6일(일)
- 선정결과 : 총 168명(일반아동, 학교밖청소년, 아동친화도시 참여위원회 등 포함)

권역별 모니터링단 및 모집 인원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서울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명)
인원	팀	인원	인원	팀	인원	팀	인원	팀	인원	인원	팀	인원	팀	인원	인원	
19	1	4	11	1	6	1	5	1	3	12	1	7	1	10	8	
	2	4		2	12	2*	27	2	5		2	8	2	9		
	3	8				3	10									
19		16	11		18		42		8	12		15		19	8	168

*서울 권역 2팀은 9명씩 '2-1/2-2/2-3'의 3개 조로 모니터링 활동 진행

2) 코디네이터 운영

2-1) 코디네이터 모집 및 선발

- 모집기간 : 2023. 05. 31(수) ~ 06.25(일)
- 결과발표 : 2023. 06. 27(화) 개별연락
- 선정결과 : 총 20명

2-2) 코디네이터 오리엔테이션

- 일시 및 장소 : 2023. 07. 01(토) 10:30~16:30, 서울시민청 지하2층 동그라미방
- 인원 : 총 21명(코디네이터 17명, 강사 2명, 실무자 외 2명)
- 내용 : 기관 및 사업 소개, 아동인권교육 및 사례발표, 주제교육
- 프로그램

시 간	진행내용
10:00~10:20	참여자 확인
10:30~11:00	기관소개 / 사업소개 및 활동방법 안내
11:00~12:00	주제교육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 김형모 교수(경기대학교)
12:00~13:30	점심식사
13:30~14:00	사례발표 / 김지유(전북 코디네이터) / 이혜정(한국아동단체협의회)
14:10~15:00	아동인권교육 I / 김혜은(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15:10~16:00	아동인권교육 II / 김혜은(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16:00~16:30	서식에 대한 안내 & 질의응답 및 마무리

- 오리엔테이션 사진



3) 모니터링단(LENS) 발대식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3. 07. 08(토) 13:00~17:40 /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 아트컬리지5
- 참석 : 총 101명(아동 76명, 코디네이터 18명, 강사 3명, 실무자 외 4명)
- 프로그램

시 간	진행 내용
12:30~13:00	참석자 확인
13:00~13:30	개회 및 사업소개
13:40~14:20	체크리스트 논의
14:10~14:20	위촉식
14:20~15:10	아동인권교육 I
15:10~15:20	Break time
15:20~16:10	아동인권교육 II
16:10~16:40	모니터링 사례발표
16:40~17:30	권역별 주제 및 모니터링 논의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차후 활동 논의
17:30~17:40	기념사진 촬영 및 폐회

※ 발대식 이후 추가모집으로 권역별(강원, 충청권 등) 인권교육을 포함한 발대식이 진행됨

- 발대식 사진



모니터링 사례발표1	모니터링 사례발표2
	
체크리스트 논의	권역별 논의
	

4) 권역 발대식 및 교육 진행

(1) 서울3권역 발대식 및 교육

-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11일(금) 09:30~12:00 서울은광지역아동센터
- 참석 : 총 13명(아동 9명, 코디네이터 1명, 강사 1명, 실무자 등 3명)
- 내용 : 아동인권 및 아동권리협약교육,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소개 및 주제 논의, 공통주제 관련 체크리스트 의견 취합

(2) 강원권역 발대식 및 교육

-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31일(목) 18:00~20:30 커먼즈필드춘천 커뮤니티룸

- 참석 : 총 23명(아동 19명, 코디네이터 1명, 강사 1명, 실무자 등 2명)
- 내용 : 아동인권 및 아동권리협약교육,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소개 및 주제 논의

(3) 충남권역 발대식 및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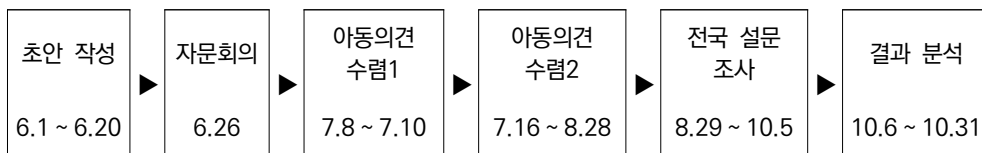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7일(목) 15:30~18:00 구암지역아동센터
- 참석 : 총 23명(아동 19명, 코디네이터 1명, 강사 1명, 실무자 등 2명)
- 내용 : 아동인권 및 아동권리협약 교육,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소개 및 주제 논의
- 활동사진

서울3 LENS 발대식	강원 LENS 발대식
	
충남 LENS 발대식	
	

5) 모니터링 활동

(1) 공통주제 모니터링

- 모니터링 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주제로 ‘체크리스트’를 개발한 뒤, 전국 권역 모니터링단이 공통으로 설문조사 진행.
- 기간 : 06월 ~ 10월
- 체크리스트(설문지) 진행 과정



- 설문조사 방법 : 온라인(권역별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진행)
- 설문조사 홍보 : SNS 카드뉴스 게시 및 관련 기관 포스터 배부
- 설문조사 참여 인원 : 총 1,504명

(2) 자율(권역별) 주제 모니터링

- 기간 : 2023년 07월 ~ 2023년 10월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공통주제) 관련

권역	주제
경남	아동·청소년 노동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방안
서울2-2	학교에서 아동들의 참여권 보장 방안 -학교 내부 건의함 설치를 중심으로-
서울2-3	진로, 휴식에 관한 결정에 아동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가?
전남1	참여기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의견 반영률
제주1	아동의 정치 참여율과 교육의 연관성

• 아동·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관련

권역	주제
강원	스쿨존에서의 안전사고
경기1	가정 내 아동학대
경기2	아동학대 -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의 인식 및 개선 방안
경기3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경북1	노래방, PC방에서의 시간 제한
경북2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증가
서울1	노키즈존 문제(아동 인권 침해)
서울2-1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서울3	아동의 놀 권리 - 놀이공간 모니터링
전남2	청소년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
전북	대한민국의 아동 보호 정책과 아동 권리 강화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의견
제주2	장애 아동의 교육권 (신체장애 & 정신장애)
충남1	아동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 알아보고, 널리 알리기
충남2	인권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이유'
충북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아동의 발달권 침해

6)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 일시: 2023. 11. 25(토) 10:00~14:0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참석자: 총 98명
 - 모니터링단(LENS) 68명, 코디 13명, 인솔자 9명, 연구자 1명, 토론자 3명, 실무자 4명

•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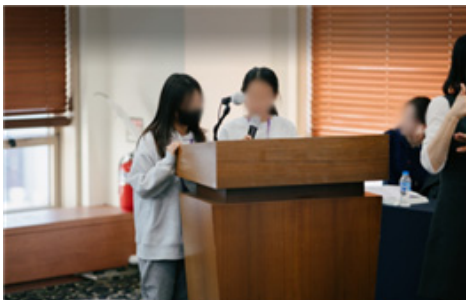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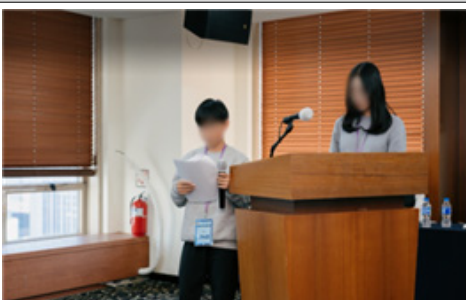
구분	시간	세부내용	
개회	10:00~10:03	사회 김건이 아동(NLCS 제주 13학년) 강민경(제주관광대학교부속유치원 교사)	
활동 소개	10:03~10:08	활동 소개 김건이 아동(NLCS 제주 13학년) 강민경(제주관광대학교부속유치원 교사) 활동 영상 (약 2분)	
권역별 사례발표 1 (공통 주제 관련)	10:08~10:35	모니터링단(LENS) 권역별 사례발표	
		팀명(권역)	발표자
		불사조(서울2-2)	김익준, 이서현, 신민서, 강승후, 오연우
		포에버드림(서울2-3)	김민건, 이민성, 이재원, 이호린, 정하윤, 최아인, 최주희
		카프리썬(전남1)	손성호, 안유비
		경남즈(경남)	김지현, 서유민, 장지민
		NLCS(제주)	이한진, 정예림, 곽효민
공통주제 발표	10:35~10:55	공통주제 발표 / 김형모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공통주제 토론	10:55~11:25	김나연 활동가(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코리 활동가(청소년기후행동) 조은주 대표(리워크연구소)	
쉬는 시간	11:25~11:30		
모니터링 사례발표 2 (권역별 주제)		모니터링단(LENS) 권역별 사례발표	
		팀명(권역)	발표자
		LENS US(전북)	이가인, 김태우
		징징컴퍼니(서울2-1)	심예나, 김주하
		기억해(서울1)	최준용, 이아인, 신은수
		안성초프렌즈(경기1)	김성채, 윤동건, 윤원형, 윤태영
		라이트빌더(경기2)	윤수영, 정세현, 홍유나
		감자(강원)	이누리, 김하울, 신영인
		세렌디피티(전남2)	임연아, 임은미, 정단비
쉬는 시간	12:10~12:15		

구분	시간	세부내용	
모니터링 사례발표 3 (권역별 주제)	12:15~13:00	모니터링단(LENS) 권역별 사례발표	
		팀명(권역)	발표자
		DHI 인연동(경북2)	김수아, 이명은, 최서영
		우리가이기조(충남2)	권성수, 이예찬
		다함께조(충남1)	변환기, 이시영
		은광(서울3)	박단비, 장윤서, 신수아
		안양외고(경기3)	김선유, 양태은, 김진성
		청자(경북1)	이도혁, 한서준
		c_lens_w(충북)	김정범, 정현희, 김민경
		Youth Activists(제주2)	강윤교, 박한주, 이유민
정리(피드백)	13:00~13:05	김형모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	
폐회	13:05~13:10	사회 김건이 아동(NLCS 제주 13학년) 강민경(제주관광대학교부속유치원 교사)	
점심 식사	13:10~14:10		

• 현장사진

개회	주제 발표
	

주제토론1	주제토론2
	
주제토론3	발표1(서울2-2)
	
발표2(서울2-3)	발표2(서울2-3)
	
발표3(전남1)	발표4(경남)
	

발표5(제주1) 	발표6(전북) 
발표7(서울2-1) 	발표8(서울1) 
발표9(경기1) 	발표9(경기1) 
발표10(경기2) 	발표11(강원) 

발표11(강원)	발표12(전남2)
발표13(경북2)	발표14(충남2)
발표15(충남1)	발표16(서울3)
발표17(경기3)	발표18(경북1)

발표19(충북)	발표20(제주2)
	

02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권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정된 10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이며, 체크리스트는 조사대상의 연령대와 학교급에 따라 아동용(10세~12세 또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청소년용(13세~18세 또는 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체크리스트 설문조사는 2023년 8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약 한 달 반에 걸쳐 진행하였다. 총 1,50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중복응답 등을 제외한 총 1,500부의 설문지에 대한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2) 체크리스트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조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을 담은 도입부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묻는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크리스트의 도입부에는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 생년월일 및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학교밖 청소년들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고려하여 학교에 관련된 질문과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제한하였다. 그다음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에 관한 체크리스트 문항의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의 체크리스트 문항구성

문항주제		문항 응답 양식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① 전혀 관심이 없다’ ~ ‘⑤ 매우 관심이 많다’의 5점 Likert 척도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	‘① 전혀 모른다’ ~ ‘⑤ 잘 알고 있다’의 5점 Likert 척도
	권리교육 여부	① 있다 / ② 없다
	인권교육 필요 정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⑤ 매우 필요하다’의 5점 Likert 척도

본문에서는 가정에서의 참여권, 학교에서의 참여권, 사회에서의 참여권, 이렇게 총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질문을 배치하였다. 첫째, 가정에서 아동의 참여권에 관한 측정도구는 김한진(2002)과 홍승애(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좀 더 쉬운 표현과 시의성을 반영한 어휘를 사용하여 수정 및 보완을 하였다. 둘째, 학교에서의 참여권에 관한 측정도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의 참여권 관련 조항의 분류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연구(홍승애, 2003; Takaaki, 2002)를 기초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셋째, 사회에서의 참여권에 관한 측정도구는 천정웅(1998)과 홍승애(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영역 분류를 기초로 총 4개의 하위영역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체크리스트는 총 55문항(아동용 3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이해능력과 각기 다른 학교제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은 아동으로 분류하여 아동용은 39문항, 중고등학생 및 해당 나이의 아동들은 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청소년용 55문항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참여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5, 학교에서 참여 척도의 신뢰도는 .893, 사회에서 참여 척도의 신뢰도는 .841로 나타났다. 예비조사를 실시 후 조사결과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은 재구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인권 당사자들의 의견, 아동 인권 관련 전문 자문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크리스트의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조사에 사용된 각 척도의 하위영역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체크리스트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 문항은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문항이다. 첫 번째 하위영역은 아동·청소년의 가정 내 생활 참여 영역이다. 가정의 중요한 결정 과정 참여와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 모임 참여시 의견 존중, 가족구성원이 아동·청소년과 소통을 통해 맡은 집안일 하기와 관련된 영역이다. 두 번째 하위영역은 가정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한 영역으로, 방과후 동아리 등 참여여부와 활동 종류 결정, 학원 결정, 하교 후 공부 및 휴식시간 스스로 정하기, 아동·청소년의 선호도 존중과 관련된 영역이다. 세 번째 하위영역은 사생활 존중 영역으로, 사고 싶은 물건 결정할 때 의견 존중, 아동·청소년의 SNS 등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존중, 외모 관련 의견 존중, 취미 활동 결정 존중, 용돈 사용 존중과 관련된 영역이다. 네 번째 가정에서의 참여 기타 영역은 미래 직업에 대한 의사소통, 종교활동의 자유, 정치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등과 관련이 있는 영역이다.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과 각각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구성	신뢰도
가정 내 생활 참여	3문항	1, 2, 3	.720
교육 참여	4문항	4, 5, 6, 7	.723
사생활 존중	5문항	8, 9, 10, 11, 12	.790
가정 참여 기타	3문항	13, 14, 15*	.613

※ 문항은 아동과 청소년이 공통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표시한 문항은 청소년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2)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체크리스트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참여권을 조사하기 위한 첫 번째 하위영역은 수업 영역 참여이다. 이는 학교 수업 시간에 아동·청소년과 교사 사이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의사존중이 이루어지는 등 수업과 관련된 참여 활동을 의미한다. 두 번째 하위영역은 학급 운영 참여 영역으로, 학급 임원 선출, 학급 회의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의견을 표명하고, 학급운영 관련 토론의 상시 참여, 학급운영 관련 학생의견 반영 등 학급 단위에서 자신의 학급을 만들어 나가는데 관련된 영역이다. 세 번째 하위영역은 학교 운영 참여로, 동아리 및 방과후 활동에서 학생의 의견 반영, 학생이 학교의 주체로서 학교행사의 일정 및 장소 등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학교 규칙에 학생 의견 반영, 학교생활 관련 의견제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참여 영역이다. 네 번째 하위영역은 학교 활동 참여로, 자기주도학습 및 야간자율학습 강요 안하기, 학교공식 매체를 통한 참여, 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의 제공, 학생자치회의실 등 의견 나누는 공간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다섯 번째 영역은 학교 참여 기타로 학교에서 자유로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영역이다.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5개 영역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위영역별 문항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구성	신뢰도
수업 영역 참여	1문항	1	-
학급 운영 참여	5문항	2, 3, 4, 5*, 6	.804
학교 운영 참여	5문항	7, 8, 9, 10*, 11	.819
학교 활동 참여	4문항	12*, 13, 14*, 15	.694
학교 참여 기타	1문항	16*	-

※ 문항은 아동과 청소년이 공통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표시한 문항은 청소년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체크리스트

사회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권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은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하위영역은 정책과정 참여로, 지역사회나 국가의 아

동정책과 행정과정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회 정책 및 현상에 대한 정보 접근, 정책결정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방식 변화 모색, 아동·청소년의 의견 공식매체에 표명, 청소년 단체 참여 등과 같은 참여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하위영역은 지역 중심 참여로, 자신의 생활거점인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리나 모임 참여 활동, 지역 현안 관련 청소년 설명회 개최, 청소년 의회 등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하위영역은 단체자율 참여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밖 동아리 활동 참여 등 조직적·집단적인 프로그램 활동에의 참여와 관련된 활동이다. 네 번째 하위영역은 정치적 참여로, 청소년이 선거참여¹⁾와 정당가입이 가능²⁾해졌기 때문에 선거권과 투표, 정당관련 참여 등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섯 번째 사회 참여 기타영역은 나와 타인의 인권침해에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관련된 하위영역별 문항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구성	신뢰도
정책과정 참여	5문항	1, 2*, 3*, 4, 5	.745
지역중심 참여	5문항	6*, 7*, 8, 9, 10	.834
단체자율 참여	1문항	11	-
정치적 참여	6문항	12*, 13*, 14*, 15*, 16*, 17*	.723
사회 참여 기타	2문항	18, 19	.731

※ 문항은 아동과 청소년이 공통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표시한 문항은 청소년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 1) 2019년 12월부터, 만 18세 이상 청소년 선거참여 가능.
행복한 교육(2020년 2월호). 만 18세 선거권 갖게 된 청소년들.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5152&nttId=9799
- 2) 2022년 1월부터, 만 16세 이상 청소년 정당가입 가능.
연합뉴스(2022년 1월 11자 기사). 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학교 현장선 기대·우려 교차.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1118200530>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그리고 참여권의 세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조사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대의 참여권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후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과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권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 결과

1)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일반사항

본 조사연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5>와 같다. 먼저 성별은 총 1,500명의 응답자 중에서 남성은 458명(30.53%), 여성은 1,034명(68.93%), 기타 성별은 8명(0.53%)으로 나타났다. 전체 1,500명 중에 아동은 431명(28.7%), 청소년은 1,069명(71.3%)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도는 경기도 335명(22.3%), 제주특별자치도 191명(12.7%), 서울특별시 160명(10.7%), 강원특별자치도 113명(7.5%), 부산광역시 88명(5.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종특별자치시 9명(0.6%), 대전광역시 28명(1.9%), 충청남도 33명(2.2%) 순으로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수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5>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일반적인 사항

기본정보	구분	조사 참여자		
		아동N(비율)	청소년N(비율)	전체N(비율)
성별	① 남	178	280	458(30.53%)
	② 여	251	783	1,034(68.93%)
	③ 기타	2	6	8(0.53%)
	전체	431(28.7%)	1,069(71.3%)	1,500(100%)

기본정보	구분	조사 참여자		
		아동N(비율)	청소년N(비율)	전체N(비율)
생활하고 있는 시·도	① 서울특별시	70	90	160(10.7%)
	② 부산광역시	35	53	88(5.9%)
	③ 대구광역시	15	39	54(3.6%)
	④ 인천광역시	5	32	37(2.5%)
	⑤ 광주광역시	42	40	82(5.5%)
	⑥ 대전광역시	9	19	28(1.9%)
	⑦ 울산광역시	25	14	39(2.6%)
	⑧ 세종특별자치시	1	8	9(0.6%)
	⑨ 경기도	61	274	335(22.3%)
	⑩ 강원특별자치도	63	50	113(7.5%)
	⑪ 충청북도	7	34	41(2.7%)
	⑫ 충청남도	11	22	33(2.2%)
	⑬ 전라북도	8	77	85(5.7%)
	⑭ 전라남도	25	36	61(4.1%)
	⑮ 경상북도	35	28	63(4.2%)
	⑯ 경상남도	8	73	81(5.4%)
	⑰ 제주특별자치도	11	180	191(12.7%)
	전체	431(28.7%)	1,069(71.3%)	1,500(100%)

2)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은 총 4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는 '전혀 관심이 없다 = 1점', '매우 관심이 많다 = 5점' Likert 척도로 나타내었을 때 평균 3.72(SD=0.89)로 조사되었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는 평균 2.91점(SD=1.17)으로 나타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아는 정도가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33.8%(507명)로 제일 높았다. 셋째, 권리교육 여부는 '있다'를 1점, '없다'를 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평균 0.86점(SD=0.35)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는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4.29점(SD=0.81)으로 확인되었다. 인권교육이 매우 필요하다(5

점)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7.1%(706명)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식 문항 응답수와 비율, 그리고 권리의식 하위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표 6〉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

권리의식	구분	조사 참여자			평균(M) (표준편차, SD)
		아동N(%)	청소년N(%)	전체N(%)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① 전혀 관심이 없다	18(4.2)	8(0.7)	26(1.7)	3.72 (0.89)
	② 관심 없는 편이다	37(8.6)	46(4.3)	83(5.5)	
	③ 보통이다	150(34.8)	315(29.5)	465(31.0)	
	④ 관심이 있는 편이다	169(39.2)	475(44.4)	644(42.9)	
	⑤ 매우 관심이 많다	57(13.2)	225(21.0)	282(18.8)	
유엔 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	① 전혀 모른다	91(21.1)	141(13.2)	232(15.5)	2.91 (1.17)
	② 모르는 편이다	70(16.2)	209(19.6)	279(18.6)	
	③ 보통이다	125(29.0)	382(35.7)	507(33.8)	
	④ 알고 있는 편이다	101(23.4)	256(23.9)	357(23.8)	
	⑤ 잘 알고 있다	44(10.2)	81(7.6)	125(8.3)	
권리교육 여부	① 있다(1점)	373(86.5)	920(0.9)	1,293(86.2)	0.86 (0.35)
	② 없다(0점)	58(13.5)	149(0.1)	207(13.8)	
인권교육 필요 정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6(1.4)	5(0.5)	11(0.7)	4.29 (0.81)
	② 필요 없는 편이다	15(3.5)	13(1.2)	28(1.9)	
	③ 보통이다	80(18.6)	103(9.6)	183(12.2)	
	④ 필요한 편이다	168(39.0)	404(37.8)	572(38.1)	
	⑤ 매우 필요하다	162(37.6)	544(50.9)	706(47.1)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권리의식의 차이는 <표 7>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른 권리의식의 하위문항별 차이를 살펴보면,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F=5.19$, $p<.01$), 인권교육의 필요정도($F=22.89$, $p<.001$)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권리의식 전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른 권리의식의 하위문항은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t=-6.37$, $p<.001$),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t=-6.51$, $p<.001$)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동에 비해 청소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상위문항인 전체 권리의식($t=-5.32$, $p<.001$)도 청소년이 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7〉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의 평균 비교

변인		구분	권리의식				권리의식 전체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	권리교육 여부	인권교육 필요 정도	
아동 청소년 변인	성별	① 남	3.60(0.99)	3.02(1.22)	0.87(0.34)	4.09(0.90)	2.89(1.54)
		② 여	3.76(0.84)	2.87(1.14)	0.86(0.35)	4.38(0.74)	2.97(1.56)
		③ 기타	3.63(1.06)	2.38(1.06)	0.75(0.46)	3.75(1.39)	2.63(1.58)
		F	5.19**	3.42*	0.47	22.89***	3.90*
		사후검증 결과	남<여**	-	-	남<여***	-
	연령대	① 아동	3.49(0.97)	2.85(1.28)	0.87(0.34)	4.08(0.91)	2.82(1.53)
		② 청소년	3.81(0.84)	2.93(1.12)	0.86(0.35)	4.37(0.75)	2.99(1.56)
		t	-6.37***	-1.17	0.24	-6.51***	-5.32***

* $p < .05$, ** $p < .01$, *** $p < .001$

3)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가정에서 하위영역 문항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표 8〉과 같다. 사생활 존중 영역이 하위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참여권을 나타냈으며($M=3.36$, $SD=0.76$), 그다음이 교육 참여($M=3.30$, $SD=0.82$), 가정 참여권 기타($M=3.17$, $SD=0.94$) 순이었다.

구체적인 문항별로 살펴보면, 용돈 사용의 의견 존중($M=3.55$, $SD=0.68$), 방과후 동아리 등 참여여부와 활동 종류 결정($M=3.53$, $SD=0.71$), 아동의 사생활 존중($M=3.38$, $SD=0.84$), 취미 활동 결정 존중($M=3.38$, $SD=0.73$), 학원 결정($M=3.35$, $SD=0.81$)의 순으로 참여권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동의 선호도 존중(M=3.03, SD=0.84), 정치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M=2.97, SD=0.97), 소통을 통해 맡은 집안일 하기(M=2.90, SD=0.84) 문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낮게 나타났다.

〈표 8〉 가정에서 하위영역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하위영역	문항내용	평균 M (표준편차 SD)
가정 내 생활 참여	가정의 중요한 결정 과정 참여와 의견존중	3.22(0.74)
	2. 모임참여 의견 존중	3.04(0.84)
	3. 소통을 통해 맡은 집안일 하기	2.90(0.84)
	전체	3.05(0.82)
교육 참여	4. 방과후 동아리 등 참여여부와 활동 종류 결정	3.53(0.71)
	5. 학원 결정	3.35(0.81)
	6. 하교 후 공부 및 휴식시간 스스로 정하기	3.30(0.83)
	7. 아동의 선호도 존중	3.03(0.84)
	전체	3.30(0.82)
사생활 존중	8. 사고 싶은 물건 결정할 때 의견 존중	3.22(0.74)
	9. 아동 사생활 존중	3.38(0.84)
	10. 외모 관련 의견 존중	3.28(0.76)
	11. 취미 활동 결정 존중	3.38(0.73)
	12. 용돈 사용 존중	3.55(0.68)
	전체	3.36(0.76)
가정 참여 기타	13. 미래 직업에 대한 의사 소통	3.25(0.85)
	14. 종교 활동의 자유	3.23(0.97)
	15. 정치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2.97(0.97)
	전체	3.17(0.94)

*표시한 문항은 청소년만 응답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참여권의 차이는 〈표 9〉와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가정에서의 참여권의 하위문항별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 참여($F=7.78$, $p<.001$), 사생활 존중($F=6.25$, $p<.01$)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가정에서의 참여권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4.29$, $p<.05$), 가정에서의 참여권은 여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른 가정에서의 참여권의 하위문항은 교육 참여($t=-7.98$, $p<.001$), 사생활 존중($t=-5.34$, $p<.001$)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동에 비해 청소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상위문항인 전체 가정에서의 참여권($t=-4.84$, $p<.001$)도 청소년이 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9〉 아동·청소년의 가정에서 참여권의 평균 비교

변인		구분	가정에서의 참여권				가정 참여권 전체
			가정 내 생활 참여	교육 참여	사생활 존중	기타	
아동 청소년 변인	성별	① 남	3.06(0.83)	3.21(0.86)	3.29(0.81)	3.13(0.97)	3.19(0.86)
		② 여	3.05(0.82)	3.34(0.79)	3.39(0.74)	3.19(0.92)	3.27(0.82)
		③ 기타	3.25(0.61)	3.28(0.63)	3.20(0.72)	3.23(0.75)	3.24(0.68)
		F	0.46	7.78***	6.25**	1.20	4.29*
		사후검증 결과	—	남<여***	남<여**	—	남<여*
	연령대	① 아동	3.06(0.80)	3.11(0.88)	3.24(0.79)	3.14(0.95)	3.15(0.84)
		② 청소년	3.05(0.83)	3.38(0.78)	3.41(0.74)	3.18(0.93)	3.28(0.82)
		t	0.16	-7.98***	-5.34***	-1.06	-4.84***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 하위문항과 가정에서의 참여권 하위문항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첫째, 인권에 대한 관심정도는 가정 내 생활 참여($r=0.162$, $p<0.001$), 교육 참여($r=0.151$, $p<0.001$), 사생활 존중($r=0.107$, $p<0.001$), 가정에서의 참여 기타($r=0.195$, $p<0.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는 가정 내 생활 참여($r=0.122$, $p<0.001$) 영역과 가정에서의 참여권 기타($r=0.172$, $p<0.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권리교육 여부는 가정에서의 참여 기타($r=0.195$, $p<0.001$) 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정 내 생활참여 영역과 사생활 존중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나 상관계수(r)의 값이 0.1 미만으로 매우 약한 상관관계(박용규, 2001)

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는 가정 내 생활 참여($r=0.146$, $p<0.001$), 교육 참여($r=0.180$, $p<0.001$), 사생활 존중($r=0.146$, $p<0.001$), 가정에서의 참여 기타($r=0.212$, $p<0.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0〉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에 따른 가정에서 참여권 상관관계 분석

변인		가정에서의 참여권			
		가정 내 생활 참여	교육 참여	사생활 존중	기타
권리 의식 변인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0.162***	0.151***	0.107***	0.195***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	0.122***	0.033	0.031	0.172***
	권리교육 여부 (있다=1)	0.086***	0.050	0.067**	0.122***
	인권교육 필요 정도	0.146***	0.180***	0.146***	0.212***

* $p < .05$, ** $p < .01$, *** $p < .001$

4)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학교에서 하위영역 문항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표 11〉과 같다. 학급 운영 참여 영역이 하위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참여권을 나타냈으며($M=3.37$, $SD=0.76$), 그다음이 수업 영역 참여($M=3.34$, $SD=0.71$), 학교 운영 참여($M=3.10$, $SD=0.88$) 순이었다.

구체적인 문항별로 살펴보면, 학급임원 선거 관련($M=3.67$, $SD=0.58$), 자기주도학습 및 야간자율학습 강요 안함($M=3.47$, $SD=0.78$), 학급회의 시 자유로운 의사표현($M=3.43$, $SD=0.71$), 학급회의 진행 관련($M=3.40$, $SD=0.71$),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자유롭게 의견 교환($M=3.34$, $SD=0.71$)의 순으로 참여권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행사 결정 과정 참여($M=2.99$, $SD=0.94$), 학교에서 자유로운 정치활동 참여($M=2.98$, $SD=0.90$), 학교 공식 매체에 자유로운 의견 표현($M=2.85$, $SD=0.96$), 학생의견 개진 게시판 유무($M=2.69$, $SD=1.01$) 문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낮게 나타났다.

〈표 11〉 학교에서 하위영역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하위영역	문항내용	평균 M (표준편차 SD)
수업 영역 참여	1.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자유롭게 의견 교환	3.34(0.71)
학급 운영 참여	2. 학급임원 선거 관련	3.67(0.58)
	3. 학급회의 진행 관련	3.40(0.71)
	4. 학급회의 시 자유로운 의사표현	3.43(0.71)
	5. 학급운영 관련 토론 상시참여*	3.09(0.87)
	6. 학급운영 관련 학생의견 반영	3.17(0.78)
	전체	3.37(0.76)
학교 운영 참여	7. 동아리, 방과후 활동 학생 의견 반영	3.23(0.77)
	8. 학교행사 결정 과정 참여*	2.99(0.94)
	9. 학칙 학생의견 반영	3.08(0.87)
	10. 학교생활 관련 의견제시	3.11(0.86)
	11. 청소년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3.12(0.91)
	전체	3.10(0.88)
학교 활동 참여	12. 자기주도학습 및 야간자율학습 강요 안함*	3.47(0.78)
	13. 학교 공식 매체에 자유로운 의견 표현	2.85(0.96)
	14. 학생의견 개진 게시판 유무*	2.69(1.01)
	15. 학생자치회의실 등 의견 나누는 공간	3.07(0.94)
	전체	3.01(0.97)
학교 참여 기타	16. 학교에서 자유로운 정치활동 참여*	2.98(0.90)

*표시한 문항은 청소년만 응답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참여권의 차이는 〈표 12〉와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참여권의 하위문항별 차이를 살펴보면, 참여권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문항인 전체 학교 참여권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른 학교에서의 참여권의 하위문항은 학급 운영 참여($t=3.35$, $p<.001$), 학교 활동 참여($t=-2.16$, $p<.05$)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급 운영 참여는 아동이, 학교 활동 참여는 청소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상위문항인 전체 학교에서의 참여권은 아동과 청소년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아동·청소년의 학교에서 참여권의 평균 비교

변인		구분	학교에서의 참여권					학교 참여권 전체
			수업 영역 참여	학급 운영 참여	학교 운영 참여	학교 활동 참여	기타	
아동 청소년 변인	성별	① 남	3.30(0.76)	3.36(0.77)	3.08(0.93)	3.01(0.99)	3.01(0.95)	3.17(0.90)
		② 여	3.36(0.69)	3.37(0.75)	3.11(0.85)	3.01(0.96)	2.97(0.89)	3.18(0.85)
		③ 기타	3.38(0.52)	3.16(0.64)	3.24(0.54)	3.14(0.80)	3.33(0.82)	3.20(0.65)
		F	1.44	0.78	0.58	0.22	0.68	0.18
		사후검증 결과	-	-	-	-	-	-
	연령대	①아동	3.38(0.71)	3.45(0.69)	3.09(0.89)	2.94(0.99)	-	3.22(0.85)
		②청소년	3.33(0.71)	3.34(0.77)	3.11(0.87)	3.02(0.97)	2.98(0.90)	3.17(0.87)
		t	1.37	3.35***	-0.40	-2.16*	-	1.64

*p < .05, **p < .01, ***p < .001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 하위문항과 학교에서의 참여권 하위문항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13〉과 같다. 첫째, 인권에 대한 관심정도는 수업 영역 참여($r=0.123$, $p<0.001$), 학급 운영 참여($r=0.125$, $p<0.001$), 학교 운영 참여($r=0.152$, $p<0.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지 정도는 학교에서의 참여권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128\sim0.184$, $p<0.001$). 셋째, 권리교육 여부는 수업 영역 참여($r=0.137$, $p<0.001$), 학급 운영 참여($r=0.166$, $p<0.001$), 학교 운영 참여($r=0.123$, $p<0.001$), 학교 활동 참여($r=0.114$, $p<0.001$) 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는 수업 영역 참여($r=0.155$, $p<0.001$), 학급 운영 참여($r=0.197$, $p<0.001$), 학교 운영 참여($r=0.148$, $p<0.001$), 학교 활동 참여($r=0.102$, $p<0.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3〉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에 따른 학교에서 참여권 상관관계 분석

변인		학교에서의 참여권				
		수업 영역 참여	학급 운영 참여	학교 운영 참여	학교 활동 참여	기타
권리의식 변인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0.123***	0.125***	0.152***	0.093***	0.052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	0.128***	0.157***	0.184***	0.155***	0.138***
	권리교육 여부 (있다=1)	0.137***	0.166***	0.123***	0.114***	0.091**
	인권교육 필요 정도	0.155***	0.197***	0.148***	0.102***	0.064*

*p < .05, **p < .01, ***p < .001

5)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사회에서 하위영역 문항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표 14〉와 같다. 사회 참여 기타 영역이 하위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참여권을 나타냈으며(M=3.25, SD=0.74) 그 내용은 나와 타인의 인권침해와 관련이 있다. 그다음이 정책 과정 참여(M=2.80, SD=1.00), 정치적 참여(M=2.77, SD=1.03) 순이었다.

구체적인 문항별로 살펴보면, 투표 참여(M=3.59, SD=0.62), 정책결정에 청소년의 참여방식 변화 필요(M=3.31, SD=0.68), 타인의 인권침해 고발(M=3.23, SD=0.75), 나의 인권침해 고발(M=3.23, SD=0.74),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와 의무 인지(M=3.20, SD=0.79)의 순으로 참여권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단체 참여(M=2.37, SD=1.15), 선거철에 아동·청소년에게 후보자 설명(M=2.33, SD=1.01), 아동·청소년 정치참여 용이(M=2.25, SD=0.99), 아동·청소년 모임이나 행사 참여(M=2.21, SD=1.08) 문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낮게 나타났다.

〈표 14〉 사회에서 하위영역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하위영역	문항내용	평균 M (표준편차 SD)
정책과정 참여	사회정책 및 현상의 정보 접근	3.19(0.76)
	2. 지역사회 정책 결정 시 아동·청소년 의견수렴*	2.80(0.88)
	3. 정책결정에 청소년의 참여방식 변화 필요*	3.31(0.68)
	4. 나의 의견을 공식매체에 표현	2.48(1.00)
	5. 청소년 단체 참여	2.37(1.15)
	전체	2.80(1.00)
지역중심 참여	6. 지역 현안 관련 청소년 설명회 개최*	2.38(0.95)
	7. 청소년의회 등 운영*	2.69(0.96)
	8. 자원봉사활동의 기회	2.93(0.85)
	9. 아동·청소년 동아리활동 참여	2.66(1.02)
	10. 아동·청소년 모임이나 행사 참여	2.21(1.08)
	전체	2.58(1.01)
단체자율 참여	11.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동아리 활동 참여	2.47(1.07)
정치적 참여*	12. 아동·청소년 정치참여 용이*	2.25(0.99)
	13. 선거철에 아동·청소년에게 후보자 설명*	2.33(1.01)
	14. 선거후보자 관련 정보 관심*	2.83(0.96)
	15.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와 의무 인지*	3.20(0.79)
	16. 투표 참여*	3.59(0.62)
	17. 선거 시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위한 활동*	2.44(1.00)
	전체	2.77(1.03)
사회 참여 기타	18. 나의 인권침해 고발	3.23(0.74)
	19. 타인의 인권침해 고발	3.23(0.75)
	전체	3.25(0.74)

*표시한 문항은 청소년만 응답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참여권의 차이는 〈표 15〉와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사회에서의 참여권의 하위문항별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 중심 참여($F=6.97$, $p<.001$), 정치적 참여($F=9.42$, $p<.001$)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지역 중심 참여와 정치적 참여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사회에서의 참여권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7.25$, $p<.01$), 사회에서의 참여권은 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 과정 참여권은 남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지만, 사후검증에서 남성과 여성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른 사회에서의 참여권의 하위문항은 지역 중심 참여($t=3.22$, $p<.01$), 단체 자율 참여($t=6.04$, $p<.001$), 사회 참여 기타($t=3.16$, $p<.01$)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청소년에 비해 아동의 참여가 유의하게 높았다. 상위문항인 전체 사회에서의 참여권($t=2.28$, $p<.05$)도 아동이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15〉 아동·청소년의 사회에서 참여권의 평균 비교

변인		구분	사회에서의 참여권					사회 참여권 전체
			정책 과정 참여	지역중심 참여	단체 자율 참여	정치적 참여	기타	
아동 청소년 변인	성별	① 남	2.88(1.01)	2.69(1.02)	2.55(1.08)	2.90(1.03)	3.27(0.78)	2.86(1.01)
		② 여	2.77(0.99)	2.53(1.01)	2.43(1.06)	2.73(1.03)	3.24(0.73)	2.73(1.01)
		③ 기타	3.03(0.94)	2.81(0.89)	2.63(0.92)	3.03(0.88)	3.38(0.62)	2.98(0.88)
		F	3.78*	6.97***	2.02	9.40***	0.32	7.25***
		사후검증 결과	-	남>여**	-	남>여***	-	남>여**
	연령대	① 아동	2.67(1.00)	2.69(0.99)	2.73(0.97)	-	3.34(0.73)	2.83(0.98)
		② 청소년	2.83(0.99)	2.55(1.02)	2.36(1.09)	2.77(1.03)	3.22(0.75)	2.75(1.02)
		t	-4.17	3.22**	6.04***	-	3.16**	2.28*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 하위문항과 사회에서의 참여권 하위문항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16〉과 같다. 첫째, 인권에 대한 관심정도는 사회에서의 참여권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115\sim0.235$, $p<0.001$).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 역시 사회에서의 참여권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145\sim0.306$, $p<0.001$). 셋

째, 권리교육 여부는 사회에서의 참여 기타($r=0.108$, $p<0.001$) 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나머지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나 상관계수(r)의 값이 0.1 미만으로 매우 약한 상관관계(박용규, 2001)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는 정책 과정 참여($r=0.146$, $p<0.001$)와 사회에서의 참여 기타($r=0.168$, $p<0.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6〉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에 따른 사회에서 참여권 상관관계 분석

변인		사회에서의 참여권				
		정책 과정 참여	지역 중심 참여	단체 자율 참여	정치적 참여	기타
권 리 의 식 변인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0.235***	0.155***	0.115***	0.159***	0.135***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	0.306***	0.251***	0.212***	0.196***	0.145***
	권리교육 여부 (있다=1)	0.097***	0.080**	0.054*	0.067*	0.108***
	인권교육 필요 정도	0.146***	0.057*	0.054*	0.079**	0.168***

* $p < .05$, ** $p < .01$, *** $p < .001$

6) 가정, 학교,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권과 각각 하위 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7〉과 같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가정에서의 참여권이 총 4점 만점에 3.25점($SD=0.83$), 학교에서의 참여권이 평균 3.18점($SD=0.87$)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참여권이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사이의 점수대를 보여 참여권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사회에서의 참여권은 평균 2.77($SD=1.01$)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다’ 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참여권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7〉 가정, 학교, 사회에서 하위영역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구분	하위영역	평균(표준편차)
가정에서 참여권	가정 내 생활 참여	3.05(0.82)
	교육 참여	3.30(0.82)
	사생활 존중	3.36(0.76)
	가정 참여권 기타	3.17(0.94)
	전체	3.25(0.83)
학교에서의 참여권	수업 영역 참여	3.34(0.71)
	학급 운영 참여	3.37(0.76)
	학교 운영 참여	3.10(0.88)
	학교 활동 참여	3.01(0.97)
	학교 참여권 기타	2.99(0.90)
	전체	3.18(0.87)
사회에서의 참여권	정책과정 참여	2.80(1.00)
	지역중심 참여	2.58(1.01)
	단체자율 참여	2.36(1.09)
	정치적 참여	2.77(1.03)
	사회 참여권 기타	3.25(0.74)
	전체	2.77(1.01)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권의 차이는 〈표 18〉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참여권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참여권은 남성이 평균 3.19(SD=0.86), 여성이 3.27(SD=0.82)로 평균차이 분석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정에서의 참여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4.29$, $p<.05$). 학교에서의 참여권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남성은 평균 2.86점(SD=1.01), 여성은 2.73점(SD=1.01)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참여권이 높게 나타났다($F=7.25$, $p<.01$).

그다음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른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권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참여권은 아동이 평균 3.15점(SD=0.84), 청소년이 평균 3.28점(SD=0.82)으로 청소년이 아동에 비해 참여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84$, $p<0.001$). 학교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 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은 아동 평균 2.83점(SD=0.98), 청소년 평균 2.75점(SD=0.02)으로 아동의 참여권이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28$, $p<0.05$).

〈표 18〉 아동·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권의 평균 비교

변인		구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가정에서 참여권	학교에서의 참여권	사회에서의 참여권
아동 청소년 변인	성별	① 남	3.19(0.86)	3.17(0.90)	2.86(1.01)
		② 여	3.27(0.82)	3.18(0.85)	2.73(1.01)
		③ 기타	3.24(0.68)	3.20(0.65)	2.98(0.88)
		F	4.29*	0.18	7.25***
		사후검증 결과	남<여*	-	남>여**
	연령대	① 아동	3.15(0.84)	3.22(0.85)	2.83(0.98)
		② 청소년	3.28(0.82)	3.17(0.87)	2.75(0.02)
		t	-4.84***	1.64	2.28*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과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권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19〉와 같다.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과 가정에서의 참여권($r=0.216$, $p<0.001$), 학교에서의 참여권($r=0.239$, $p<0.001$), 사회에서의 참여권($r=0.296$, $p<0.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19〉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에 따른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권 상관관계 분석

변인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가정에서 참여권	학교에서의 참여권	사회에서의 참여권
권리의식 전체	0.216***	0.239***	0.296***

*p < .05, **p < .01, ***p < .001

3. 분석결과 요약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 분석결과를 요약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남성이 30.53%, 여성이 68.93%, 기타 성별이 0.53%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참여자 중에서 아동은 28.7%, 청소년은 71.3%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여성과 청소년의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수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순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은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 권리교육 여부, 인권교육 필요 정도로 구성되어 조사하였다.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는 5점 만점 중에 3.72점(SD=0.89)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 어느 정도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지 정도는 ‘보통이다(3점)’ 이하의 점수인 2.91점(SD=1.17)으로 측정된 사실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지 정도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권리교육을 받은 경우를 1점, 받지 못한 경우를 0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권리교육 여부의 평균값은 0.86점(SD=0.35)으로 권리교육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인권교육이 필요한 정도는 5점 만점에 4.29점(SD=0.81)으로, 아동·청소년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권리의식의 차이는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에서 여성의 평균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권리의식 전체의 평균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른 권리의식의 차이는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에

서 청소년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권리의식도 아동에 비해 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권리의식의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동보다는 청소년의 권리의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사생활 존중 영역이 가장 높은 참여권을 나타냈으며, 그다음이 교육 참여 영역, 가정 참여권 기타 영역, 가정 내 생활 참여 영역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가정에서의 참여권 분석에서 여성의 참여권이 남성의 참여권과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의 참여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른 가정에서의 참여권은 청소년이 아동에 비해 참여권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여성과 청소년의 참여권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의 하위문항과 가정에서의 참여권 하위문항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와 가정 참여권 기타 영역,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와 가정 참여권 기타 영역,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와 가정의 교육 참여 영역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학급 운영 참여 영역이 하위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참여권을 나타냈으며, 그다음이 수업 참여 영역, 학교 운영 참여 영역, 학교 활동 참여 영역, 학교 참여 기타 영역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참여권 분석에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아동이 학급 운영에서의 참여권이 더 높고, 청소년이 학교 활동의 참여권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체 학교에서의 참여권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의 하위문항과 학교에서의 참여권의 하위문항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와 학급 운영 참여 영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지 정도와 학교 활동 참여, 권리교육 여부와 학급 운영 참여 영역,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와 학급 운영 참여 영역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나와 타인의 인권침해’와 관련이 있는 사회 참여 기타 영역이 하위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참여권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정책 과정 참여 영역, 정치적 참여 영역, 지역중심 참여 영역, 단체 자율 참여 영역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사회에서의 참여권 분석에서 지역중심 참여

영역, 정치적 참여 영역에서 남성의 참여권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사회에서의 참여권도 마찬가지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른 사회에서의 참여권은 지역중심 참여 영역, 단체 자율 참여 영역, 기타 참여 영역에서 아동의 참여권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에서의 참여권 역시 청소년에 비해 아동의 참여권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전체 사회에서의 참여권은 남성인 경우에 높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참여권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의 하위문항과 사회에서의 참여권의 하위문항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지 정도와 정책 과정 참여 영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지 정도와 지역중심 참여 영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지 정도와 정치적 참여 영역 그리고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와 정책 과정 참여 영역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가정, 학교,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비교해 보면, 가정에서의 참여권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학교에서의 참여권이며, 사회에서의 참여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는 가정에서는 여성의 참여권이 높고, 학교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사회에서는 남성의 참여권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에 따른 참여권을 살펴보면, 가정에서는 청소년의 참여권이 높고, 학교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사회에서는 아동의 참여권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에 따른 참여권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권리의식과 사회에서의 참여권, 학교에서의 참여권, 가정에서의 참여권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한진(2002). 가정에서 아동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용규(2001). 통계시리즈(VI):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가정의학회지」 22(1), 43-51.
- 유니세프코리아(2023).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https://www.unicef.or.kr/about-us/unicef/mission/convention-on-the-rights-of-the-child>.
- 천정웅(1998). IMF 시대 청소년 참여의 방향과 과제: P 이론의 가능성 탐색. 「IMF시대 청소년의 소외와 참여(한국청소년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169-222.
- 홍승애(2003). 아동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Takaaki Tashiro(2002). 子どもの参加の権利研究の到達点と課題 (特集 子どもの権利の総合的保障と学際研究). Children's Rights Journal, 子どもの権利条約総合研究所 編 (1), 11-17.

[참조 1]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당사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아동용]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아동·청소년 참여권³⁾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당사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아동용)

I 기본정보

(작성방법)

- 아동용 설문은 아동(10세~12세 또는 초등학교 4학년~6학년)에 해당되는 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되는 숫자에 'V' 표시하거나 색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V'표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안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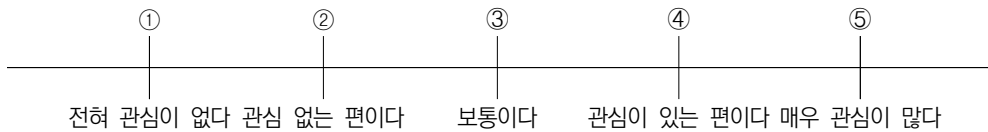
성별	① 남	② 여	③ 기타
생년월일	()년 ()월 ()일		
생활하고 있는 시도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⑨ 경기도
	⑩ 강원특별자치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라북도	⑭ 전라남도	⑮ 경상북도
	⑯ 경상남도	⑰ 제주특별자치도	

- 3) (참여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4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의 하나이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II 아동·청소년 권리의식에 관한 설문

(작성방법) • 해당되는 숫자에 ‘V’ 표시하거나 색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 즉 인권⁴⁾에 관해 관심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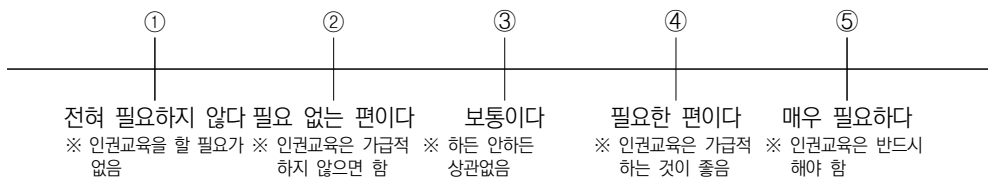
3. 여러분은 <유엔아동권리협약⁵⁾>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4. 여러분은 아동의 권리에 대해 가정, 학교 또는 다른 곳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5. 여러분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인권)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와 지위로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권리, 원하는 종교를 믿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함.

5) (유엔아동권리협약) 만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 협약으로,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III 참여권 행사에 관한 설문 (아동용)

6. 다음은 가정에서의 아동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쪽에 여러분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V표 하십시오. (필수문항)

분야	번호	문항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정 내 생활	1	부모님(보호자)은 집에서 중요한 결정(이사, 전학, 가족여행, 가구 및 가전제품 교체 등)을 내릴 때, 나를 참여시키고, 내 의견을 존중한다.				
	2	부모님(보호자)은 부모님의 친구모임이 있을 때 모임의 성격을 설명하고, 참석할지 말지에 대해 질문 후 나를 참여시키는 등 내 의견을 존중한다.				
	3	우리 집은 각자 맡은 집안일(방청소, 분리수거 등)이 있으며, 각자의 능력(힘, 체력 등)과 소통을 통해 집안일을 하고 있다.				
교육	4	학교 동아리 또는 방과후 활동에 참가할지 말지와 참여하는 방과후 활동의 종류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5	학원을 다니게 될 경우, 어느 학원을 다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6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공부하거나 노는 시간은 내가 정한다.				
	7	부모님(보호자)은 공부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해준다.				
사생활	8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결정할 때, 부모님(보호자)은 내 결정을 존중해 준다.				
	9	부모님(보호자)은 나의 휴대폰 메시지, 카톡내용, SNS를 내 동의 없이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으며, 내 사생활을 존중해 준다.				
	10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외모를 꾸밀 때(옷, 머리모양 등) 부모님(보호자)의 의견보다 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11	취미활동(컴퓨터 게임, 체육활동, 악기연주 등)을 선택할 때, 부모님(보호자)은 내 결정을 존중해 준다.				
	12	부모님(보호자)이 용돈을 주실 때, 용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기타	13	나는 부모님(보호자)과 나의 미래 직업에 대해 언제나 자유롭게 소통한다.				
	14	나는 부모님(보호자)의 종교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내 뜻에 따라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7. 다음은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쪽에 여러분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V표 하십시오. (필수문항)

분야	번호	문항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수업	1	우리는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2	학급 임원(반장, 회장, 부장 등)은 우리의 의견에 따라 뽑는다.				
	3	우리의 의견에 따라 학급회의(주제, 진행방법 등)가 진행된다.				
	4	나는 학급회의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5	학급회의 시간에 의논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학급 운영에 잘 반영되고 있다.				
학교 운영 참여	6	학교의 동아리 또는 방과후 활동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활동내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7	학교 행사(소풍, 수련회, 운동회 등)의 장소, 일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등 참여하는 과정이 있다.				
	8	나는 학교의 학교 학칙을 만들거나 수정 시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설문지, 학급회의, 대의원회 등).				
	9	아동 대표(반장, 회장 등)가 학교의 주체로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말하고 있다.				
기타	10	학교 공식 매체(학교 방송, 학교 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한다.				
	11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학생자치회의실 등) 있다.				

8. 다음은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쪽에 여러분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V표 하십시오. (필수문항)

분야	번호	문항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정책 과정	1	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다.				
	2	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어린이날 폐지, 놀이터 위험시설, 학교 주변 위험시설 등)에 대한 나의 의견을 공식적인 매체(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에 말한다.				
	3	나는 우리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단체(아동의회, 아동 시·군·구 평가단, 시책모니터단 등)에 참가하고 있다.				
지역 중심 참여	4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5	나와 친구들은 지역사회에서 아동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6	나는 우리동네에서 운영하는 아동을 위한 모임(YMCA, 아동포럼 등)이나 지역사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단체 자율	7	나는 아동을 위한 학교 밖 동아리활동(시사토론, 독서, 영화, 연극, 인권운동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타	8	나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받을 곳이 있다.				
	9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를 발견했을 경우, 나는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창구가 있다. (예 : 친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았을 경우 등)				

※ 설문 참여에 관한 사례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래에 정보제공 동의와 모바일 상품권을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귀하는 동의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당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하는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수집항목: 휴대폰 번호
- 이용목적: 설문 참여 사례(모바일 상품권) 발송
- 보유기간: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할 때까지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설문 참여 사례비(모바일 상품권) 지급이 제한됩니다.

9.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네 (☞ 9-1 번으로) ☐ 아니오 (설문 종료)

9-1. 상품권 기프티콘 받으실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 휴대폰 번호: (예: 010-0000-0000)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당사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청소년용)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아동·청소년 참여권⁶⁾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당사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청소년용)

I 기본정보

(작성방법)

- 청소년용 설문은 청소년(13세 이상-18세 이하 또는 중학생-고등학생)에 해당되는 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되는 숫자에 'V' 표시하거나 색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V'표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안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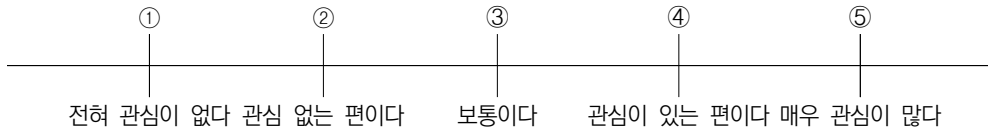
성별	① 남	② 여	③ 기타
생년월일	()년 ()월 ()일		
생활하고 있는 시도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⑨ 경기도
	⑩ 강원특별자치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라북도	⑭ 전라남도	⑮ 경상북도
	⑯ 경상남도	⑰ 제주특별자치도	

6) **(참여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4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의 하나이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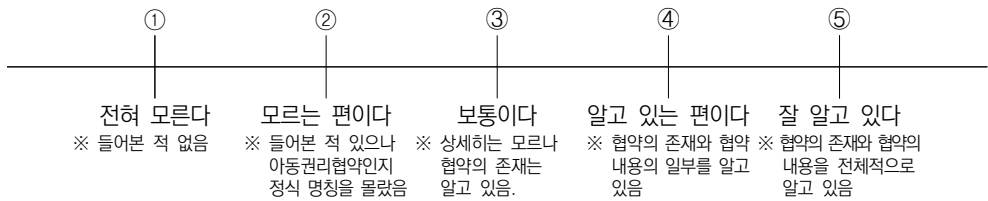
II 아동·청소년 권리의식에 관한 설문

(작성방법) • 해당되는 숫자에 ‘V’ 표시하거나 색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 즉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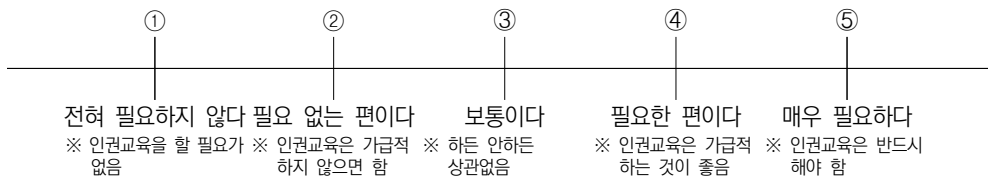
3. 여러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4. 여러분은 아동의 권리에 대해 가정, 학교 또는 다른 곳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여러분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인권)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와 지위로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권리, 원하는 종교를 믿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함.

8) (유엔아동권리협약) 만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 협약,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III 참여권 행사에 관한 설문 [청소년용]

6. 다음은 가정에서의 청소년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쪽에 여러분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V표 하십시오. (필수문항)

분야	번호	문항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정 내 생활	1	부모님(보호자)은 집에서 중요한 결정(이사, 전학, 가족여행, 가구 및 가전 제품 교체 등)을 내릴 때, 나를 참여시키고, 내 의견을 존중한다.				
	2	부모님(보호자)은 부모님의 친구모임이 있을 때 모임의 성격을 설명하고, 참석할지 말지에 대해 질문 후 나를 참여시키는 등 내 의견을 존중한다.				
	3	우리 집은 각자 맡은 집안일(방청소, 분리수거 등)이 있으며, 각자의 능력(힘, 체력 등)과 소통을 통해 집안일을 하고 있다.				
교육	4	학교 동아리 또는 방과후 활동에 참가할지 말지와 참여하는 방과후 활동의 종류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5	학원을 다니게 될 경우, 어느 학원을 다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6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공부하거나 노는 시간은 내가 정한다.				
	7	부모님(보호자)은 공부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해준다.				
사생활	8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결정할 때, 부모님(보호자)은 내 결정을 존중해 준다.				
	9	부모님(보호자)은 나의 휴대폰 메시지, 카톡내용, SNS를 내 동의 없이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으며, 내 사생활을 존중해 준다.				
	10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외모를 꾸밀 때(옷, 머리모양 등) 부모님(보호자)의 의견보다 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11	취미활동(컴퓨터 게임, 체육활동, 악기연주 등)을 선택할 때, 부모님(보호자)은 내 결정을 존중해 준다.				
	12	부모님(보호자)이 용돈을 주실 때, 용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기타	13	나는 부모님(보호자)과 나의 미래 직업에 대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통한다.				
	14	나는 부모님(보호자)의 종교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내 뜻에 따라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15	나는 부모님과 정치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한다.				

7. 다음은 **학교에서 청소년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쪽에 여러분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V표 하십시오. (선택문항)

분야	번호	문항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수업 학급 운영 참여	1	우리는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2	학급 임원(반장, 회장, 부장 등)은 우리의 의견에 따라 뽑는다.				
	3	우리의 의견에 따라 학급회의(주제, 진행방법 등)가 진행된다.				
	4	나는 학급회의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5	나는 우리반 학급운영에 관하여 상시 토론에 참여한다.				
	6	학급회의 시간에 의논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학급 운영에 잘 반영되고 있다.				
학교 운영 참여	7	학교의 동아리 또는 방과후 활동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활동내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8	학교 행사(소풍, 수련회, 운동회 등)의 장소, 일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등 참여하는 과정이 있다.				
	9	나는 학교의 학교 학칙을 만들거나 수정 시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설문지, 학급회의, 대의원회 등).				
	10	나는 학교생활에 대해 학급회, 학생회, 대의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1	청소년 대표(반장, 회장 등)가 학교의 주체로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말하고 있다.				
학교 활동 참여	12	우리 학교는 점심시간 자기주도학습 및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하지 않는다.				
	13	학교 공식 매체(학교 방송, 학교 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한다.				
	14	우리 학교는 학생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다.				
	15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학생자치회의실 등) 있다.				
기타	16	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8. 다음은 **사회에서 청소년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쪽에 여러분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V표 하십시오. (필수문항)

분야	번호	문항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정책 과정 참여	1	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다.				
	2	지역사회 정책 결정 시 아동·청소년 의견을 수렴한다.				
	3	지역사회 정책 결정, 운영에 청소년의 참여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				
	4	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청소년증, 소지품검사,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 학교주변 유해환경 등)에 대한 나의 의견을 공식적인 매체(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에 말한다.				
	5	나는 우리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단체(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시·군·구 평가단, 청소년시책모니터단, 청소년창안제 등)에 참가하고 있다.				
지역 중심 참여	6	우리 지역은 지역 아동·청소년 현안에 대한 청소년 설명회를 개최한다.				
	7	우리 지역은 청소년의회, 참여위원회 등이 운영된다.				
	8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9	나와 친구들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0	나는 우리동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을 위한 모임(YMCA 청소년클럽, 청소년포럼, 청소년미래신문등)이나 지역사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단체 자율	11	나는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동아리활동(사토론, 독서, 영화, 연극, 인권운동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치적 참여	12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이 정치참여를 쉽게 할 수 있다.				
	13	우리 지역은 선거철에 아동·청소년이 후보자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해준다.				
	14	나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 관련 정보에 관심을 기울인다.				
	15	내가 선거권을 갖게 될 경우,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와 의무(법 지키기 등)에 대해 알고 있다.				
	16	내게 선거권이 생기면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17	내게 선거권이 생기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기타	18	나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받을 곳이 있다.				
	19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를 발견했을 경우, 나는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예 : 친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았을 경우 등)				

※ 설문 참여에 관한 사례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래에 정보제공 동의와 모바일 상품권을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귀하는 동의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당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하는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수집항목: 휴대폰 번호
- 이용목적: 설문 참여 사례(모바일 상품권) 발송
- 보유기간: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할 때까지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설문 참여 사례비(모바일 상품권) 지급이 제한됩니다.

9.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네 (☞ 9-1 번으로) ☐ 아니오 (설문 종료)

9-1. 상품권 기프티콘 받으실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 휴대폰 번호: (예: 010-0000-0000)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감자(강원 LENS)

LENS	김건하, 김다은, 김동현, 김진주, 김진현, 김하빈, 김하울, 문정훈, 박민혁, 박세희, 박한별, 신영인, 신지훈, 윤서윤, 이누리, 이우섭, 장하나, 허성현, 홍채량
코디 네이터	기술

활동주제	
공동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주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아동안전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선정 이유

- 아동들과 아동인권교육을 들으며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권리가 어떤것이라 생각하는지 한명씩 돌아가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아동안전'이 중요한 것 같다는 의견이 과반수라 아동안전을 소주제로 정하게 됐다. 또한, 아동들이 자주다니는 곳인 학교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안전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동들의 의견을 조사해보자고 결정하게 됐다.

2. 계획세우기

9월

- 아이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 규칙에 관해 간단히 소개한 후 함께 인근 학교에 가 보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 규칙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이를 확인하고 또는 아동

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며 권리침해 요소가 발견되면 사진을 찍어 이를 기록하며 이유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다음에 진행될 활동에 관해 이야기하며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다.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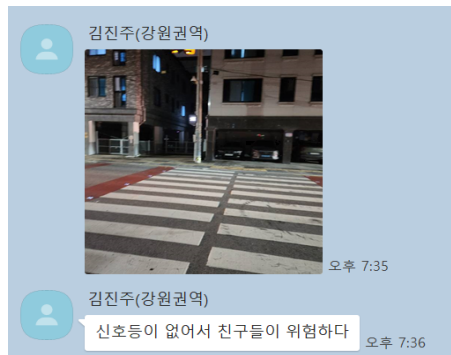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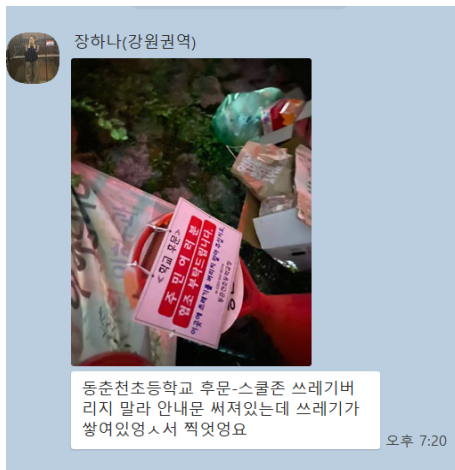
- 1차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해 아동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하게 됨.

3. 조사대상 및 방법

대상: 아동 (18세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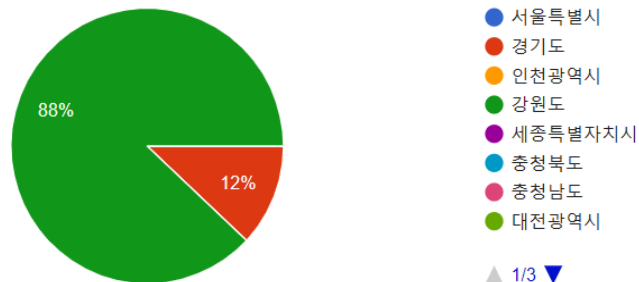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진행할 예정임.

주제 도출 경과



1-2)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시도에 체크해주세요.

응답 2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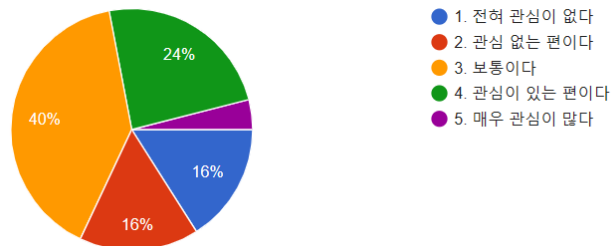


2. 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수칙에 관한 질문

2-1) 여러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심이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곳으로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에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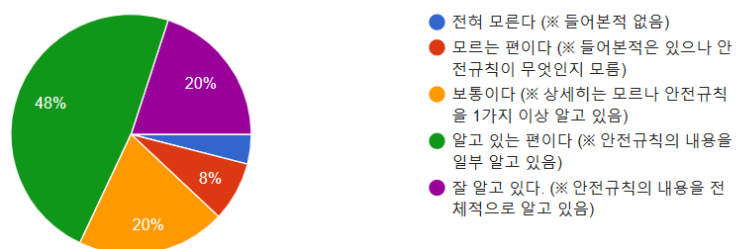
응답 25개



2-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규칙에 대해 알고 있나요?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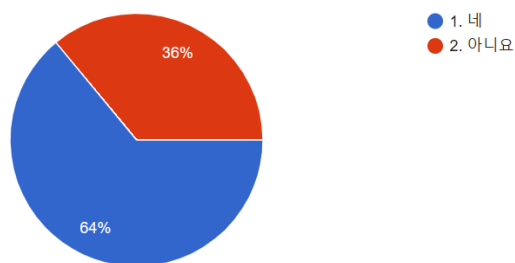
응답 25개



3.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관한 질문

3-1) 여러분은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응답 25개



3-2) 안전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를 간략히 작성해주세요

응답 25개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차들이 빨리 달리때도 있기때문에

보호구역에서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조건에 적합한거같다

어린이보호구역 에서도 차가 빠르게 달리기 때문이다.

차가 빨리 달리기 때문에

사고위험 방지

건너주게해주시는보안간선생님이계셔서

경비아저씨분들과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 알려주기 때문이다

사고날일이업으니깐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유 (요약)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 (요약)
경비아저씨분들과 어른들이 잘 알려주어서	차들이 빨리 달릴때도 있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규칙이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
신호등이 있어서	일반도로와 다름없다고 느껴지기에
신호등 및 시속 30km로 달려서	

3-3) 어린이보호구역이 안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간략히 작성해주세요

응답 25개

경찰이 있으면 좋겠다

모른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안난다

엄청난 처벌

어른들의 양심

10키로로가기

표지판을 더 크게한다

과태료 인상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자동차가 빨리 안달리면 좋겠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결론)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지판 확대

과태료 인상

단속을 철저히 시행

운전자들의 운전속도를 줄인다.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 어린이보호구역이 무엇인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규칙,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안전 규칙이 민식이법으로 인해 적용됐다는 내용에 관해 설명해 줬다. 또한, 민식이법이 적용됐음에도 적용되기 이전과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을 인지한 청소년이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신호등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어린이보호구역 교육을 진행함.
- 1차 활동으로 동춘천초등학교, 봉의중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가서 권리침해 상황을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동춘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신호등이 없다는 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안내문이 있음에도 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봉의중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된 차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아이들의 의견도 물어 어린이보호구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만들어 주변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직접 만나 춘천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아동 총 25명의 설문조사가 끝난 후 결과를 보며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해 아동들은 '보통이다'와 '안전하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고 안전규칙과 경비아저씨와 같은 어른들이 있기에 안전하다고 답을 한 의견이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 그러나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 '차들이 여전히 빠르게 달리기 때문'의 의견이 많은 것을 보아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

최종발표에 진행할 발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를 진행함.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아동 25명의 스쿨존에 대한 생각에 관한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가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전국 모든 곳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표시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다.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활동에 참여해 주는 아이들이 매번 바뀌고 아이들이 참여해 주지 않으려 하고 센터도 협조적이지 않아 참여를 이끄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활동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친구들 중 일부는 이전 회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모습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아이들에게 아동권리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 뜻깊었다. 더불어, 아이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교육을 진행하고자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교육 및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몰랐던 점을 학습하며 한층 성장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LENS

김하율: 활동을 통해 스쿨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고 아동안전에 더욱 관심을 지니게 됐다.

박민혁: 설문조사와 교육을 통해 민식이 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고 재미있었다.

신지훈: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문을 중심으로 300미터 이내 도로에 설치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함께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이 재밌다고 느껴졌다.

이누리: 스쿨존 교육을 통해 안전수칙을 배우고 아동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식이 법이 제정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며 올바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진주: 어린이보호구역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동에게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박세희: 스쿨존교육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고 스쿨존에서 위험해 보이는 것에 관한 관리가 잘되어 더 안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우섭: 스쿨존에서 많은 아이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며 아동안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

장하나: 민식이 법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교통사고 건수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과 교통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04.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2019) :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아동의 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및 신호등 설치의 의무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안 (2020년부터 시행) 	
스쿨존 교육	대면설문조사 진행
3-2) 안전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를 간략히 작성해주세요 응답 25개 -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차들이 빨리 달리니까 있기때문에 - 보호구역에서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때문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조건에 적합한거같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자가 빠르게 달리기 때문이다. - 차가 빨리 달리기 때문에 - 사고위험 방지 - 건너주게해주시는 보안관선생님이계셔서 - 경비아차씨분들과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 알려주기 때문이다 - 사고날일이없으니깐	
설문결과 논의	활동보고서 작성 및 최종발표 회의

안성초프렌즈(경기 1 LENS)

LENS	윤원형, 김성채, 윤동건, 윤태영
코디 네이터	이솔

활동주제	
공동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주제	가정 내 아동학대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선정 이유

코로나 19 이후로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였다는 뉴스 기사를 접한 후, 국내에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그 원인, 유형, 해결 방안 등에 대해 궁금해졌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

2. 계획세우기

8월

- 역할 분담, 1~3차 대면 활동 계획 세우기
- 자료조사: 가정 내의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원인과 유형, 코로나 이후로 가정 내의 아동학대가 더 증가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다.

9월

- 아동인권과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하기.
- 자료조사: 가정 내의 아동학대 유형별 국내 실태, 사례 조사, 4대 아동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사례 분석하기.

10월

- 나만의 포스터를 제작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기.
- 자료조사: 피해 아동들을 구제하는 방법과 현재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조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노력에 대해 생각해보기.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안성초등학교 교사 및 재학생, 안성시 시민들
- 방법: 학교 내외에서 직접 설문조사하기.

주제 도출 경과

총 100장의 설문조사 답변지를 받은 후, 3가지 질문에 대해 인상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해 냄.

1. 우리 사회에서 아동 학대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매우 심각하다(30%), 대체로 심각하다(35%), 보통이다(20%),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10%), 전혀 심각하지 않다(5%)
2. 2021년 1월 8일에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처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알고 있다(25%), 모른다(75%)
3. 아동의 4대 기본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 알고 있다(15%), 모른다(85%)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 역할 분담에 대한 회의:
4명으로 이뤄진 소규모 그룹인 만큼 역할을 크게 달리하지 않고 함께 회의하여 결정한 소주제에 대해 각자 자료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설문지의 구성에 대해서도 아동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소주제에 대한 회의: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해 궁금한 것들에 대해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냈고, 네 개의 소주제로 적절히 나눔.

(소주제 1) 가정 내의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가정 내의 아동학대가 왜 더 증가했는가?

(소주제 2) 가정 내의 아동학대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각 유형별로 국내 실태는 어떠한가?

(소주제 3)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각 사례에서 아동의 4대 기본권리가 중 어느 것이 침해되고 있는가?

(소주제 4) 가정 내 아동학대를 해결하고 피해 아동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 설문조사 실시 방법에 대한 회의:

설문 조사 대상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구글폼/QR코드 등의 온라인 방식은 어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종이 설문지로 진행하기로 함. 아동별로 각자 20명 이상의 설문 답변을 받기로 함.

- 캠페인 활동에 대한 회의:

나만의 포스터를 자유롭게 제작하고 각자 교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함.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으며, 특히 아동의 4대 기본권리에 대해 대부분 무지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 아동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아동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각자 나만의 포스터를 제작하고 교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며 4대 아동권리에 대해 알리려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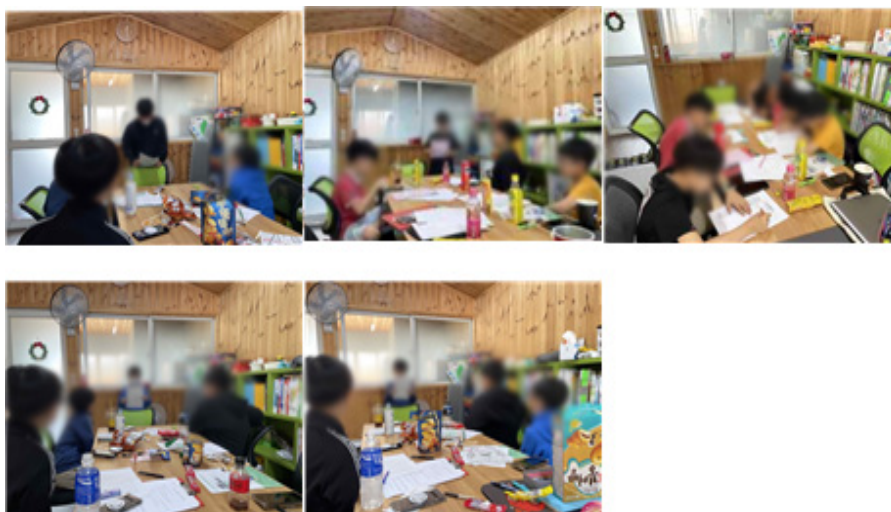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Lens: 코로나 이후로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게 되어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전부터 국내에서 큰 문제였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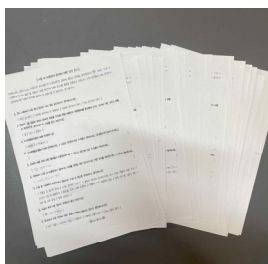
코디네이터: 아동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활동 전에 개별적인 회의를 거쳐야 했는데, 그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했지만 그만큼 아동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던 것 같아서 뿌듯했다. 우리 권역별 주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아동들이 4대 기본 권리에 대해 알게 되어서 더욱 의미 있었던 것 같다.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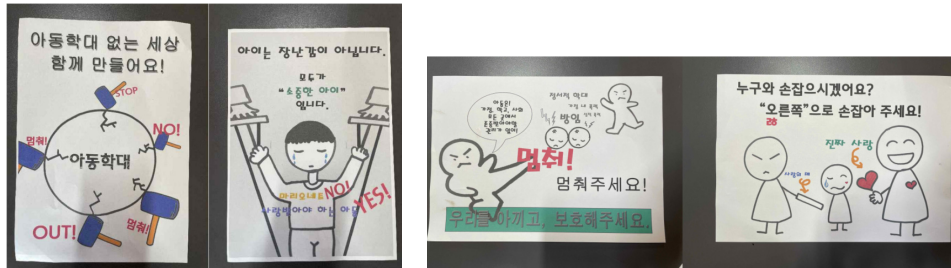
〈대면 만남에서 자료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회의하는 모습〉



〈수합한 설문조사 답변지들〉



〈아동들이 만든 나만의 포스터〉



〈아동들의 교내 캠페인 활동 모습〉



라이트빌더(경기 2 LENS)

LENS	윤수영, 이해나, 정세현, 홍유나
코디 네이터	김서현

활동주제	
공동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주제	아동학대 -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의 인식 및 개선 방안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선정 이유

아동학대는 오랜 시간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끔찍한 사건들로 온 국민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고 법과 사회도 움직였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매번 심각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아동학대는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학대에 대한 주위의 의식과 관심, 아동 자신의 피해 인식 정도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다른 범죄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 스스로가 신고를 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에 신고 후 수사와 보호 진행 절차를 알게 되면 신고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신고 후에도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신고율을 높이는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경기2조는 현재 아동이 아동 학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학대 신고 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하게 되는 절차를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 계획세우기

8월

- 신고 이후 절차 및 아동 보호/아동학대 사안 (인터뷰용)
- 인터뷰 준비
- 인터뷰 진행
- 영상 작업 시작
- 팸플렛 제작 진입
- 설문조사 내용 초안 선정

9월

- 팸플렛 제작 마무리
- 설문조사 질문지판 제작
- 설문조사 및 팸플렛 배부
- 영상 제작

10월

- 설문조사 결과 분석
-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 기사 형식의 글 작성 및 업로드(보류)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만8세~만18세/19세
- 방법: 질문지법(오프라인 캠페인) 및 면접법(인터뷰 영상)

주제 도출 경과

"아동 인권"을 생각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주제가 아동 학대 문제였다. 피해자가 아동인 점,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관계이거나 선생과 학생(학교 학원 불문) 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한 범죄이다. 우리나라는 체벌을 훈육의 한 가지 방법으로 여기는 관습이 오랫동안 자리잡았던 만큼, 아직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동이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인지하게 하고, 아동 스스로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아동 인권을 위해 우리(팀) 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아동이 이에 동의했고 그에 따라 권역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차 회의 전까지 조사한 내용(아동학대 신고 시 행정 처리 절차 및 아동의 이송) 에 대한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각자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 본격적인 팸플렛 제작, 영상 제작을 위해 역할을 분담
- 아래와 같은 계획을 세움
 - 팸플렛 구성
 - 설문조사 질문 만들기(스티커 붙이는 설문 조사)
 - 인터뷰 질문 만들기
 - 팸플렛 제작(도안 편집)

개인

- 인터뷰 참여자 모집
- 촬영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회의 이전 세웠던 계획을 바탕으로 이행도 확인 및 개선 사항을 위해 아래와 같은 회의 주제를 산정함

1. 활동 현황 파악
2. 2차 기간 활동 논의 및 역할 분배
3. 추가 회의 안건 논의(보류)

2차 기간동안 시켜지지 않은 계획들이 많아 역할 분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당 활동의 완성을 목표로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또한 3차 활동 기간에 할 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추가 (3차) 회의를 진행했다. 3차 기간 동안의 주요 활동은 오프라인 설문 조사와 그에 대한 결과 분석이었으므로 진행 방식, 유의사항 등을 공지하였다.

공지 사항을 다음과 같다.

〈오프라인 활동 안내〉

저희 활동의 핵심인 오프라인 활동 안내합니다. 오프라인 활동은 "팸플렛 배부, 설문조사, 영상 제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팸플렛은 어제 발주 맡긴 상태입니다. 설문조사용 스티커, 팸플렛, 설문조사 유도용 간식 은 전에 보내주신 주소로 일괄 배송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용 하드보드지는 개별적으로 구매하셔서 설문조사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수증

이 있어야 현금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후 영수증 사진을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하드보드지(4절지 크기)를 구매하여 설문조사 질문 수에 맞추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 학생용 설문조사는 폼으로 만들어 큐알로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기에, 초등학생용 설문조사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석 전에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편집된 영상도 같이 제공할 수 있게 편집 힘 써주시고, 25,26,27 중 하루를 골라 □ 진행 요일, 장소, 진행 시간□ 내일 18시까지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현재 문제 현황:

- 피해아동 지원체계 신뢰 부재
교사 정서학대 면책 등 아동인권에 반하는 입법적 흐름
- 협소한 정책방향
원가정 복귀를 중용하는 현 정책방향으로 인해 탈가정 청소년의 선택지가 협소해짐
- 아동학대 관련 공교육의 부재
교육과정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학교 자율(창체 등)로 맡겨진 경우가 태반
아동학대 예방교육
2021년 이전 아동학대 예방교육: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아동복지 관련 기관에서 실시·수강 가능
2021년 이후: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음
⇒ 필수가 아님, 적극적인 교육 장려/필수 교육이 필요

개선방향:

- 피해아동 지원체계 확대
원가정복귀 및 시설 입소 뿐만이 아닌,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자립지원(및 수반되는 기존 친권자의 친권 제한) 등 추가적 옵션 제공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 을 보장하는 아동 권리협약과 합치시킬 필요
- '교사 정서학대 면책' 법안 폐기
아동청소년학회 - 정서학대 면책 반대 성명
- 아동학대 교육 확대
교육과정 내 아동학대 관련 교육 포함
법령으로 관련 교육을 강제할 필요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이해나

아동인권LENS 활동을 통해 관심이 있었던 아동학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생각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인식조사를 통해서 아직은 아동인권에 아동들이 관심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아동학대 조사로 통해서는 아직 아동학대 처치 방법들에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의 마지막으로 팀멤버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미팅을 통해 서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윤수영

아동인권모니터링단으로서 수 개월동안 한국의 아동인권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활동하며 마주한 인식들을 개선하고 현장을 바꾸기 위한 활동에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어진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홍유나

평소 관심이 많았던 아동인권 문제를 직접 실생활에서 탐구하고 아이들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힘쓸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막연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짚는 것이 아닌, 스스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해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팀으로써 해결방법을 고안해내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배워 좋았습니다.

정세현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아동의 인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던 계기였고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잘 알고 있는 아동이 많지는 않았다는 결과가 나와 그점에서 더욱 아동인권을 보호하며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들을 잘 알고 행복하게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다방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디

아동학대 문제는 아주 조용히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또한 이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제3자의 개입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범죄이다. 아동 인권이 급부상하기 시작한 것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의 역할이 컸다. 아동 학대에 대한 말들이 오가고 입법례도 나오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는듯하다. 그 이유를 추측하건대, 아동의 입장에서 자기 보호를 위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 활동은 그곳을 파고들었던 활동이다. 아동들의 아동학대의 정의는 무엇인지, 어떤 상황이 아동학대인지 등의 질문을 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했고,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와 조사 중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함으로써 어떤 상황이 되어도 아동 본인은 안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팀으로 모여 활동해 준 팀원들 덕분에 많은 아동들에게 뜻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이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동들이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었던 것 같다. 보호받지 못하고 혼자 남겨질 수 있는 상황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아동들이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소중히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 같아 뿌듯했다.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안양외고(경기 3 LENS)

LENS	김선유, 김진성, 양태은, 유하나, 이수영, 이예현, 정시운, 최승호
코디 네이터	김령원

활동주제	
공동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주제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선정 이유

학생의 관심사와 아동인권을 엮은 탐구 주제를 하나씩 조사했고, 주제 후보로는 아동인권교육이 자기 존중 및 타인존중에 미치는 영향, 교육 현장 속 아동인권 충돌의 딜레마, 노키즈존, 아동학대 사례와 아동보호정책, 아동의 스크린 시간 사용과 미디어의 영향 등이 있었음.

- 이에 대한 발제를 듣고 복수응답으로 투표하여 만장일치로 선정.

2. 계획 수립

- 7월 : 발대식 미참석으로 인한 주제 선정 및 세부 계획 수립 진행, 활동 방법 논의, 주제 선정
- 8월 : 4인으로 나누어 두팀을 만들. 중어조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들이 겪은 문화차이 문제 양상에 대해 인터뷰 진행. 기존의 다문화 교육 현황에 대해 조사, 일어영어조는 기존 다문화 지원 정책의 현황을 조사하고, 다문화 인식 관련 설문 조사 진행.

- 9월 : 중어조 :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후 학교에 제안, 일어영어조는 원어민 선생님 인터뷰 및 다문화 관련 정책 제안을 담은 포스터와 일간지를 제작.
- 10-11월 : 최종발표회 준비

3. 조사대상 및 방법

- 1차 현황 조사 : 논문 및 신문 기사 읽고 정리
- 2차 조사 : 스티커 붙이기 여론조사 및 구글폼 설문조사, 외국인 선생님과 인터뷰
- 3차 활동 : 전문가 인터뷰 진행 및 제안서 작성

주제 도출 경과

〈주제 도출 과정〉

학생들 모두 모니터링하고 싶은 주제를 떠올리고, 간략히 현황을 조사해오도록 하였다. 회의에서 각자 발표하고, 두명씩 주제에 대해 의견을 첨언하는 방식으로 주제 선정을 진행했는데, 제안된 주제 후보는 아래와 같다.

- 1) 다문화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 2) 아동학대 사례와 아동보호정책 탐구
 - 3) 노키즈 존에 따른 아동인권 침해
 - 4) 교육 현장 속 아동인권 충돌의 딜레마
 - 5) 아동인권교육이 자기존중 및 타인존중에 미치는 영향
 - 6) 아동들의 스크린 시간 사용과 미디어가 아동들에게 끼치는 영향
 - > 비밀 채팅으로 각자 두-세개씩 주제를 고르게 하였고, 1)번 주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 1)번 주제에 대해 학생들은 다문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에 고정관념을 없앨 수 있는 활동을 실제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됨.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차 활동(08/05-08/17)

: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어려움을 본인의 관심사와 연관지어 현황 조사하기

- 방학 중 대면활동이 어려워 자율적인 현황 조사 활동으로 선정함.
- 학생들은 현황 조사를 위해 신문기사, 보고서, 논문 등을 참고함.
- 각자 한페이지 가량 현황 조사를 해왔고, 각조별로 현황 조사 내용을 발제함.

중어조:

- 미디어 속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에 대해 알아봄. (다문화 주체를 동화주의적 시각에서 묘사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재생산, 민족적 관념을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
- 다문화 가정의 아동의 어려움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 (타문화적 환경에서의 언어 및 문화적 어려움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문화적 적응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등의 결과)

일어영어조:

- 대한민국 다문화의 양상을 알아봄 : 다문화 수용률이 낮고,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한민족 국가였으며 비이민국가이기 때문에 다소 혼란을 겪고 있는 것.
-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봄.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예방과 이해 증진을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음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2차 활동 계획세우기

- 중국어조 : 청소년들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 안양외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 예정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직접 겪은 문화 차이/차별 등 문화적인 문제 양상 조사)

[일어영어조]

- 외국인 선생님과 인터뷰 진행
- 2주 후 금요일에 중간 점검을 위한 코디네이터와 zoom 회의 예정

1. 0901 16:00~17:00: 2차 활동 중간 점검 ZOOM 회의

0818 회의 후 2주간 2차 활동을 시행한 후, 2주 후 ZOOM에서 중간 점검을 실시함. 학생들에게 2주간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행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어느 정도인지 질문함.

중국어조

- 1) 다문화 인식 개선에 대한 연구에 대해 추가 자료 조사를 진행했고, 찾아보니 새로운 시도가 많이 없고 진부한 것 같아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이야기함.

- 2)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안양외고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선 및 제안하는 것을 모니터링의 목표로 세웠고, 그 다음 2주간 활동을 계획함.
- 3) 다음 대면 회의 전까지 안양외고에 어떤 다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 학교 선생님 인터뷰, 타 학교 다문화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비교하고, 유학생 설문조사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영어일어조

- 1) 영어일어조의 경우 0818 회의 후 2주간 진행 사항이 없어서 계획을 다시 세움.
- 2) 외국인 원어민 선생님과 다문화에 대해 인터뷰하고, 설문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인터뷰 섭외부터 질문지 제작까지 빠르게 진행할 계획.
3. 0915 16:00~17:00 : 2차 활동 마무리를 위한 대면 회의

중어조 :

- 안양외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었고, 학교 선생님과 인터뷰하여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학생들의 제안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확인.
- 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사례를 몇가지 확인.
- 안양외고 학생 중 유학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느낀 다문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완료.

일어영어조 :

- 학술지 포스터처럼 관련 개념과 학생들이 직접 수집한 통계자료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포스터를 학교에 붙여놓고 다문화 인식의 괴리 및 차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홍보할 예정.
 - 원어민 선생님 인터뷰 자료를 편집하여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포스터에서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 5) 11월(최종발표회) 일정 안내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3차 활동)

중어조 : 안양외고에 제안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 커리큘럼 제안

특히, 정연두 작가의 '백년 여행기'와 연관시킴.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 제안이 담김 (이수영학생)

=> 제안서 작성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서	
비교과 프로그램명	『이방인이 되어보는 체험』 다문화 인식 개선 커리큘럼
프로그램 개요	-각 학교별 각자 가진 다문화 인식 공유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 학생들을 공감해보기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할 지 토의 -학교별 시행 계획서 제출 (미술관 방문, 자매교 학생과 교류 등) -체험 -체험 후 후속활동으로 모듬별 해당 체험에 대한 발표, 다음 체험으로 무엇이 좋을 지 논의
참여대상	중고등학교 (이직 한국 학생들의 인식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미흡함. 따라서 현재는 사실상 안양외고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함.)
목적 및 필요성	-다문화 학생들을 많이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 한국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함. -지금껏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였기에 학생들은 다문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함. 경험의 격차를 교육으로 메워줄 필요가 있기에 다문화 커리큘럼의 보편적인 도입은 절실한 상황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학생들의 국제 사회 진출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기에 본격적으로 다문화화를 접하기 전 아동에게 기본적인 다문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기획 및 추진 배경	-경험의 격차로 발생하는 한국 학교의 다문화 아동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를 줄여주고자 커리큘럼을 기획함. -글로벌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내세우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입장임에도 다문화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됨. 추후 국제 사회로 진출할 한국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문화 아동들에게 보다 열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기대 효과	-기존의 다문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 혹은 기본적인 이론만 알려주는 주입식 교육의 형태에서 탈피하여 효율적임을 넘어선 보다 체계되는 커리큘럼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임. 학생 주도적인 프로그램이기에 프로그램 자체를 즐기며 다문화 교육에 대한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임. -조사 결과 실제 한국 학생들이 다문화 이해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기에 본 커리큘럼이 실제로 도입되어 시행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세부 추진 계획 및 내용	커리큘럼 고안 과정에서 정연두 작가의 '백년여행기'를 참고함. '백년여행기'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으로, 한국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의 기분을 느끼며 근본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커리큘럼 시행 예시로 미술관 방문을 들.



또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해 하는 교육인 만큼, 커리큘럼 자체에 유동성이 필요하다.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미디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각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은 조금씩 다를 것이다. 또 현재 현대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을 객관적으로 다량 조사해 취합한 것이 아니기에, 추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채택해 더욱 광범위한 인식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제대로 된 데이터가 취합되지 않았기에 우선 학생들은 각 반에서 각자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 이후 학생들은 그들이 고안한 아이디어를 모아 각자만의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자매교 학생이 반에 방문했을 때의 활동, 혹은 미술관에 방문해 '백년 여행기'와 같은 작품을 감상하는 참관수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이방인에 대한 공감', '이방인이 직접 되어보는 체험'을 키워드로 하여 큰 틀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청소년이 다문화에 대해 직접 고민하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어조 :

학교 제출용으로 일간지를 작성함 (LENS 소개, 활동과정, 인터뷰 설문조사 정리, 정책 및 제안 정리를 포함) 2차 활동 이후 새로운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기는 어려웠고, 지금까지의 모니터링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 일간지를 만들었습니다.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LENS 소감〉

Q1. 이번 활동을 통해 배운 점

이수영 :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음에도 한국의 다문화 교육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현 재학 중인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외에도 다양한 고등학교의 사례를 분석하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커리큘럼 제안을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의 커리큘럼을 구상하는데 관련 정책과 법안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활동 과정에서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 정도, 커리큘럼 제안서 작성법, 관련 교육법과 정책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취합한 사례를 통해 공통적인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간이‘현상학적 연구’법을 사용하며 다양한 사례를 하나의 커리큘럼을 만드는데 적용하는 법을 배웠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예현 : 다문화 가정에서 아동이 겪는 어려움에서 더 확장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고자 다문화 교육 관련 정책을 만들어보았다. 첫 번째는, 한국인은 단일 민족이라는 인식이 경직되었는데, 이를 깨기 위해 적극적 우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난민 수용률에 관한 인식 또한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이 정책은 낙인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깨달았다. 두 번째 정책은, 다문화 교육의 주체를 지자체로 하여,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시운 : 일단 가장 크게 배운것은 협력하는 방법인 것 같다. 아무래도 예민한 시기에 서로 잘 모르는 친구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 협력하는 방법, 협조 및 존중하는 방법 문제해결능력 등 다양한 것을 배웠다. 이 활동으로 인해 아동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고 다문화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던 활동이었다. 나의 진로는 경영이다. 아무래도 경영은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활동에서 배운 것들을 후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선유 : 아동인권보호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다문화에 대해서 심화있게 배울 수 있었던 거 같다. 다문화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미디어에서는 다문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조사를 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방송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평소 국제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국제적 이슈인 다문화에 대해 조사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친구들과 의견을 모으는 협동심을 배운거 같다.

조하나 :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변화 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보다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과거보다 현재에 와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느꼈다. 과거에는

자신이 다문화 가정인 사실을 숨기는 아이들도 많았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제외하고서는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당시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인식이 개선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관련 여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이전의 다문화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 사이 갈등 관계, 떨어져서 지내야하는 안타까운 다문화 가정이 주였던 것과 현재는 다르다. 현재에 와서는 유명 아이돌 그룹들이 대부분 다국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그들을 바탕으로 문화를 배워가는 프로그램이 많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인 아이돌들을 앞에 내세운 프로그램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나가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최근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도 다국적 아이돌을 게스트로 데려와 타국의 문화를 알아가는 회차를 기획한 것 등이 존재한다.

Q2. 이번 활동 후 느낀 점

이수영 : 아동의 다문화 교육 실태와 피해 사례를 조사하며 타국의 상황도 접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사례가 인상깊었는데,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기에 미국 청소년에게 다문화란 친숙한 소재이지만 한국 청소년에게 다문화는 낯선 소재일 뿐이라는 점이 기억에 남았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분명하고 다문화 인식도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에 익숙치 않은 한국 학생들을 비판할 순 없기에 '경험의 격차를 교육으로 메워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육분야를 지망하는 학생으로서 전체적인 활동에서 느끼게 된 이 경험의 격차를 교육으로 메워준다는 아이디어는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밑거름이 되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로 남는다.

이예현 : 국가에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파멸의 결과를 맞을 것이다. 마치 과거에 감자가 단일 품종으로 재배되는 국가에서 감자가 변형되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것처럼 말이다. 국가에 다양성을 추가하기 위해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다문화 가정을 넓은 인식으로 바라보는 게 세계 평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것 같다.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세계 여러나라의 정책, 난민 수용에 관한 국제 정세를 알아보며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정시운 :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안 힘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시험기간이 겹치거나 수행, 여러가지 활동 등 챙겨야하는 것들이 많은데 LENS 활동까지 하느라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다. 또 우리 학교의 다른 반 친구들과 하기 때문에 별로 친하지 않은데 같이 활동을 해야만 했고 이것이 두 번째로 힘든 점이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 활동은 가치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가지로 처음 해 보는 활동이었고 배울 점이 하나라도 있었고 새롭게 알고 느낀게 있었다면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선유 : 아동인권보호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게 아니여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각자 다문화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고 친구들과 토의를 하였는데 제안서를 만들기로 하였다. 따라서 우리 학교에 다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하자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쓰면서 우리가 진짜 아동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듯하였다. 또한 처음에 의견이 안 맞아서 조원들끼리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제안서를 완벽하게 만들고 ppt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게 정말 뜻깊은 경험인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하나 : 한 가지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이를 제안하기까지의 과정이 있기까지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다방면에 존재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에서 비롯하여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지까지 이전에 했던 활동들 보다 신경 쓸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내가 미래에 하고자 하는 진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직업이기 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 부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코디네이터 소감〉

우선, 아동인권의 당사자들이 직접 아동인권 실태를 모니터링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몇 개월 동안 학생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주제 선정 회의부터 학생들이 열심히 자료를 조사해와서 아동인권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던 점에 감동했다. 코디네이터로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비롯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강하며, 그 활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문화 아동을 위해 세 달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며,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인권에 대한 애정을 더욱 갖게 되고, 발표 자리에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아동인권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는 의미를 찾고 느낄 수 있었다.

아쉬운 점으로는 대면으로 만나는 시간이 3개월 동안에는 두 번뿐이었고, 나머지 피드백은 줌이나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다는 점이었다. 또한 바쁜 학사 일정 때문에 한 달에 한 주 정도만 집중적으로 활동을 진행했는데, 그로 인해 연속성 있는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활동들이 모아진 것 같아 아쉬웠다. 또한, 모니터링 단의 규모가 커서 2개 조로 나눠서 진행했는데, 두 조가 공통 주제를 다루면서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한 팀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있다.

코디네이터로서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계획을 함께 세우고 피드백을 남겨주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완성된 발표 자료를 보면 학생들의 역량 덕분에 가능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이예현 (과학)

1. 주제선정 회의

이수영

모니터링 하고 싶은 주제	교육 현장 속 아동인권 총동의 딜레마
아동/청소년의 무손 권리와 관련 있는지	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중 선택 보호권, 발달권
이유	과거 우리나라 교육은 행동주의 교육 시스템을 위함 에 차별이 담겨있다고 했다. 이 후 아동인권의 이슈가 조명받기 시작하며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차단하고 학습권을 존중하자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당시엔 교권과 아동인권이 충돌할 수 있음을 알지 못했다. 현 사회에서 교권과 아동인권 간의 충돌이 일어나 며 주권 받고 있는 만큼, 아동인권을 공부하는 우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동인권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지 교육 현장 속에서 생각해보고 실질적인 결론 을 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 즉 교육 현장 속 아동인권은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학생과 교사의 관계 속 인권 충돌 문제도 조명받고 있는데, 이는 곧 인권 교육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실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인권 교육이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개선법을 탐구할 후 실제 개선 시 나타날 효과를 아동인권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간략한 현황 조사	https://www.poline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582380F0 (교권 침해 현황) http://www.goodmorningccr.com/news/articleView.html?idxno=780678 (교원 평가 해지 요청 제도) => 교권과 아동인권 간의 충돌 https://www.sangju.co.kr/article.php?idx=1681044000750917007 (영점순 '코 없는 코끼리' 관련 기사) => 시각장애 아동이 청각적 예술 작품을 보여 무언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 질서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시각에서 차별과 다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의 권함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하고 싶은 주제	노키즈 존에 따른 아동인권 침해
아동/청소년의 무손 권리와 관련 있는지	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중 선택 참여권
이유	노 키즈 존을 운영하는 상업 시설들이 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원, 쇼핑을 등에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밖거리'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배려는 아동이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참여권과 관련이 있다. 또한, 요즘 거론되는 이슈인 스티디 카페 연령 제한도 이 문제와 겹치고 생각한다.
간략한 현황 조사	사경님들이 하는 말로는 "시내면 노키즈존이 가능한데 동네 장사는 어렵다"며 "진짜 정신병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노키즈존을 들어본 적이 있고,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7%였으며, 들어본 적이 있으나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응답은 23%, 처음 듣는 말이라는 응답은 20%였다. 노키즈존 허용할 수 있다 71%, 허용할 수 없다 17% 초등학생 이하 자녀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70%가 '노키즈존 허용할 수 있다' 인지도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20대는 86%, 30대는 77%가 노키즈존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50대는 40%, 60세 이상에서는 35%만이 노키즈존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 모니터링하기 재미있을듯, 노키즈 존의 발생 원인을 생각해보고 해결책도 연결해보면 좋을듯, 인식 개선이나 노력 등...
- 넓은 범위의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인데, 활동한다면 학생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활동 진행해도 재미있을듯, 활동 다양해줄듯
- 주변에 노키즈 존 있음, 과거에는 없었는데 왜 생겼는지, 애들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고려해서.

정시운

최승호

모니터링 하고 싶은 주제	다문화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무손 권리와 관련 있는지	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중 선택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이유	최근 뉴스에서 다문화 가정 차별에 대한 심각성에 관한 기사를 봤는데, 과연 이러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이 아동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고 싶다.
간략한 현황 조사	출인구의 4%가 외국인... '다문화 사회' 넘어 '다민족 국가'.. 문화일보 munhwa 이 기사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4퍼센트인 38만5000가구가 다문화 가구라고 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다문화 사회'가 아닌 '다민족 국가'의 변모에 올라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2020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UN OHCHR)의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의 인종차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며, 인종에 고정관념이나 법적 차별 금지 규정의 한계가 크다고 말한다.

- 다문화 점점 늘어나는 것 실감.
- 인식 타파할 수 있는 예시 제공, 고정관념 없앨 수 있는 것들도 조사. (게시판 같은 걸 보여줌)
- 과거보다 많이 증가, 어려움 극복위해 정책들 많이 나오고 있음, 그럼에도 해결이 완전히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만의 특별한 활동하고 싶다.

모니터링 하고 싶은 주제	아동학대 사례와 아동보호정책 탐구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탐구)
아동/청소년의 무손 권리와 관련 있는지	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중 선택 생존권, 보호권
이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각 나라에서는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책 국민들은 어떤 아동보호정책이 시행되는지 아동학대가 정확히 무엇이고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더 깊게 탐구하고 싶다.
간략한 현황 조사	사례) 2023년 초, 12살 아이가 의복 어머니에게 1년남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결국 아이는 사망했고 어머니는 구속되었다. 아동보호정책) 아동복지법을 제정하고 아동정책을 발표하였다. 아동권리들 4개 분야로 나누어 권리 보장을 명시한다.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서울: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에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인권의 주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인권이 보장되어야한다고 규정한다.

- 아동학대에 대해 조사하고 알리는 홍보활동, 정책 부족한 점 찾아서
-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un관련 규정도 찾아보는 것도 좋을듯.
-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준.
- 4개 분야에 대해 각각 조사를 해서 분야에 대해 설문조사, 잘 알고 있는지.
- 어떤 유형이 있는지 조사해서, 인식조사.

2. 1차활동

2. 1차 회의 현황조사 자료

진성

현황 및 실태	행정안전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019년 11월 기준 221만6612명으로 나타났다(출처 : MS투데이). 앞으로 외국인 거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 가정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고 한들 아직까지 차별은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에서 이주민 3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인종차별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은 68.4%로 높게 나타났다. 이때다(출처:MS투데이). 2011년 한국청소년 상담원이 쓴 다문화청소년의 실태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들은 언어적 차이로 인한 교육의 어려움, 또래관계, 언어 차이로 인한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내용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늘어나는 결혼 이민자들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2020년부터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을 시행하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안에는 다문화가족의 정의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방법들을 명시하며,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의 차별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제 10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차별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여러 방면에서 다문화가족의 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규정해놓았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부여하며,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	다음 활동할 주제로 우리 주변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새로 탐구하며 나의 진로와 관련하여 문제들과 관련된 법률 등을 조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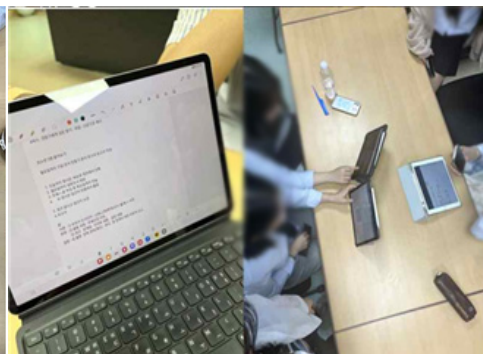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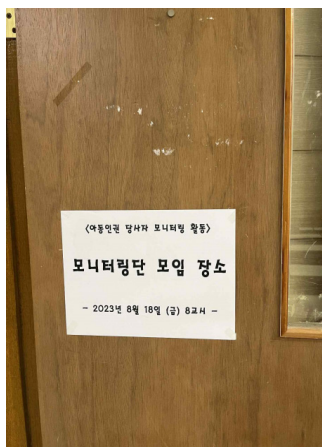
수영

현황 및 실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기관과의 미비한 연계 사업, 교육교직원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역량 부족 등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道) 국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다문화교육의 모호하고 광범위한 개념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다문화교육 실천을 더욱 어렵게 느끼기도 한다. 이에 연구자들은 국내에서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저급이집 교사 및 운영자(교육교직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현재 '지' 교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 주제는 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및 태도와 같은 교사 전문성에 대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몇 안 되는 다문화교육 실제 연구는 주로 교육교직원의 다문화교육 실천여부 및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 실제로 교육교사의 다문화교육 실천 전략을 연구한 모든 연구자가 교육교사가 다문화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으며, 공통적으로는 언어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연구자들은 자녀 양육 관련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다문화교육 교사 지원 프로그램 부재 등도 실천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현재까지 교육교직원들이 겪어 이러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인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깊이는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으로 남아있다. 즉 교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관계에 있어, 또 그들에 대한 대응에 있어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제도/환경적 문제가 크게 작용하여 문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활동 내용	다문화가정 유아의 증가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의 다문화가정 유아의 재원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5세 이하 유아 중 16.7%는 유원원, 56.4%는 어린이집을, 27.0%는 부모 보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비율은 총 73.1%로서 37.4%에 비해 비약적으로 수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 능력과 어머니와 자녀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매우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속도는 비다문화가정 유아와 유사하나, 발달의 정도는 느리며 발달 격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겪게 되는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편견은 부모, 교사를 비롯한 한국 사회가 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적 맥락에서 다층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유치원 상황에서 보여지는 생활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듯 다문화가정의 유아에 대한 연구는 가족 및 사회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보다 폭넓은 시각의 생태학적 관점을 필요로 한다.

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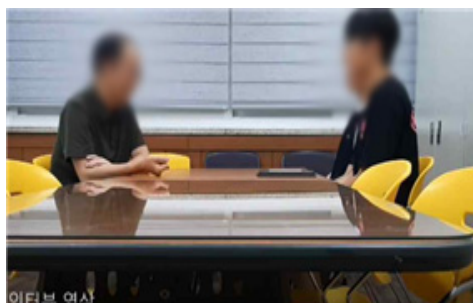
현황 및 실태	청소년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 다문화 가정 학생수는 137,225명이며 2012년 46,954명에 비해 약 2.9배 증가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 학생수는 2018년보다 12.3% 증가하였으나 전체 학생 수는 2018년보다 2.8% 감소한 782만 1천명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함으로써 거부감이 높아지면서 차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별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글로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위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지난 1년간 차별을 받거나 무시당한 경험의 비율이 9.2%로 나타나서 2015년 6.9%에 비해 2.3% 증가하였고 차별을 한 대상으로는 친구가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차별 경험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우울, 주관적 행복, 심리사회적 적응, 학교생활적응 등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존엄성의 가치실현이 아닌 편견과 소외의 차별경험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타인의 평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춘기의 청소년은 차별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매우 크고 후유증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활동 내용	다문화 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의 심리 문제를 비교한 결과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정체감 혼돈의 심리 변인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비교하여 높은 문제를 나타냈다. 반면 일반 학생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비해 높은 심리적 안정감을 보였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괴롭힘 피해 경험이 심리 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정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안정감은 괴롭힘 피해 경험과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정체감 혼돈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학업 및 행동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적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학생들과 통합되지 못하고 소외계층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존증강을 향상시켜주고 이들의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사회적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2차 회의 (대면)



4. 3차 회의 (비대면)

- 영어일어조 원어민 선생님 인터뷰 : 영상 제작



- 중어조 추가 현황 조사

#한국 다문화교육의 한계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

- 1)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함
- 2) 선주민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지식으로 배우게 하는 국제이해 교육과 비슷한 형식으로 다문화교육의 수업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
- 3) 각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교육부는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밝히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 조성'을 과제로 삼고 있지만 '다양성 공존'보다는 '다양한 문화를 무리 없이 동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 **근거)** 다문화교육 추진과제 내의 한국어 교육의 계획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지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계획은 구체적 계획이 부재한 구호와 같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연간 2시간 이상'은 학교 교육 현실에서는 2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며 주제 내용 또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다. '세계인의 날' 연계한 다문화교육 주간은 캠페인 성격이 짙다.

#현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정리: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과 정을 강조하는 동화주의 정책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나열식의 다른 나라 문화 체험은 오히려 '다름'이 주목받으면서 다름을 확인시키고 강조하여 오히려 타자화할 우려가 있다.

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다양한 배경 등을 이유로 인한 차별 행동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 교육은 이주의 원인과 불평등한 구조의 문제 등을 다루지 않고는 공허한 얘기일 수 있다. 연구자는 한국어 교육, 학교 적응, 문화 체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차별하지 말자'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교육 담론의 일방적인 사회통합 지향과 그에 따른 다문화교육 정책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다문화교육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그들의 문화가 평등하게 공존하고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거나 서열화되는 것에 저항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깨우는 역할을 해야 하며, 나아가 다양 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이주의 원인, 권력 관계, 불평등한 구조의 문제, 차별과 편견을 목인하는 폭력에 저항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다.

#해외사례:

다문화사회 논의에 있어서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서유럽 국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미국, 캐나다, 호주는 근대 시기에 원주민이 있는 지역에 유럽인들이 국가를 건설하였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2) 서유럽 국가들은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의 식민지 국가의 이민자를 수용하면서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다문화 사회가 된 배경은 다르지만 이렇게 형성된 사회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로 나뉘게 되고 비주류 문화는 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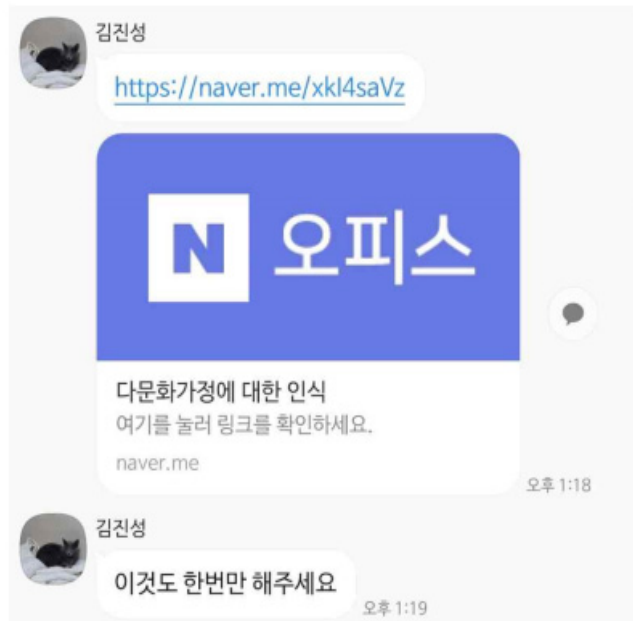
(미국의 사례)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는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 타민족들이 저항하였다. 1960년대 인종, 성, 문화 등 차별을 줄이려는 시민운동은 다문화사회를 건설하는 계기가 되었고 1970년 대 다문화 사회 운동은 다문화교육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영국의 사례) 영국도 인종차별 반대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관용과 상호 이해를 강조하게 되었고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보다 간 문화 교육 또는 상호문화이해 교육 등의 용어로 시민교육에 포함되었다.

#저항 정신&다문화사회: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사회이다. 단지 공존을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융합된 새로운 사회를 말한다. 그러므로 다문화교육이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에 저항하는 저항 정신을 바탕에 두는 것은 필연적이다. 1968년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종과 성차별이 존재 하는 기존 사회의 가치를 거부하고 모순을 제거하고, 전쟁 반대를 주장하는 '신사회운동'이 거세게 펼쳐졌다. 다문화교육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반영 되어 저항정신을 바탕에 두고 인종·성·계급 차별의 문제를 주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즉 다문화사회 형성 배경이 다른 두 축의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저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5. 4차 회의 (대면)
 - 영어일어조 설문조사 시행



경남즈(경남 LENS)

LENS	장지민, 김지현, 이수민, 전덕현, 김형석, 임지연, 서유민, 박정아, 김보건, 이혜나, 이재희
코디 네이터	박선주

활동주제	
공통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주제	아동·청소년 노동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방안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선정 이유

인권위가 지난 2020년 실시한 ‘청소년 노동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 중 4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해도 이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응답자의 12%는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42.8%만이 최근 1년 사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상승하는 추세다. 15~19세 경제활동참가율의 전국 평균은 2010년 7.0%에서 2022년 8.5%로 증가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은 대개 성인보다 취약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노동환경과 인권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경남권역 모니터링단 아동들이 고등학생이고 현재 노동(아르바이트)을 하고 있는 바 이에 선정했다.

2. 계획세우기

9월

- LENS 1차 보고서 작성 시 현황조사 선정

- 2차 활동 교내 설문조사 활동 실행 계획
- 공통주제 설문조사 실행 이행
- 권역주제 모니터링 및 자료조사

10월

- 교내 설문조사를 위한 판넬 제작
- 판넬 제작을 위한 자료조사
- 교내 설문조사 시행
- 설문조사 결과 도출 및 의견 제안

3. 조사대상 및 방법

대상: 경남 동명고등학교 고등학생

방법: 질문지법(오프라인 설문조사) : 설문조사 팸플릿을 만들어 직접 학생들이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캠페인 진행

주제 도출 경과

경남권역 모니터링단 중에서 실제 노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다. 코디네이터인 본인 역시 학창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을 여럿 봤다. 성인이 된 지금도 노동법 관련 개념이 생소한데, 하물며 고등학생들은 오죽하겠는가. 주제선정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노동법이 아직도 준수되지 않으며 노동환경 또한 열악하고 심지어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하는 청소년이 대다수였다. 고등학생이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주제에 알맞다고 봤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 더욱 생생한 자료조사를 담았다. 해당 주제였기에 더 공감이 됐다고 본다.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8월 22일 오후 5시경 경남 소재 밀양 동명고등학교에서 첫 번째 모임을 가짐. 이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간단한 자기소개와 질의응답
2. 활동 주제 논의 및 활동방향 안내
3. 청소년의 노동법과 침해사례 조사
4. 공통주제 설문조사 실행 이행
 - 개개인이 SNS 공유 혹은 직접 주변 친구에게 전하는 것으로 논의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9월 27일 경남 동명고 근처에 위치한 카페에서 2번째 모임을 가짐. 이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교내 설문조사를 위한 판넬 제작

준비물을 근처 문구점에서 사와 제작 실행. 총 2개로, 교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근로조건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됨.

2. 판넬 제작을 위한 자료조사

판넬에 들어갈 질문지와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자료조사를 실시함. 각각의 학생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등 의논을 통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정함. 또한 노동권에 대한 용어를 서로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짐.

3. 교내 설문조사 시행에 대한 의논

해당 설문조사를 언제 어디서 시행할지 의논함. 그 결과 유동인구가 많고 쉬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을 이용하기로 함.

4. 활동 마지막 소감

마지막 모임인 만큼,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소감이나 아쉬운 점은 없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눔.

5. 결과발표회 논의

결과발표회에 대한 일정을 공유함. 또한 발표자를 투표로 선정함. 결과 발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서로 의견을 얘기함.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1. 활동결과 (교내 설문조사 실시)

10월 5일 학교 급식소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모니터링단 학생들이 캠페인을 실시함. 경남 동명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권과 관련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지와 어떤 근로조건 아래 노동을 하게 됐는지 등, 실태조사 캠페인을 함. 설문조사 결과는 아르바이트 경험의 유무에서 예를 선택한 사람은 46.5%, 아니오를 선택한 사람은 53.4%로 더 많았음. 또한 합당한 근로조건 아래 노동이 이루어졌는지 설문결과 예를 선택한 사람은 37.5%, 아니오를 선택한 사람은 62.5%임. 그 중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다"는 19.5%, "노동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31.7%, "안전과 위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29.2%, "휴가제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19.5%로 나타남.

2. 아동 제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전체의 33.8%만 학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면 상대적으로 갑의 입장에 있는 고용주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변화도 필요하겠지만 학교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노동권 등의 청소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장에서 청소년 노동권이 어느 정도 보호되고 지켜지는지 정부에서 나서서 감시하고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나를 비롯한 청소년에게는 다소 멀게 느껴진다. 청소년이 자신의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 수준에서 이해가 어려운 법적인 용어로 쓰여 있는 근로 계약서로는 내 권리를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쉬운 용어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1. LENS 소감

- 청소년 노동권 침해가 먼 얘기 같았는데 캠페인을 통해 조사해보니 가까운 곳에 여러 청소년 노동권 침해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 근로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대표하는 주인공들이므로 교육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 아동 노동인권이 필요한 나라는 해외 후진국의 아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서 국내에서 많은 수의 청소년이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르바이트는 말 그대로 ‘임시로 하는 일’이기에 노동 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 조건이 좋지 않다. 일자리는 대부분 서비스업이고 기본적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상한 손님을 만나면 거친 말이나 모멸감을 주는 눈빛이나 몸짓도 경험하게 된다. 일하는 곳의 주인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도 하며 심하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웠다.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코디네이터 소감

모니터링단 학생들과 한 팀으로 호흡을 맞춰 활동한다는 것이 뜻 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시간 관계상 생각보다 많은 활동은 하지 못했고, 빨리 끝난 감이 있어 다소 아쉽다. 평소 노동법에 관심이 많아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 아동인권과 엮으려곤 생각지도 못했다. 모니터링단 학생들 덕에 좋은 주제를 선정 할 수 있었다. 생소한 법률 용어를 이번 계기로 모니터링단 학생들이 알게 된 것 같아 다행이고, 앞으로 노동환경이 점차 개선돼서 청소년 노동권이 보장되길 바란다.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1차 회의



↑ 2차 회의 판넬 제작



↑ 교내 설문조사 캠페인 실시

청자(경북 1 LENS)

LENS	이정연, 황이현, 이승원, 이도혁, 한서준
코디 네이터	박재영

활동주제	
공동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주제	pc방, 노래방에서의 청소년 출입 제한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선정 이유

발대식에서 한 아동이 낸 의견인 pc방, 노래방에서의 청소년 출입 제한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고 조원들도 다루어보고 싶다고 하여 정하게 됨.

2. 계획세우기

8월

7월 28일 오후 7~9시 줌으로 미팅

9월

9월 16일 오후 7~8시 대구 수성구 근처카페에서 미팅

10월

10월 14일 오후 7시~9시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만나기

3. 조사대상 및 방법

대상: 청소년

방법: 구글폼 인터넷 설문조사

주제 도출 경과

발대식 포스트잇 붙이기에서 pc방, 노래방에서의 청소년 출입 제한에 대해 의견을 냄.
 발대식에 참여한 다른 팀의 아동들이 공감하는 의견을 냄.
 다양한 주제를 얘기하던 중 조원들 또한 이 주제를 다루어보고 싶다고 하여 다수결로 결정함.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아동들의 상황과 안부를 간단히 확인함.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의견을 나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카드뉴스에 대해 서로 피드백을 함.
 신문고에 의견을 올릴 때 각자 한 부분씩 맡아서 할지, 모두 써와서 합칠지 얘기를 나누고 후자로 결정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신청을 하기로 함.
 봉사활동시간 및 발대식, 결과발표회, 활동비에 대해 안내함.
 2차 모임 시기와 장소에 대해 협의함.
 인권 관련 대회 포스터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하고 싶은 아동이 있는지 확인함.

- 신문고에 올릴 내용을 작성해오기로 했으나 아동들이 시간을 더 달라고 하여 다음 회의로 미룸.
- 3차 회의 시간과 장소를 협의함.
- 카드뉴스 완성한 것을 누가 어디에 올릴지 협의함.
- 카드뉴스 만들 때에 미리캔버스 프로가 필요하다는 부원이 있어 필요한 인원을 조사함.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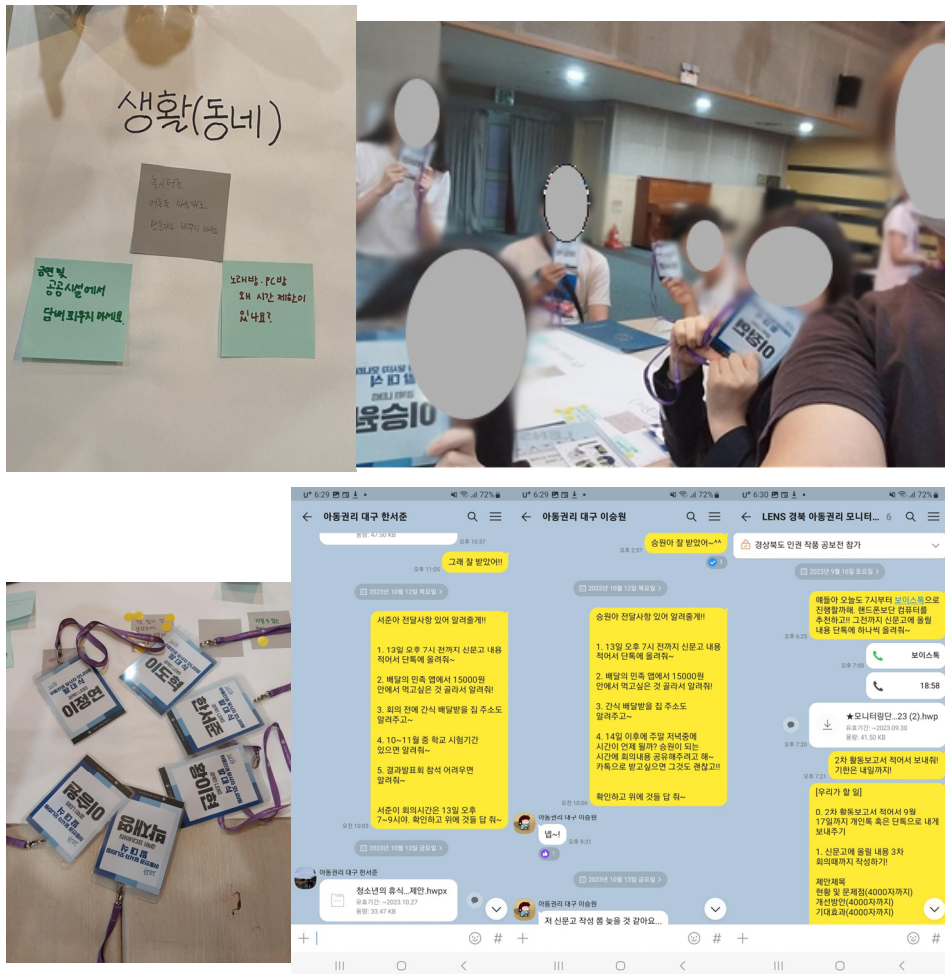
신문고 및 인권위원회 진정신청을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로 신문고 의견이 이관된 상태임.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같은 경상북도지만 팀원들 거주 지역 간에 거리가 멀어 만나기가 어려웠고 활동을 매끄럽게 진행하기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시간이 갈수록 시험기간으로 인해 아동들과 연락하기 어려워졌음. 그러나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설문조사를 해 보며 신문고에 낼 의견을 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함.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DHI 인연동(경북 2 LENS)

LENS	김민주, 김수아, 박소현, 배정윤, 우다인, 이명은, 이유나, 이현지, 정서윤, 최서영, 최재원
코디 네이터	민선이

활동주제	
공통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주제	미등록아동의 인권 보장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선정 이유

- >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인식 중요성 부재, 미등록 아동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
- > 인권 침해 관련 조항 (UN 아동권리 협약 7조)

UN 아동권리협약 7조 : 아동은 태어난 즉시 등록되고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태어난 날 장소가 기록되어야 한다. 아동이 이름과 국적, 그리고 법적 신분을 갖는 것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 기사"

출생신고 없이 12년 '미등록 아기' 2천명 전수조사 착수

199 2023.06.28 20:08 | 199 2023.06.28 21:08

인천에서 대상 아동 3명 가운데 1명이 유기된 정황이 발견
2023.06.28무엇이든 물어보살 출연
출생 미등록 아들이었던 배우지망생 조*나 사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현황



2. 계획 수립

- 8월 : 발대식 미참석으로 인한 주제 선정 및 세부 계획 수립 진행, 활동 방법 논의
- 9월 : 세 팀으로 나누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카드뉴스 내용 기획 및 제작을 진행할 예정임. (업로드 : 대구국제고등학교 인권 동아리 인스타그램)
- 10월 : 2차 활동에 제작한 카드뉴스 발표, 최종 발표회 전 발표 연습 및 발표자 선정
- 11월 : 최종발표회 준비

3. 조사대상 및 방법

- 방법 : 국제고등학교 인권 동아리 인스타그램에 카드뉴스 업로드

- 내용 :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정책 및 개선 필요성에 관한 기사와 사례를 조사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교육 및 건강 접근 어려움과 출생 미등록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OR 겪고 있는)보호 및 복지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조사함.

주제 도출 경과

〈주제 도출 과정〉

먼저, 국제고 아이들과 ‘아동 인권 침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LENS 단원 모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함. 그 결과 렌즈 단원 전원이 아동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좇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나온 의견으로는 아래와 같다.

- 1) 신체적(체벌의 수위가 높음), 정서적 학대
 - 2) 출생 미등록 아동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 3) 입양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 - 혜택적 이유로 입양을 하는 경우가 상당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함
 - 4) 이주 노동자 자녀들(다문화 가정)의 인권 침해 문제
 - 5)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올바르지 않은 편식 교육(강제로 음식을 먹게함)
 - 6) 아이들 간의 따돌림 문제(학교 폭력)
 - 7) 아동 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8) 재혼, 이혼 가정에서 아동들이 겪는 인권 침해 문제
 - 9) 유해물로부터의 노출
- 이후 발의된 의견 중에서 아동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제선정 방법을 아동들과 이야기하였으며 그 결과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하는 주제 선정을 함 (결과 : 미등록 아동이 대다수의 투표수를 차지함), 이후 코디는 아동들에게 미등록 아동에 관련된 이슈 중 ‘베이비 박스’ 찬반 문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기도 함.

〈미등록 아동의 발생 원인〉

출생미등록아동 발생원인

- 1) 출산기록이 남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 2) 부모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는 국내법상 출생을 등록하는 가족관계등록에서 배제됨 / 난민,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생등록이 어려운 현실임

출생미등록아동 발생실태 :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를 활용한 전수 조사
착수 / 확인된 아동 2,236명 (올해 4월 기준), 출생신고 이
뤄진 아동 제외 2,123명 조사대상

〈미등록 아동 현황 및 실태〉

2019~2020년 출생 미신고 아동은 146명으로 파악됨. 단체는 가정에 있는 미신고 아동을 포함하면 그 수를 8000~2만 명으로 추산함.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의 원인은 ▲친생 부인의 소 등 혼인 관계 문제 36명(78.2%)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 지연 5명(10.9%) ▲미혼모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지연 4명(8.7%) ▲외국 거주 1명(2.2%) 임.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 전수조사에서 열에 하나꼴로 사망 아동이 발생하는 등 일반적 영아 사망률과 비교해 미등록 아동 사망률이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출산 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지금과 달리 병원에서 출생정보를 시·읍·면에게 통보하는 방식인 출생 통보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미등록 아동이 사회에서 겪게 되는 문제 조사〉

- 1) 인권 침해: 미등록아동은 정부나 사회체계에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의 권리와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음. 이로 인해 그들은 교육, 건강 관리, 안전, 식량, 그리고 보호 등의 기본 인권을 적절하게 받지 못할 수 있음
- 2) 교육 부적절: 미등록아동은 학교에 등록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 이로 인해 그들은 기본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고, 미래에 진로 및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음
- 3) 건강 문제: 미등록아동은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예방적 건강 서비스 및 의료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전염병 확산 및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4) 사회적 취약성: 미등록아동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으며, 학대, 성차별, 인신매매, 아동노동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그들은 미래에 정상적인 사회 및 경제적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받을 수 있음.
- 5) 범죄와 연결: 미등록아동은 범죄와 연관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그들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지 못해 범죄 조직의 희생자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불법 활동에 연루될 수도 있음.
- 6) 정부의 사회 서비스 문제: 미등록아동 문제는 정부 및 사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며, 이로 인해 리소스와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미등록아동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건강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및 국제 커뮤니티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

〈미등록 아동과 관련한 타 국가의 법률안〉

일본의 호적법

영국의 미등록 아동 정책 : 잉글랜드, 웨일즈의 경우 병원에서 출생하면 병원시스템을 통해 의료보장번호가 발급되어 통계청에서 통합관리함

미국 연방 민권법, 초 중등 교육법

프랑스 보법 사례 : 국가 의료 지원 -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공공 의료비 지원 시스템
대한민국 건강권 실태 : 한국 사회에서 이주 아동 건강권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실질적인 법과 제도, 정책이 부재하여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됨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아동 인권에 대한 아동들의 의견 공유하기
2. 전체적인 주제 선정 및 주제에 관한 자료조사
3. 전반적인 하반기 일정 계획

주제 도출 경과에서도 언급해듯이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등록 아동'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게 됨. 코디는 1학기 '아동 권리와 복지' 과목에서 '미등록 아동'에 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미등록 아동'과 관련해 알고 있던 지식들을 공유함. 공유한 지식에는 9월부터 시행되는 출생등록제 소개, 베이비 박스 사건 등을 소개해줌

〈베이비 박스 논쟁과 관련한 토론 내용〉

찬성 : 한 명이라도 더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다

반대 :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추가) 베이비 박스 논쟁과 관련한 '코디'의 개인적인 생각

2009년 한 종교기관에 의해 서울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되고 2012년에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 우리 사회에서는 베이비박스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는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와 '자녀의 생명권'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다. 베이비박스가 아동 유기와 관련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는 베이비박스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아동을 유기하고 살해되는 환경을 개선하

는 해결책을 주고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종락 목사도 “베이비박스가 영아 살해를 예방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바에서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베이비박스로부터 근거리에 있는 신도림역 부근에서도 영아가 살해되었고, 그리 멀지 않는 광진구의 한 고시원에서도 영아는 엄마와 함께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인천에 사는 한 십대 소녀는 베이비박스로 가서 아이를 두는 대신 부산으로 가서 출산으로 하고 모텔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사망하게 하였으며, 중랑구의 한 16살 고등학생도 집에서 출산한 자기 아이를 화장실에 넣어 살해했다. 베이비박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살해되고 있는 영아들이 있다는 사실은 베이비박스가 살해의 위기에 노출된 영아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의 충분한 반론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5월 10일에 주사랑공동체의 자원봉사자 A씨가 생후 8일 된 베이비박스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4개월간 자원봉사를 해 온 A씨는 아기방에서 심야 근무를 하던 중, 같이 일하던 봉사자가 우는 아기를 데리고 방을 나간 틈에 아기를 거꾸로 쥐고 흔드는 등 학대했다. 이종락 목사는 “좋은 일 하러 오신 분이라 믿었는데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며 “자원봉사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며, 자원봉사에 의지해 시설을 꾸려갈 수밖에 없는 시설의 입장에서는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베이비박스가 생기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유기된 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원인을 모두 입양특례법 시행이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입양이 까다로워지고 출생신고 의무화가 강화된 점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미혼부, 미혼모들이 아이를 양육하고 입양을 보내는데 전보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미혼모, 미혼부들은 성폭행, 미성년자, 혼외임신 등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의 정책대로라면 생모와 그들의 아기 둘 다 보호받지 못한다. 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제도적 차원에서, 임신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익명 출산’ 제도가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익명 출산 제도는 20세기에 들어와 프랑스에서 베이비박스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시작되었으며, 출산 전후에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생모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남기도록 권유하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생모의 판단에 따르며 강요하지 않는다. 생모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남기면 봉투에 밀봉하여 국가기관이나 자녀를 출산한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만약 나중에 자녀가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생모의 동의를 받아 자녀에게 공개한다. ‘익명 출산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정부를 믿고 아이 양육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과 아이를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다는 점은 아이와 생모가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에

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혼모/미혼부도 하나의 소중한 가족의 형태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혼모와 미혼부는 각각 2만 345명, 6307명으로 2만 6000명이 넘는다. 이들은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편견에 시달리며 차별받고 있다.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여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며(ex. 고딩엄빠-예술이, 긍정적인 반응 다수), 2022년 12월 14일 마포구에서 실시한 미혼모/미혼부 인식개선교육과 미혼모/미혼부 음악 토크쇼(미혼모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독백과 노래로 전하는 음악 토크쇼 형식으로 구성)가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미혼모/미혼부들이 편견과 부정적 시선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어린 친구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교육 강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미혼모/미혼부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역할 분담

팀1: 일본 호적법 제25조 2항, 유럽의 응급의료 진료 권리, 스페인의 건강 관련법, 영국의 의료서비스 무료 이용, 프랑스의 국가 의료 지원의 법적 사례 탐색함.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출생통보제도'와 관련된 해외 제도, 미국 연방 민권법 해석 등의 자료 조사 진행함.

팀2: 미등록 이주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국제규범 - UN 아동 권리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이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에 대해 탐구함.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미등록 아동의 사례 등 조사함.

팀3: 사망한 미출생 신고 아동들을 위한 추모 벽, 미혼부의 출생신고 MBC 영상을 통해 시민 인식 및 관심 정도 파악함. 유튜브 광고를 통한 인식 증가법에 대해 논의함.

2. 카드뉴스 제작 : 4/4/4 3팀으로 나누어 진행, 제작한 카드뉴스를 각 팀 대표가 발표 진행

3. 카드뉴스 피드백(사진 참고-코디와 아이들 모두 피드백에 참여함)

+ 코디네이터가 직접 제작한 PPT를 활용하여 미등록 아동에 관한 이슈들을 추가적으로 소개

- 1) 미등록 아동에 대한 기사 소개 : 인천에서 대상 아동 3명 가운데 1명이 유기된 정황이 발견(2023.06.28.), 무엇이든 물어보살 출연했던 출생 미등록 아동 조*나 끝내 사망

NEWS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 기사"

출생신고 없이 12년, '미등록 아기' 2천명 전수조사 착수

인천에서 대상 아동 3명 가운데 1명이 유기된 정황이 발견
2023.06.28

무엇이든 물어보살 출연 출생 미등록 아동이었던 배우지망생 조*나 사망

2) 보호출산제 정책 소개 : 출생통보제와 내년 7월부터 시행,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 정책 시행 제안 이슈

- 보호출산제란?: 혼외자 출생 등으로 인해 출생 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과 익명 인도를 지원하는 제도 (cf. 비밀 출산제 or 익명 출산제)

ISSUE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 시행

이기일 차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 동시에 시행돼야"

보호출산제는 원기임신부가 일정수준의 심검을 거쳐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법안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명아씨'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명아가 실제 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면서 입법이 힘을 받았다.

UN 아동권리 협약 제 7조

유엔아동권리협약

1) 제 7조 : '아동은 태어난 즉시 등록되고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태어난 날, 태어난 장소가 기록되어야 한다'

아동이 이름과 국적 그리고 법적 신분을 갖는 것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아동은 예방접종 및 각종 의료혜택, 보육서비스, 공적 교육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아동매매, 불법적 입양, 심지어는 아동살해 등의 아동의 인권침해의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및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후 실제로 온라인 출생신고제를 시행중이며 이용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온라인 출생신고제

108 2023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4) 미등록 아동 관련 카드뉴스 예시 소개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난 학기에 팀 과제로 제작했던 카드뉴스



5) 11월(최종발표회) 일정 안내

11월 최종 발표회

일시 : 11.25(토) 10:00 - 14:0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오신기자실

한국프레스센터

카드뉴스 제작

카드뉴스 발표

카드뉴스 피드백

카드뉴스 업로드

발표연습

PPT 제작

발표연습

최종 발표회

결과보고서 작성

#9월

카드뉴스 작성(만들기) - 10/04까지

카드뉴스 FEEDBACK - 10/04

9월(2차) 활동일지 작성 - 9/24

최종 발표회 역할 분담

#10월

카드뉴스 발표 - 10/04 ZOOM

카드뉴스 업로드

최종 PPT 완성 - 10/29 까지

10월(3차) 활동일지 작성 - 10/29 까지

#11월

최종발표회 연습 - 11월 초 예상

최종 발표회

11월(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6) 퀴즈

- ① '아동은 태어난 즉시 등록되고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태어난 날, 장소가 기록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어떤 협약, 몇 조에 명시되어있는가?
- ②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유기 방지를 위해 출생통보제와 OO출산을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OO에 들어갈 말은?
- ③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이름은?
- ④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3년 5월 말에 퍼센트는 얼마였을까?

7) 최종발표회 역할 분담 (발표자, 발표자료 제작자 등)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활동 결과 및 아동의 제안 : 활동 이후 아동들이 우리나라에서의 미등록 아동 관련 법률 안 구성과 관련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낌. 이를 반영하여 모의국회 법률안을 아동들이 직접 조성해보고(step 5 사진 참고), 모의국회에서 실제로 발의하는 과정까지 진행함.

법률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염려되었던 점 : 법률 조성의 의무화 여부 → 코디네이터에게 조언 요청

(법률 조성 의무화 반대)에 관한 아동의 말 인용 : 의무화라는 건 벌칙으로 지키지 않았을 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인데, 미등록 아동 같은 경우가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음. 만약 법이 의무화가 된다면 재정적인 짐이 될 가능성과, 사람들에게 인권보장 의식 증진보다는 하나의 짐이 될 것 같다고 하였음)

*코디가 피드백을 제공해준 내용 (아래 참조)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시 고려해야할 점 - 부모 불법 체류 문제

〈의무화될 경우〉

- ✓ 아동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더 생각할 필요 있음(의무화가 될 경우 불법 체류 부모님 추방될 가능성 생각해야함 - 미국의 경우)
- ✓ 부모가 추방되었을 때 혼자자 된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예시 - 미국의 푸드스탬프
- ✓ 주의해야 할 점: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본래 취지와 달리 미등록 체류자인 보호자 단속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의무화되지 않을 경우〉

- ✓ 아동 인권 문제(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함)
- ✓ 특정 사유로(불법 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부모 자신이 미등록인 경우) 불법 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때 체류 후 원래 본인의 국가로 돌아가는 확률적 비율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

만약, 법이 제정되려면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인권 보장 요소가 더 들어갈 필요가 있어보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가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해 추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미국의 사례)

(결론)

주제가 아동인권 보장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의무화를 하는 것이 맞음,
 하지만 불법 체류 문제로 홀로 남겨질 아이들의 권리를 보다 보장 받을 수 있는 법률 조성이 필요함, 법률 조성이 조금 더 구체화 될 필요성이 있어보임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LENS 소감〉

활동 소감과 관련하여 아이들에게 구글폼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지 구성은 총 3문항으로 진행하였으며, 렌즈 단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서술형으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Q1. 이번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박소현 : 출생미등록 아동이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우다인 : 출생 미등록 아동의 현황과 개선해야 할 부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해결방안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명은 : 아동인권에 대해 다양하게 다룰 수 있어서 좋았다

김수아 : 평소 아동인권에 대해 관심은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출생 미등록 아동들의 인권실태를 알게되었다

정서윤 : 우리나라에 출생 미등록 아동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았고 여러 안타까운 사례들도 알게됨.

김민주 : 미등록 아동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주요하게 배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무교육,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생명권 침해로 이어지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의료서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도 미등록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미혼모, 미혼부, 미등록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일종의 마케팅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법률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추모벽, 기자회견 등 사람들이 인권 침해 현실을 인지하고,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아동들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현주 : 아동인권에 관한 사례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배웠다

최재원 :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아동 인권 문제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배정윤 :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해 알아보면서 관련 사례들을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출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유나 : 인권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특히 법과 연결해서 해외 사례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을 조사하여 법과 인권의 상호작용에 대해 배운 것 같다

한현서 : 출생미등록아동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해외 우수 사례나 현행법 등을 탐구했습니다.

최서영 : 대한민국 미등록 아동 현황, 법과 제도, 다른 나라의 복지

Q2. 이번 활동 후 느낀 점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구체적으로)

박소현 : 출생미등록아동에 대해서 카드뉴스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을 했는데 출생미등록아동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이 상황에 대해 알고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느꼈다

우다인 : 이번 활동 시간 외 다른 활동에서도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해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 뭔가 새로운 지식을 알고 이를 더 심화 학습한 기분이 들었다.

이명은 : 이번 활동을 하면서 의외로 아동 인권과 관련하여 움직임이 적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김수아 : 아동인권에 관심이 많고 진로도 연관이 되어서 의미가 있었고, 아동인권에 대해 공부를 하니깐 뿌듯하고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서윤 : 우리나라 출생 미등록 아동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그런 아동들을 위해 대한민국 시민들이 더 노력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민주 : 현재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이 존재하는 걸로 아는데, 이 법률안 검토에 우선권을 부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국내적 문제들이 요즈음 많이 존재하지만,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마는 사람들의 인권도 먼저 고려하는 사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이현지 : 이 활동을 하며 인권에서 관심있는 분야가 더 넓어졌고 아동인권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잘 없는데 이번에 활동을 하게 되어 너무 좋았다

최재원 : 아동 인권 문제, 특히 주제였던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에 대해 자세히, 깊게 여기지 못했었는데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보며 빨리 제도가 고쳐지고 피해를 겪는 상황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배정윤 : 어떻게 하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유튜브 광고에 게시한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해보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유나 : 1번에서 말했듯이 법과 인권을 연결한 활동을 하였는데, 활동 전에는 출생미등록 아동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카드뉴스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을 심화탐구하여 활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현서 :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서영 : 미등록 아동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서 의미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Q3. 담당 선생님(선이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박소현 : 프로젝트 진행할 때 자유롭게 의견 낼 수 있도록 도움 많이 주시고 피드백도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다인 : 발표 피드백도 해주시고 저희 시간도 많이 고려해 주시는 등 친절하게 활동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명은 :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수아 :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도 잘해주시고 도움되는 말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서윤 : 잘 가이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주 : 선생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실제로는 한 번 밖에 못 뵈었지만 정말 정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저것 여쭙본 것도 많고 바쁘실텐데 저희 일정에 항상 맞춰주시기만 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해요 선생님도 인권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 정말 맛있는 분이 되실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대학생 때는 다 놀고 아무것도 안한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대학생이신데도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등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벌써부터 반짝반짝 빛이 나십니다!!! 학교 선생님을 하셔도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선생님 꼭 다음에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ㅎㅎ 그때는 같이 인권 운동하러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현지 : 아동인권활동 중에 항상 저희와 친해지시려고 노력하셔서 처음에 어색했던것도 금방 풀렸습니다!감사합니다:)

최재원 : 이번 경험을 통해 더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으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배정윤 : 감사합니다

이유나 : 수업 너무 재밌어요!

한현서 : 수업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코디네이터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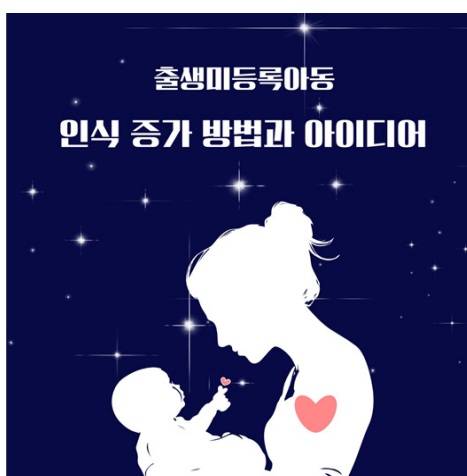
- 전반적인 활동 소감-

아동들과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미등록 아동’이라는 주제로 열심히 달려왔다. 나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아동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자”였다. 무엇보다 이 활동에서 나는 ‘아동 인권’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아동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다수의 어른들은 ‘결과 지향적’인 성향이 크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조금 더 수준 높은

주제를 요구하려 하고, 가벼운 의견들은 무시해버리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그 결과 아동들은 어른들의 물음에 계속 정해진 답을 찾으려 하고, 아동의 의견이 아닌 어른이 바라는 답을 찾게 되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었다. 그래서 나는 아동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아동들이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평가하는 식의 발화는 절대 하지 않고, ‘모두’의 의견을 다 들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아이들의 의견을 잘 존중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자기 성찰을 많이 하곤 했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였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항상 이런 방법으로 해볼까?,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면 이 내용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어도 좋겠다! 등 나도 모르게 항상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진심이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되었는지 계속 성찰하고, 또 돌아보았던 것 같다. 마지막에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아이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었다. 이 글을 읽고 나는 많이 울컥하기도 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나의 노력들이 아동들에게 실제로 전달이 되고 그로 인해 아동들과 내가 정말 소중한 인연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활동 중에서도 아이들이 나를 편하게 생각해주고 존중해주는 느낌을 많이 받아 항상 고마운 마음이 컸는데 활동 평가를 읽으면서 그 고마운 마음이 더욱 커졌고, 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마주할 모든 아이들에게 의미있는 선생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다.

- 주제와 관련하여 -

‘미등록 아동’ 문제가 단순히 아동의 문제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불법 체류 문제와 미혼모/미혼부 문제, 부모가 미등록 아동일 경우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어 개선점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동들이 활동을 하면서 방향을 하나 둘씩 잡아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마지막에는 미등록 아동과 관련한 법률안을 조성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대중들에게 알리는 등 다양하고 의미있는 활동들을 했다는 점이 코디로서 매우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칭찬해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정말 많이 이 아이들을 코디로서 사랑했고, 고마웠던 이 마음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나의 힘이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전달해주고 싶다.



YouTube <아이디어>

유튜브 광고 게시

- 출생 미등록 아동의 실태와 해결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짧은 영상을 제작한다.
- YouTube Ads에 광고 문의를 통해 유튜브 영상 시작 전, 관련 광고를 띄게 한다.
- 시청자들이 사이트 방문 링크를 누르면 우리가 제작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출생미등록 아동이 무엇인가요?



★ 인큐베이터 속 이름 모를 아동



2017년 12월, 서울의 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단 바이러스로 인해 아이들이 모두 부모에 의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까지 남은 이름 없는 아이가 있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었던 아이는 3년동안 병실에 누워 홀로 지냈다. 찾아오는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도 없이 2020년 병원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출생 통보제 '두 번 버림받은 아이들', 왜 그동안 출생신고조차 못했나?>

★ 숨진 40대 여성 옆의 아이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40대 여성 옆에 4세의 아이가 발견되었다. 이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친모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아이는 자신의 부모도 모른 채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숨진 여성 옆 구조된 4세 출생기록 없는 '미등록 아동'>

출생미등록아동?

출생 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상에 존재하지만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서류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아 의무교육이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출생미등록아동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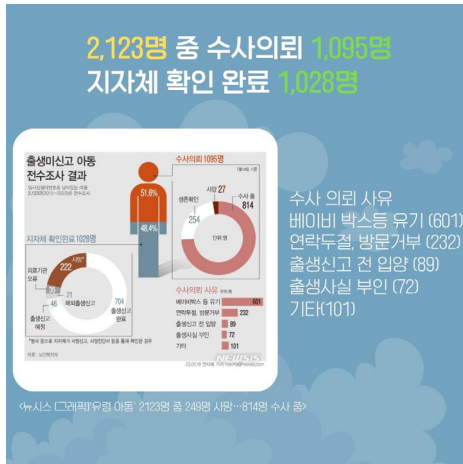
- 1) 출산기록이 남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 2) 부모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는 국내법상 출생을 등록하는 가족관계등록에서 배제됨
→ 난민,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생등록이 어려운 현실임

출생미등록아동 발생실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를 활용한 전수 조사 착수
확인된 아동 **2,236명** (올해 4월 기준), 출생신고 이뤄진 아동 제외 **2,123명** 조사대상



<감원도민일보, 복지부 '유령아동' 2123명 전수조사 착수... 내달 7일 완료 예정>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국제규범

UN아동권리협약

제3 조 제1 항
공공인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7 조 제1 항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
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 조 제1 항
모든 어린이는 출생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미등록 아동 제도, 다른 나라들은?



미국 연방 민권법 (Civil Rights Act)

미국 연방 인권법 제6편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국적, 성, 종교, 장애, 나이, 정치적 신념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호·공통교육법

모든 미국에 있는 아동이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국적이나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들은
이민자인 미등록 이주민이든
동등하게 교육을 받으며,
저소득층일 경우 학교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원을 받는다.

영국의 아동 정책



일본의 호적법
제 25조 22항



미등록 아동이 영국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의료서비스 **무료** 이용 가능

잉글랜드, 웨일즈의 경우, 병원에서 출생하면 병원이스텝을 통해 의료보장번호가 발급되어 통계청에서 통합관리함.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일본은 제한적 외국인 출생등록제도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도 자녀 출생등록을 허용한
국민으로는 인정하지 않아도 호적법 상의 출생신고는 할 수 있음
=호적에 기재되지는 않지만 주민기본대장에는 등록됨

->외국인도 호적법상의 각종 신고를 할 수 있음



국가
의료
지원

BUT
대한민국
건강권 싹태



미등록 이주 아동은 체류자격의 불안정성, 정보부재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치료비 부담 등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와 보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많음

판정수업
 1. 10월 20일(수)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실혼 관계

하민 아버지

하민 어머니

법률상 혼인관계

권 남민

하민이



#살아있었다
- 미혼부의 출생신고 -

PD수첩
특집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특별법안

(김민주(의원), 우다인(의원), 김수아, 이명은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10.15.

발 의 자 : 김민주(의원), 우다인(의원),
김수아, 이명은

제안이유

2023년 4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의 수는 2,123명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 대한민국 내의 이주 아동 건강권이 공문화되지 못하고 실효적인 법과 제도, 정책이 부재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부 또는 모의 영향으로 귀화가 가능한 자(子)의 요건을 밝히고 있으나,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자(子)에 관한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사람들을 아동으로 정하여 이들이 생존권과 정체성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아동이 최선의 방식으로 살고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 정체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특별법안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특별법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 아동에게 기본적 권리, 인권이 보장된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출생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2. “외국인 아동”이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동이다.
3. “출생등록”이란 외국인 아동이 의료, 복지 등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19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미등록 아동”이란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국적을 가진 국가에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아동이다.

제2장 외국인 미등록 아동 출생등록의 대상

제3조(출생등록의 대상) 외국인 아동 중 출생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자 대신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국가가 지정한 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모의 폭행·학대·기타 위법 행위로 아동과 부모가 격리되어있는 경우
2. 부모의 위법 행위·비자 만료로 아동의 부모가 합법적 체류자격을 상실하여 결별한 경우
3. 부모가 의사 능력 혹은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4. 기타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출생등록신청서) ① 출생등록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 대상 아동의 성명·출생연월일·성별·출생 장소
2.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국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작성)
3. 출생신고 대리인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자격(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작성)

② 출생등록신청서에는 부모가 아동이 친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2.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기억해(서울 1 LENS)

LENS	최준용, 최지호, 신은수, 이아인, 양서준
코디 네이터	오채린

활동주제	
공동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주제	노키즈존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 선정 이유

모니터링 단위 중 한 명은 어릴적 원하는 공연이 있었지만, 나이 제한 때문에 예매부터 하지 못했던 기억으로 이를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예매를 막는 것이 아닌 아동이 다른 사람의 공연 관람을 방해했을 경우, 그때 아동의 공연 관람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여겼다. 특정 아동을 제한하는 노키즈존도 아동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이기 때문에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싶었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러한 경험담에 다른 단위들도 동의하며 노키즈존으로 주제를 선정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 1항에서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점을 알리고 노키즈존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선정했다.

2. 계획세우기

8월

노키즈존 관련한 추가적인 의견 개진(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단위들과 만나 노키즈존 비율이 많은 곳에 찾아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능할 경우 실태조사 실행

9월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노키즈존 관련 설문조사(10~40대)를 통해 노키즈존 찬반 조사 및 이유 파악 이를 바탕으로 단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집하여 방안 제시

10월

노키즈존 관련 아동 인권 침해 사례 제시 후 관련 카드뉴스나 포스터 제작

11월

최종 발표회 준비

3. 조사대상 및 방법

대상: 단원들 학교 친구 및 10~40대 지인들

방법: (1) 노키즈존 관련 자료조사 진행

(2) 구글 폼을 활용한 노키즈존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진행

(3) 자료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바탕으로 카드뉴스 제작

(4) 자료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바탕으로 제안서 작성

주제 도출 경과

요즘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로 대두되는 노키즈존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단원들이 본인 혹은 지인이 겪은 노키즈존 출입 거부 사례를 공유했다. 주제 선정 과정에서 카페, 식당 등 공공장소 노키즈존에 대한 평소 단원들의 생각과 바람을 토의하였고 노키즈존이 생긴 원인과 증가하는 노키즈존의 해결방안을 탐구했다. 주제 노키즈존과 관련하여 단원들이 원하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황조사 방법(설문조사 후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홍보, 건의활동)을 선정했다.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노키즈존' 주제 현황조사 방법 및 현황조사에 따른 개선방안 논의

- 10~40대 대상으로 '노키즈존'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계획 수립
- '노키즈존'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카드뉴스 제작 계획 수립
- 카드뉴스, ppt 제작 후 sns 홍보활동 계획,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안서 작성 계획 수립

2. '노키즈존'의 정의, 차별 근거, 원인, 사례 자료조사

- 자료조사를 통해 아동들이 '노키즈존'의 정확한 개념 및 '노키즈존' 찬반 논쟁 등을 파악하였고 각자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노키즈존' 개선방안을 정리

- (1) 정의: 노키즈존은 사회적으로 어린이를 제한하고 어른들만을 위한 공간을 지칭한다. 이는 어린이가 주로 출입하는 장소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안전 문제, 공간 혼잡 등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노키즈존은 어른들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관심사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이는 어른들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고 공공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어린이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 차별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3) 원인: 경기연구원은 노키즈존의 확산 원인을 아이의 소란스러운 행동과 부모의 방관, 그리고 업장 내 안전사고의 책임을 업주에게 일부 지우는 법원 판결이라고 지목한다. SBS는 소위 ‘국물녀 사건’이 대두했을 때가 노키즈존 업장이 하나둘 소개되던 때와 비슷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아시아경제신문은 소위 ‘스타벅스 오줌컵’ 사건 이후 노키즈존 매장이 급격히 확산되었다고 주장했다.
- (4) 사례: 노키즈존 식당에서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식당에서 13살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제주시 한 식당 사업주의 행위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이용 대상에서 13살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3. ‘노키즈존’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 논의

- 카드뉴스 제작에 참고할 ‘노키즈존’ 인식 및 현황, 개인적인 의견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 (1) 노키즈존 운영 찬반(허용할 수 있다 VS 허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 (2) 공공장소에서 어린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 (식당, 카페, 지하철 혹은 버스, 극장, 쇼핑센터)
- (3) 노키즈존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4) 노키즈존 장소를 가 본 경험이 있는가
- (5) 노키즈존을 알고 있는가
- (6) 노키즈존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7) 노키즈존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노키즈존이 확산되면 아동 양육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 (8) 노키즈존은 어린이 안전사고 및 이용자에 대한 배려 VS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차별

4. 2, 3차 활동 계획 수립

- ‘노키즈존’ 추가 자료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정리 후 카드뉴스 제작, 제안서 작성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노키즈존' 2, 3차 구체적 활동 계획 및 역할 분담 논의

- 카드뉴스 제작 및 sns 홍보활동, 아동권리보장원에 노키즈존 의견 제안서 업로드 (카드뉴스 담당 2명, 제안서 작성 담당 3명. 제작 완료 후 서로 피드백 후 수정)

2.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정리

- 설문조사 결과, 노키즈존 찬성 입장 60.4%, 반대 입장 39.6%
- 설문조사 결과, 공공장소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 77.4%, 없다 22.6%
- 사람들이 노키즈존을 찬성한 이유로 33.3%는 노키즈존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66.7%는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로 나타남. 많은 사람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보다 다른 손님의 행복추구권을 중요하게 생각

3.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

- 노키즈존 의미, 노키즈존 차별 근거,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ex: 공공장소에서 어린이들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노키즈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노키즈존은 아동&보호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등), 대안책 등을 포함하여 카드뉴스 제작
-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서울1권역 SNS 계정 개설 후 카드뉴스 홍보

4.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을 위한 소통과 참여 플랫폼'에 노키즈존 관련 단원 의견 및 제안서 작성 후 업로드

- 노키즈존 (의미, 차별 근거 등) 자료조사 및 노키즈존에 관한 사람들 인식 설문조사 결과, 노키즈존에 대한 단원들의 생각 및 대안책 중점으로 작성
- 아동권리보장원 '소통과 참여' 플랫폼에 제안서 업로드

5. 노키즈존 대안책 논의

- 단원 한 명씩 노키즈존 대안책 제시 후 다수결 투표로 2개의 노키즈존 대안책 마련
- (1) 아동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 마련(ex: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
- (2) 층을 구분한 키즈존 (1층은 키즈존) 단, 층을 구분하는 조건은 뜨거운 음식 판매 업장, 계단 있는 업장, 인테리어로 인해 충돌 위험이 있는 업장 가능. 층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아동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기에 안전사고 예방 목적의 업장만 층 구분 가능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1. 설문조사 결과 제시

- (1) 노키즈존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의미를 잘 알고 있다 91.9%, 처음 들어본 말이 다 3.2%, 들어본 적은 있으나 의미는 잘 모른다 4.8%)
- (2) 노키즈존과 관련해 다음중 어느 입장에 가까우신가요? (노키즈존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에 대한 배려 54.8%,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 45.2%)
- (3) 찬성하신다면 다음중 구체적으로 어느 입장에 가까우신가요?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 63.9%, 노키즈존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36.1%)
- (4) 노키즈존 업장에 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 56.5%, 없다 43.5%)
- (5) 공공장소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 75.8%, 없다 24.2%)
- (6) 노키즈존이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의한다 40.3%, 동의하지 않는다 59.7%)

2. 노키즈존 자료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단원들이 고안한 노키즈존 대안책을 포함하여 카드뉴스 제작 후 sns 홍보(seoul1monitoringgroup), 아동권리보장원에 노키즈존 건의 및 제안서 작성

3. 아동들이 고안한 노키즈존 대안책

- (1) 아동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 마련(ex: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 (2) 층을 구분한 키즈존 (1층은 키즈존) 단, 층을 구분하는 조건은 뜨거운 음식 판매 업장, 계단 있는 업장, 인테리어로 인해 충돌 위험이 있는 업장 가능. 층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아동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기에 안전사고 예방 목적의 업장만 층 구분 가능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이아인: 자료조사를 하면서 아동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몹시 많았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앞으로도 아동인권에 관심을 참여해서 우리 사회에 아동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일, 차별받게 되는 일을 없게 해서 우리 사회를 아동들이 살기 편하고 더욱더 발전된 곳으로 만들어 가고싶다. 또한, 아동뿐만이 아닌 노인들의 권리, 어른들의 권리도 더 보장해주고 싶다.

최준용: 모니터링 결과로는 아직도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생각이 대다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조사하고 우리의 해결 방안을 아동인권단체에 올려 노키즈존에 대해 반대했다. 노키즈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긍정적이라는게 아쉬웠다. 또한 아동 인권 활동기간이 짧다는 것도 아쉬웠지만 우리의 인권을 위해 내가 기여할수 있다는 점은 기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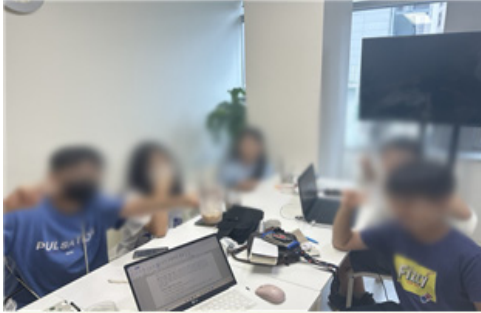
신은수: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인권에 관한 관심이 더 생기고, 아동인권에 관한 활동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에도 이런 활동을 해보고 싶다.

양서준: 몰랐던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노키즈존에 대해 알아가면서 의견을 나눠가는 것이 흥미로웠다.

최지호: 노키즈존에 대해 알아보는 것과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재밌었다.

코디네이터: 노키즈존을 주제로 단원들과 활동하면서 코디네이터인 본인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다.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노키즈존과 같은 아동 차별 현장을 목격하거나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들을 경우, 차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느끼고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는 본인의 모습을 보며 이전에 비해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도와 민감성이 향상했다는 것을 느꼈다. 권역 주제인 노키즈존에 대한 자료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대다수의 사람이 노키즈존을 반대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생각 외로 많은 사람이 노키즈존을 찬성한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특히 노키즈존을 찬성한 이유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보다 고객의 행복추구권의 투표수가 많은 결과를 보고 아동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느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지속해서 증가하는 노키즈존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본다. 노키즈존 출입 거부 경험을 겪은 아동은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저출산 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노키즈존의 대안책이 마련되고 아동을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 아동 인권을 보호한다면 아동 개개인 및 가족, 사회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3번의 활동을 단원들과 진행하면서 단원들이 잘 따라와 주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어 어려움 없이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고마움을 느꼈다.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코디네이터를 처음 해봤기에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단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로 거듭나고 싶다.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노키즈존, 어떤 입장 이신가요?

찬성

60.4%
노키즈존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에
대한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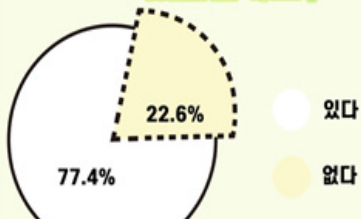
반대

39.6%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



설문조사 결과 60.4%는 찬성, 39.6%는
반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 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설문조사 결과 영유아나 어린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은 77.4%,
불편을 겪고 있는 적이 없는 사람은
22.6%로 집계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동인권모니터링단 less 단원들입니다. 저희는 요즘 점점 많아지는 노키즈존 카페 음식점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 생활불편에 노키즈존의 심각성을 알리며 노키즈존을 제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노키즈존이란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음식점, 카페, 다방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노키즈존 카페와 음식점이 많아지면서도 불구하고 아직 노키즈존의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 관심이 약한 젊은 이용들도 많고요. 그러나 노키즈존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줄어들고 보살핌이 모두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키즈존은 아이들의 발달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서 비롯하여 차별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 1항에서도 '아동은 호칭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예술활동의 자유를 지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나오는데, 그러므로 노키즈존은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한 결과 53명 중 60.4%가 노키즈존을 찬성했고, 39.6%가 반대했습니다. 찬성 의견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는 다른 손님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77.4%가 공공장소에서 아동에 의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노키즈존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다른 손님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키즈존이 아니라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조차 줄 수 있는 대안책을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대안책은 이용자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이 그림 그리기, 책 읽기, 블록 놀이 등 놀이 행동을 할 수 있는 방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 이용자들이 놀 수 있는 방 같은 공간을 만들면 이용자들이 그곳에서 놀 수 있기에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대안책은 승을 구분한 키즈존 만들기입니다. 단 트거온 음식이나 어린이한테 위험한 인형이 들어있는 가게들은 승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승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아동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기에 안전사고 예방 목적의 입장권 승 구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노키즈존이 아동인권 차별이라는 것과 노키즈존 대안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노키즈존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권을 무시했기에 엄청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징징컴퍼니(서울 2-1 LENS)

LENS	심예나, 장지예, 조아라, 김주하, 이재균, 유재준, 김민홍, 서혜인, 김연수
코디 네이터	양지우

활동주제	
공동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주제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선정 이유

어른들이 핸드폰 어플 사용을 제한하고, 친구와의 연락을 제재하거나 GPS를 추적해 사생활을 감시하는 게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아동들이 의견을 표현해도 어른들이 잘 들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서 권역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2. 계획세우기

8월

- 아동들이 직접 사생활 침해 사례를 조사해오기로 했다.

9월

- 8월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터(신문)을 만들기로 했다.

10월

- 8~9월 활동을 바탕으로 사생활 침해 예방 가정통신문을 만들기로 했다.

3. 조사대상 및 방법

대상: LENS 학생들의 급우, 기사 사례

방법: 직접 인터뷰를 해 급우들의 사생활 침해 사례를 조사하거나 인터넷 기사나 뉴스 영상을 찾는다.

주제 도출 경과

아동들의 참여권 보장을 사생활 침해로 세분화해 아동들과 사생활 침해 사례 조사, 포스터 만들기, 가정통신문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진행하며 아동들의 주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아동들도 참여권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각자 아동의 사생활 침해 사례를 직접 인터뷰 및 조사해오기로 했다. 1차 활동 때는 각자 준비해온 자료를 발표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2차 활동으로 계획된 신문 만들기에 들어갈 내용을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들이 각자 주변 친구들의 사생활 침해 사례/부모님의 핸드폰 감시 경험/인터넷 및 영상 기사 자료 등을 공유하며 각자 느낀 점과 개선 방안을 얘기해 보았다.

대체적으로 아동들이 자기 의견을 어른들에게 직접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 시간에 만들 신문에는 아동의 사생활 침해의 장/단점과 아동 사생활 침해 현황의 심각성, 이에 관한 부작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지난 1차 활동을 토대로, 아동들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는 포스터를 제작했다. 4명의 조원은 패밀리링크(스마트폰 감시 어플) 관련 포스터를, 5명의 조원은 홈cctv관련 포스터를 제작했다. 제작한 포스터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교문 앞, 뒤에 부착했다. 다음 활동을 위한 회의에서는 예정대로 가정통신문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고,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서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교장실 앞 게시판에 부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이전에 조사했던 사생활 침해 내용을 바탕으로 하드보드지에 아동 인권 가정통신문을 만들었다. 하드보드지의 내용 중 서론에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시했고, 본론에는 사생활 침해 사례 인터뷰 내용을, 결론 부분에는 우리가 바라는 사생활 침해 개선 방안을 넣어 가정통신문을 완성했다. 완성된 결과물은 아동들이 직접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후, 교장실 앞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가정통신문을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 더 쉬운 다른 활동으로 대체할까 생각했지만 아동들이 능동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고 하여 계획대로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의욕적으로 직접 교장실에 찾아가 허락을 받고 오고싶다는 아동들이 있어 매우 자율적으로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아동들은 활동을 하며 아동인권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다른 아동들의 의견도 알아볼 수 있어 좋았다. 3차 활동까지 끝나서 아쉽지만 아동들의 사생활 침해에 관해 알릴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코디네이터는 아동들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알아가는 모습이 감명깊었다. 활동 하나하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기특했고 조원들이 이번 모니터링 활동 때처럼 앞으로도 주체적인 삶을 살길 바란다.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불사조(서울 2-2 LENS)

LENS	배서윤, 김의준, 신민서, 이서현, 현서울, 이유진, 강승후, 이연석 오연우
코디 네이터	김채민

활동주제	
공통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주제	학교에서 아동들의 참여권 보장 방안 -학교 내부 건의함 설치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선정 이유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보호권, 생존권, 발달권과 같은 다른 아동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기에 참여권은 아동의 4대 권리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래초등학교에는 건의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건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건의함을 설치하고 활성화하면, 아동들의 참여권도 보장할 수 있고 학교도 더 좋은 방향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2. 계획세우기

- 8월 : 건의함 관련 설문조사지 작성, 인터넷으로 다른 학교의 건의함 사례 조사, 급식실 선생님 대상으로 급식실 건의함 관련 인터뷰 진행
- 9월 : 문래초등학교 전학년 대상으로 건의함 관련 설문조사 진행, 설문조사 결과 정리,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의함 개선방안 도출, 건의함 개선방안 제안서 작성. 아동 참여권 보장 캠페인 준비 → 나만의 포스터 만들기, 팸플릿 만들기

10월 : 학교에 건의함 개선방안 제안서 제출, 아동 참여권 보장 캠페인 준비 → 나만의 포스터 만들기, 팸플렛 만들기, 제안서가 받아들여질 경우 건의함 홍보 진행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문래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한 학년당 한 반씩 조사 예정
- 방법: 설문지 배포 후 수거

주제 도출 경과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이 그동안 학교생활을 하며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을 이야기했다. 그동안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자, 학교에 건의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코디네이터와 함께 건의함이 왜 필요한지 참여권의 관점에서 알아본 후, 건의함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설문지 작성

건의함 설치 관련 문래초등학교 아동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함. 줌 회의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 문항의 종류/순서/선지 구성과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할 사진을 결정함.

2. 설문조사 일정 정리

미리 각 학년 담임선생님께 설문조사 허락을 맡음. 각 학년에서 설문조사할 반을 선정하고, 각반을 맡을 렌즈 단원을 결정함. 코디네이터가 설문지 프린트 후 아동들에게 전달하면 아동들이 반에 전달하기로 결정. 아침조회시간에 설문지 배부하고 하교할 때 수거하기로 결정.

3. 자료조사

인터넷을 통해 다른 학교의 건의함 우수 사례를 조사함.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설문조사 완료

문래초등학교 1~6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건의함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각 문항별로 어떤 선지가 우세한지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분석.

3. 제안서 작성

교장선생님께 제출할 건의함 설치 제안서를 작성함.

4. 건의함 참여 독려 포스터 그리기 활동

문래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건의함이 왜 필요하고, 건의함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건의함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는 포스터 3장을 그림.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문래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신뢰성을 높인 건의함 설치 제안서를 교장 선생님께 성공적으로 전달.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 받음. 이후 건의함이 설치되면, 건의함 설치를 독려하는 캠페인 진행 예정.

아동들이 의견을 내어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참여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참여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도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김채민 : 아동모니터링 활동은 아동들의 적극성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보며 놀람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코디네이터인 제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활동을 시작한 후 아동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멋진 아이디어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아동의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열심히 참여해준 아동들에게 고마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급식실 건의함에 대한 조사

() 학년 () 반

1. 급식실 건의함의 존재를 알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요(4번으로 이동) ③ 기타 :

2. 급식실 건의함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기타 :

3. 급식실 건의함에 의견 건의를 해본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기타 :

3-1. 실제로 건의함에 건의해서 의견 반영이 된적이 있나요? 있다면 본인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3-2. 급식실 건의함을 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어떤 점이 불편했나요?

4. 의견을 건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못했던 경험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기타 :

4. 건의함을 통해 의견을 내는 방법에 만족하시나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기타 :

5. 건의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기타 :

6. 건의함이 더 눈에 잘 보이면 건의하기가 쉬워질 것 같나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기타 :

7. 더 선호하는 건의함 방식을 골라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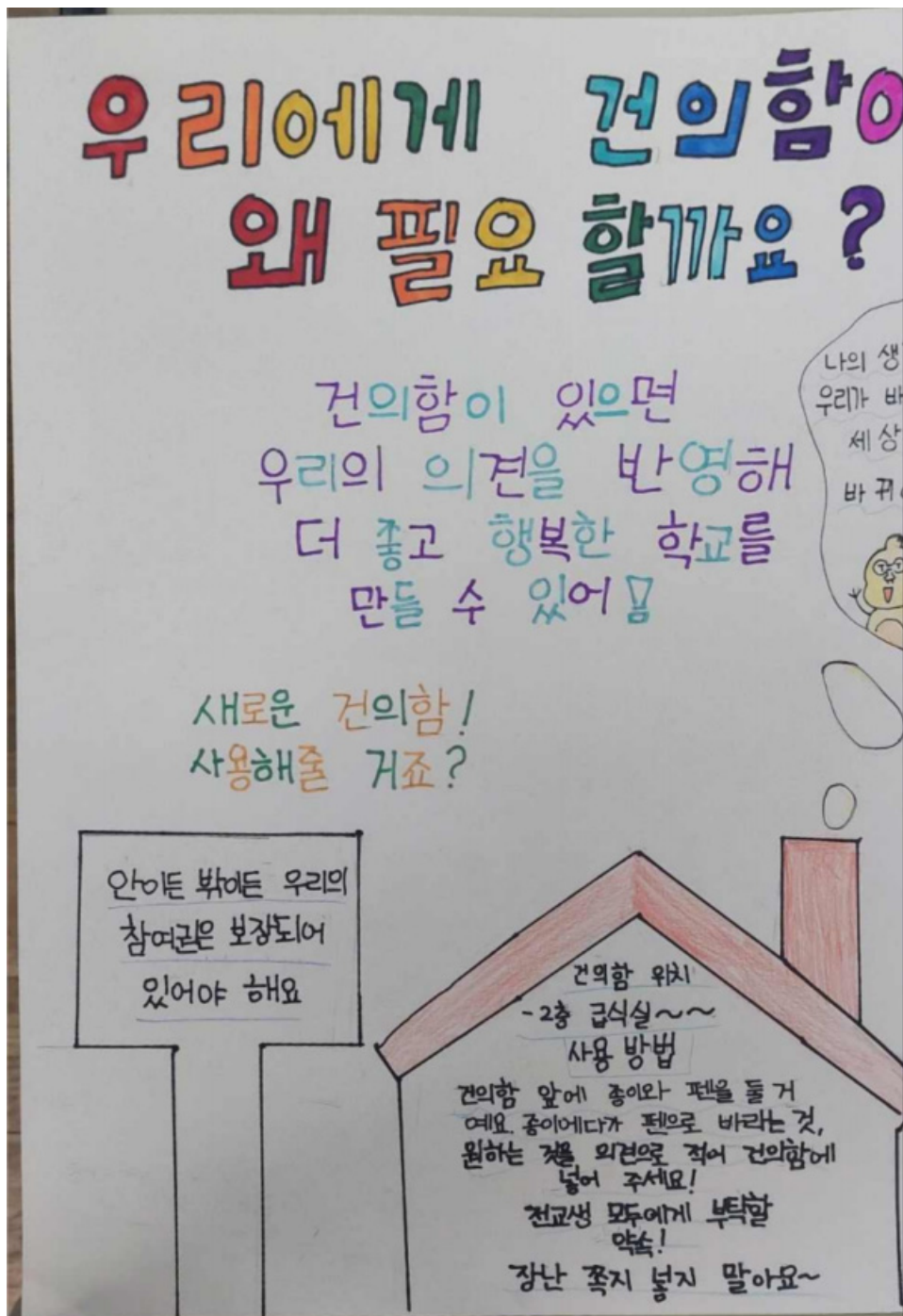
① 건의내용을 쪽지에 써서 통 안에 넣기

② 게시판에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건의내용과 답변을 볼 수 있게 하기

9. 선생님께서 건의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알리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① 건의함 앞에 반영내용 붙이기 ②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10.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건의함 쓰자!

을

5-5 2조
오면우, 이판석, 권사원

건의함이 뭐죠?

건의함은 급식실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 (8~13세)
들이 학교폭력에 의견을 내서 알맞은 조건이
될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의함이다. 급식실
왼쪽 사면함 오른쪽에 있으며 교실에서
의견을 써 제출하면 된다.

쓰이지 않는 건의함

건의함은 예전부터 설치되어 있었지만
쓰이지 않고 있다. 그 근처에 잃어버린 물병들
만 있다. 조수(설문조사)에는 건의함을 쓰지 않는
학생이 87%였다.

새로운 건의함
건의함이 더 잘 보이도록 18%의 의견을
반영해 건의함의 크기를 눈에 잘 띄울
수 있도록 크기를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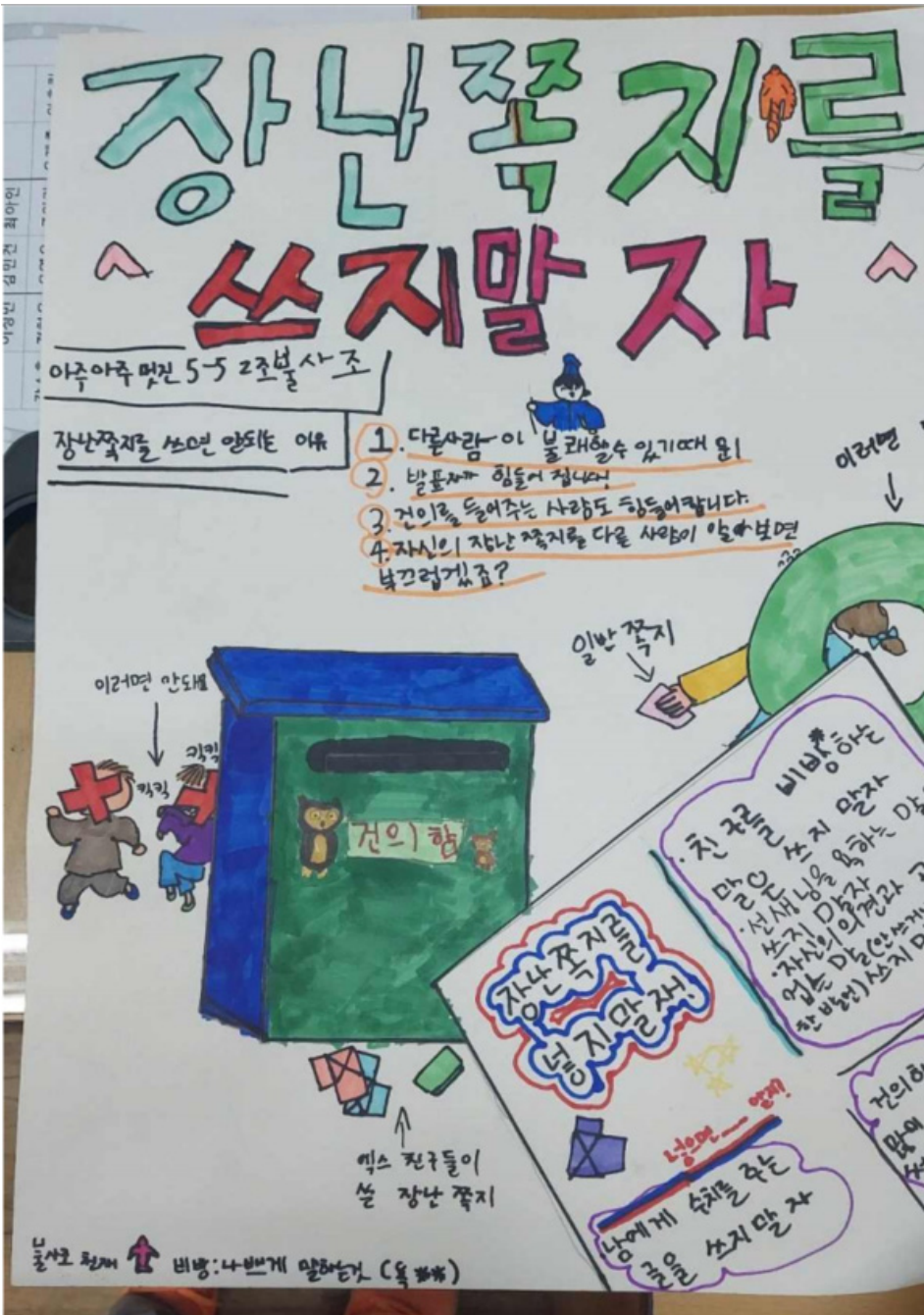
현서를 그림



현재 건의함의 모습. 물병에 가려
있다.

새로운 건의함!





포에버드림(서울 2-3 LENS)

LENS	정하윤, 최주희, 이효린, 최아인, 임주원, 이민성, 김민건, 이재원, 이정민
코디 네이터	심은주

활동주제	
공동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주제	(가정내에서) 진로, 휴식에 관한 결정에 아동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가?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선정 이유

아동과 관련하여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부모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을 물어보고 결정하면 좋겠다. 그 중 진로나 학업 계획, 휴식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아이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2. 계획세우기

	활동 기간	활동 내용
1차	07.14 ~ 08.27	1. 주제 선정을 위한 토의 2. 활동 계획과 역할 분담 - 설문 문항 작성, 관련 기사 조사, 관련 법규 조사 3. 설문 문항 작성과 관련 자료 조사하고 보고서 쓰기
2차	08.28 ~ 09.24	1. 설문조사 실시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결방안 모색
3차	09.25 ~ 10.29	1. 해결방안 실천 계획 세우기 2. 행동하기 : 계획한 내용 실천하기

3. 조사대상 및 방법

대상: 교내 4.5.6학년 아동과 LENS 아동이 학원에서 만나는 타 학교 5학년 아동

방법: 설문조사 (설문지를 통한 답변)

주제 도출 경과

아동인권강의를 들은 후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관한 아동 인권 문제 중 관심있는 것을 탐색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중 평소 자기의 의견이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오래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아동의 참여권과 관련해 모니터링 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자신의 일상과 관련해 생각하다보니 지역사회보다는 학교, 학교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아동 의견 반영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학원 선택이나 학교 행사, 집안일 등에 대한 의사 결정과정 중 부모님의 의견과 아동의 의견이 다를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아동의 의견은 얼마나 존중받고 결정에 반영되는지 특히 진로와 휴식에 관련한 부분에서 알아보고 싶어 '가정내에서' 진로, 휴식에 관한 결정에 아동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가?'를 모니터링 주제로 정하였다.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날짜

회의 날짜 및 시간	장소	회의 내용 요약
7월 13일 (목) 09:00 ~ 10:30	학교 (문래초5-5)	- 활동 주제 논의
7월 18일 (화) 10:50 ~ 12:20	학교 (문래초5-5)	- 활동 주제 선정 - 활동 방법 논의 및 활동계획 세우기

2. 모니터링 활동 내용

1) 권역별 주제 논의

- 생존, 보호, 참여, 발달에 관한 아동 인권 문제 중 참여에 관한 내용으로 논의 범위 선정
- 학원 선택, 학교 행사, 집안일에 대한 의사 결정,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과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서 선택시 아동의 의견 반영에 대한 토의
- 모니터링 주제 선택 : 진로나 휴식에 대한 아동 의견 반영 조사하기

2) 활동 방법 정하기

- 같은 학년 친구들에게 설문하기 (학교 친구들과 학원 내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도 설문하기)
- 법 관련 사이트에서 아동 참여에 관한 내용 조사하기 : 생활 법령 사이트 활용해 조사하기
- 사례 조사 :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사례 찾아보기, 신문 기사, 아이들이 작성한 내용 등

3) 팀 이름 정하기

- 나의 꿈과 진로에 대한 생각을 담아 '포에버드림'으로 정함

4) 역할 분담

- 설문 문항 만들기 : 재0, 주0
- 관련 법 찾아보기 : 하0, 민0, 주0
- 사례 조사 하기 : 아0, 효0, 민0

5) 방학기간 동안 각자 맡은 역할 수행 후 내용 공유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날짜

- 회의 날짜 : 9월 8일 (금) 13:00 ~ 14:30
- 장소 : 학교

2. 모니터링 활동 내용

1) 설문지 제작

- 주0와 재0이 만들어 온 문항 중 휴식, 진로와 관계없는 내용 삭제
- 문항 내용 수정 및 추가하여 정리
- 9월 11일까지 설문지 내용 한글 파일로 만들기 (담당: 재0)

2) 설문 실시

- 4.5.6학년 각 학년 2개 학급(총 151명)에 설문 실시
- 4학년 2반 : 주0 / 4학년 7반 : 효0, 아0
5학년 2반 : 하0 / 5학년 7반 : 주0
6학년 2반 : 민0, 민0 / 6학년 7반 : 재0
- 설문 실시 후 반별로 취합하여 단체 대화 방에서 결과 공유

3) 설문 결과에 대한 홍보 방안 토의

- 홍보방안으로 3개의 안(포스터 부착(교실, 계단 등), 등교하는 길에서 홍보, 전단지 배부)가 제시되었고 투표결과 각각 5표, 1표, 1표(기권 2명)로 포스터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Step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날짜

회의 날짜 및 시간	장소	회의 내용 요약
9월 27일 (수) 20:00 ~ 21:00	집	- 설문결과 분석
10월 6일 (금) 13:00 ~ 14:30	학교 (문래초5-5)	- 홍보 내용 논의 - 포스터 제작

2. 모니터링 활동 내용

1) 설문 결과 분석하기

- 설문 결과 종합(주0)
- 설문 결과 분석

2) 해결방안 생각하기

- 의견 반영이 잘 되지 않는 이유 논의
- 의견 반영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

3) 모니터링 내용 및 결과 홍보하기

2조로 나누어 포스터 제작함

A조 : 인스타그램 컨셉. 모니터링 결과 중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포스트잇 게시 형식으로 알리고자 함.

B조 : 포켓몬스터 컨셉. 캐릭터들의 대화 형식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를 알림.

4) 포스터 게시

- 학예회 날 포스터 게시함.

Step5.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설문 결과 대체로 의견 반영이 잘 되고 있으나 진로와 휴식을 나누어 볼 때, 진로에 관해서는 아동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지만 휴식에 관한 아동의 의견은 잘 반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과 관련한 아동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이유로 부모님의 걱정과 비교, 시험에 대한 부담, 중학교 진학 시 교과목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 숙제량, 학원이 끝나는 시간 등이 제기되었다.

아동들이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는데 의견을 말할 시간이 없거나 부모의 태도(잔소리 등)로 아동들이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동들이 의견을 잘 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보호자의 노력(잔소리 줄이기), 가족회의나 부모님께 편지를 써보는 방법,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만드는 것, 용기를 낼 수 있는 말이나 영상을 제작해 아동들이 볼 수 있게 하기, 학업부담 낮추기(중학교와 초등학교 간 교과목 난이도 조절) 등이 제안되었다.

Step6.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활동을 하며 아동인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고 생각해보지 못한 청소년(아동)의 의견을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 휴식에 관해 의견 반영이 안된다는 것이 공감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동인권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 아동인권에 대해 더 생각해보고, 아동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아이들이 활동을 주도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고 아동들이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들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Step7.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1. 설문 문항

〈아동의 진로와 휴식에 대한 의견 반영 설문조사〉

※ 이 설문조사는 5학년 5반에서 아동 인권 당사자 모니터링을 위해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학년

번호	문항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장래 희망은 부모님의 권유로 선택된다.				
2	부모님은 나에게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의견을 반영한다.				
3	부모님은 내 장래 희망에 관한 활동을 지원해 주신다.				
4	나는 무엇을 할 때 부모님의 동의를 필요하다.				
5	부모님은 내가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을 다니게 해준다.				
6	나는 내 용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7	내 숙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다.				
8	나는 밤 늦게까지 학원에 있거나 숙제를 한다.				
9	나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다.				
10	공부하거나 노는 시간은 내가 정한다.				
11	부모님은 내가 계속 놀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12	나는 내가 쉬는 것에 만족한다.				
13	만족하지 못한다면 하루의 몇 시간 휴식을 원하는가?				

2. 설문 응답 결과

<아동의 진료와 휴식에 대한 의견 반영 설문조사>
※ 이 설문조사는 5학년 5반에서 아동 인권 당사자 모니터링을 위해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4-7 통계 21명 (4)학년

번호	문항	1 전혀 그렇 지 않다	2 그렇 지 않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1	나의 장래 희망은 부모님의 권유로 선택된다.	14	10	3	
2	부모님은 내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의견을 반영한다.	3	1	15	8
3	부모님은 내 장래 희망에 관한 활동을 지원해 주신다.	1	6	14	6
4	나는 무엇을 할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1	7	11	8
5	부모님은 내가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을 다니게 해준다.		5	12	10
6	나는 내 용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7	9	10	1
7	내 숙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다.	9	13	4	1
8	나는 밤 늦게까지 학원에 있거나 숙제를 한다.	6	6	9	6
9	나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다.	5	8	7	4
10	공부하거나 노는 시간은 내가 정한다.	5	13	7	2
11	부모님은 내가 계속 놀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8	13	4	2
12	나는 내가 하는 것에 만족한다.	1	5	10	10
13	만족하지 못한다면 하루의 몇 시간 휴식을 원하는가?	5, 4, 6, 3, 4, 1			

<아동의 진료와 휴식에 대한 의견 반영 설문조사>
※ 이 설문조사는 5학년 5반에서 아동 인권 당사자 모니터링을 위해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5-7 통계 24명 (5)학년

번호	문항	1 전혀 그렇 지 않다	2 그렇 지 않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1	나의 장래 희망은 부모님의 권유로 선택된다.	11	13		
2	부모님은 내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의견을 반영한다.	2	12	10	
3	부모님은 내 장래 희망에 관한 활동을 지원해 주신다.	2	15	4	
4	나는 무엇을 할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4	15	5	
5	부모님은 내가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을 다니게 해준다.	3	10	11	
6	나는 내 용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3	7	7	7
7	내 숙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다.	7	18	3	
8	나는 밤 늦게까지 학원에 있거나 숙제를 한다.	6	7	8	3
9	나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다.	12	6	6	
10	공부하거나 노는 시간은 내가 정한다.	9	9	6	
11	부모님은 내가 계속 놀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7	12	3	1
12	나는 내가 하는 것에 만족한다.	5	11	8	
13	만족하지 못한다면 하루의 몇 시간 휴식을 원하는가?				

<아동의 진료와 휴식에 대한 의견 반영 설문조사>
※ 이 설문조사는 5학년 5반에서 아동 인권 당사자 모니터링을 위해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6-7 통계 22명 (6)학년

번호	문항	1 전혀 그렇 지 않다	2 그렇 지 않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1	나의 장래 희망은 부모님의 권유로 선택된다.	11	7		
2	부모님은 내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의견을 반영한다.	1	1	7	10
3	부모님은 내 장래 희망에 관한 활동을 지원해 주신다.		3	14	5
4	나는 무엇을 할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4	13	3
5	부모님은 내가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을 다니게 해준다.		2	14	6
6	나는 내 용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1	2	11	9
7	내 숙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다.	7	11	4	
8	나는 밤 늦게까지 학원에 있거나 숙제를 한다.	3	7	8	4
9	나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다.	4	8	7	3
10	공부하거나 노는 시간은 내가 정한다.	5	12	4	
11	부모님은 내가 계속 놀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9	7		
12	나는 내가 하는 것에 만족한다.		3	11	8
13	만족하지 못한다면 하루의 몇 시간 휴식을 원하는가?				

6-7 통계 22명

<아동의 진료와 휴식에 대한 의견 반영 설문조사>
※ 이 설문조사는 5학년 5반에서 아동 인권 당사자 모니터링을 위해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6-2. 24명 6-2 (6)학년

번호	문항	1 전혀 그렇 지 않다	2 그렇 지 않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1	나의 장래 희망은 부모님의 권유로 선택된다.	11	11	2	0
2	부모님은 내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의견을 반영한다.	0	1	14	9
3	부모님은 내 장래 희망에 관한 활동을 지원해 주신다.	0	2	15	7
4	나는 무엇을 할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0	5	11	6
5	부모님은 내가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을 다니게 해준다.	0	6	10	8
6	나는 내 용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0	3	7	14
7	내 숙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다.	6	5	3	0
8	나는 밤 늦게까지 학원에 있거나 숙제를 한다.	6	10	7	4
9	나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다.	2	10	11	1
10	공부하거나 노는 시간은 내가 정한다.	2	10	11	1
11	부모님은 내가 계속 놀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11	10	2	1
12	나는 내가 하는 것에 만족한다.	0	2	18	4
13	만족하지 못한다면 하루의 몇 시간 휴식을 원하는가?				

<아동의 진로와 휴식에 대한 의견 반영 설문조사>
※ 이 설문조사는 5학년 5반에서 아동 인권 담당자 모니터링을 위해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4-2 동계 21명 ()학년

번호	문항	1 전혀 그렇 지 않다	2 그렇 지 않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1	나의 장래 희망은 부모님의 권유로 선택된다.	13	12	2	
2	부모님은 내 장래 희망을 내릴 때 나의 의견을 반영한다.		3	17	6
3	부모님은 내 장래 희망에 관한 활동을 지원해 주신다.		2	20	6
4	나는 무엇을 할 때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1	8	11	6
5	부모님은 내가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을 다니게 해준다.		6	14	6
6	나는 내 용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6	9	8
7	내 숙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많다.		1	9	4
8	나는 밤 늦게까지 학원에 있거나 숙제를 한다.		1	9	3
9	나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다.		14	12	
10	공부하거나 노는 시간은 내가 정한다.		6	11	8
11	부모님은 내가 계속 놀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14	9	2
12	나는 내가 쉬는 것에 만족한다.		6	7	13
13	만족하지 못한다면 학부의 몇 시간 휴식을 원하는가?				

칭찬... (Cartoon drawing of a cat and a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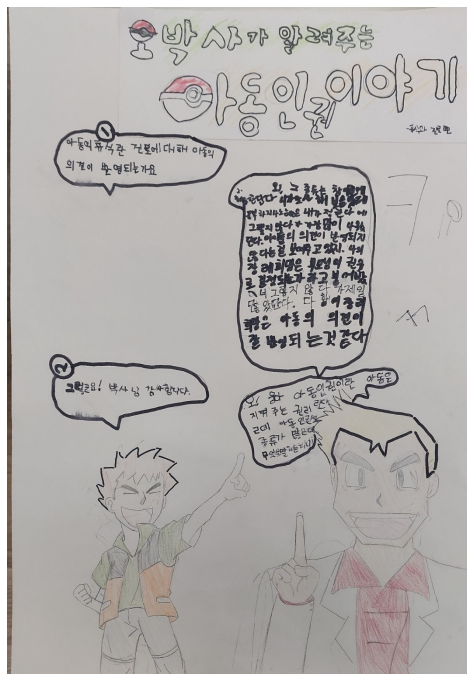
<아동의 진로와 휴식에 대한 의견 반영 설문조사>
※ 이 설문조사는 5학년 5반에서 아동 인권 담당자 모니터링을 위해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5-2반 동계제로 전체 21명 ()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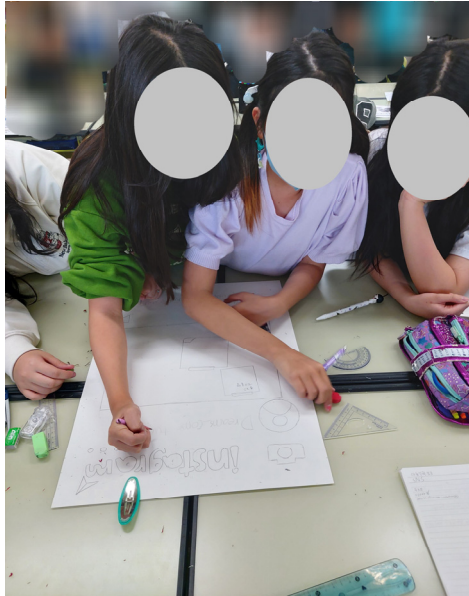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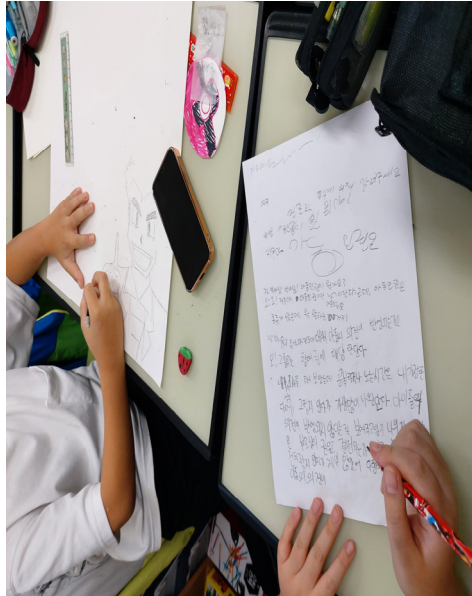
번호	문항	1 전혀 그렇 지 않다	2 그렇 지 않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1	나의 장래 희망은 부모님의 권유로 선택된다.	16	8	3	0
2	부모님은 내 장래 희망을 내릴 때 나의 의견을 반영한다.	0	2	16	9
3	부모님은 내 장래 희망에 관한 활동을 지원해 주신다.	0	5	14	9
4	나는 무엇을 할 때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0	5	15	6
5	부모님은 내가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을 다니게 해준다.	0	6	9	12
6	나는 내 용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2	8	9	12
7	내 숙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많다.	11	12	3	0
8	나는 밤 늦게까지 학원에 있거나 숙제를 한다.	11	7	10	0
9	나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다.	0	11	11	2
10	공부하거나 노는 시간은 내가 정한다.	2	11	11	11
11	부모님은 내가 계속 놀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11	11	0	0
12	나는 내가 쉬는 것에 만족한다.	0	2	11	11
13	만족하지 못한다면 학부의 몇 시간 휴식을 원하는가?				

23

3. 포스터



4. 활동 사진



은광(서울 3 LENS)

LENS	김보경, 박단비, 설전샘, 신수아, 이바울, 장윤서, 조은서, 최예성, 강로원, 송현아
코디 네이터	노에린

활동주제	
공통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주제	아동의 놀 권리 - 놀이시설 모니터링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선정 이유

놀이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 속, 놀이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 파악하고 직접 권역 내 놀이공간을 모니터링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모색하고자

2. 계획세우기

8월

주제 선정 및 세부 계획 설정

9월

1차 활동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10월

2차 활동 (결론 도출 및 카드뉴스 제작)

3. 조사대상 및 방법

대상: 아동들의 친구들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네이버 폼)

주제 도출 경과

놀이 공간 문제- 대도시의 아동은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놀이시설이 제한적이라고, 아동들이 직접 놀이공간을 이용했을 때 느끼는 불편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도 분명히 존재함 > 이를 개선하고자 '아동 놀이시설 모니터링'으로 주제 선정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놀이권과 주변 놀이시설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설문조사 시행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카드뉴스 제작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놀이권과 놀이시설 모니터링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하였고, 이 카드뉴스를 사용해 아동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놀이시설 이용 규칙을 제안하였음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아동들과 놀이권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주변 놀이 시설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할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카프리션(전남 1 LENS)

LENS	안유비, 손성호, 최현식
코디 네이터	박은주

활동주제	
공동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주제	참여기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아동 청소년들의 의견 반영률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선정 이유

참여기구 소속 아동, 청소년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제대로 반영되지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보기 위하여 주제로 선정함.

2. 계획세우기

8월

권역 주제 관련 자료수집 및 토의

- 권역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 만들기
- 이후 일정계획

9월

- 권역주제 설문 실행

- 온라인 모니터링

-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대상자 아동들의 소속기관에 건의 및 의견 제출

10월

- 개선점 탐구 , 해결방안 논의
- 활동 내용 사례 소개 웹포스터 /카드뉴스 제작
- 최종보고서 작성

3. 조사대상 및 방법

대상: 학교 친구들 렌즈 단원들

방법:

- 1) 네이버 폼을 활용한 설문조사 진행 및 의견 수집
- 2) 설문 결과 취합 후 소속기관 의견 제출
- 3) 카드뉴스 제작으로 활동 알리기

* 필요 시 대면 인터뷰 진행 예정

주제 도출 경과

참여기구 활동을 하는 아동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경험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아동이 참여기구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불합리함을 다른 아동들도 경험하였는지, 불합리함을 겪었다면 개선점은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기 위해 주제로 선정함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 권역 주제 관련 자료수집 및 토의
- 활동 시작 전 논문 등을 통해 각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 나눔
- 권역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 만들기
- 참여기구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문항 피드백 및 수정 .
- 문항 제작 이후 어떻게 설문을 배포 할 것인지 , 참여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함.
-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활동했었던 참여 기구를 한 개만 선택 해 주세요.
-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청소년 참여 활동을 경험한 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 청소년 참여 활동의 만족도는 얼마인가요?

청소년 참여 활동의 난이도는 본인 눈높이에 맞았습니까?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중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렇지않다고 느끼신 이유를 입력해주세요
 소속된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낸 의견이 수용되었습니까?
 소속된 참여기구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수용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 수용될 수 있도록 어떠한 활동을 하였나요?
 - 청소년 참여기구에게 바라는 점을 작성해주세요.
 - 보다 성장하는 청소년 참여기구가 되기 위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설문 참여자 보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2명에게 편의점상품권 (5천원) 지급 결정함.
 - 이후 일정 계획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설문조사 진행 (참여기구 소속 아동들의 의견 반영률)
 - 약 한 달 동안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설문을 진행함

설문조사 결과 확인 및 분석
 - 통계를 내서 설문 결과 확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대상자 아동들의 소속기관에 건의 및 의견 제출을 하려했으나 대체적으로 아동들의 의견 반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 다른 계획 불이행함.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설문의 응답자는 만 16~18세가 86.4%로 가장 높은비율을 보였다.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은 1~2년이 3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6개월~1년이 22.7%로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5년이상 참여기구 활동을 한 응답자도 있었다.

참여활동 만족도는 매우만족이 63% 만족이 31%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고 불만족과 매우불만족은 0%를 차지하였다.

참여활동의 난이도는 눈높이에 맞았냐는 질문에는 만족도와 같은 비율의 응답이 나타났다.
 청소년 참여기구활동 중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냐는 문항에는 매우그렇다가 63% 그렇다
 가 18% 로 아니다 4%의 응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에는 선생님의 압력, 예산문제 등의 의견을 내주었다.
 참여기구에서 낸 의견이 수용되었냐는 물음에는 95%가 수용/부분수용 되었다고 응답하
 였다.
 또한 청소년 참여기구에게 바라는 점을 묻는 문항에서는 예산지원/ 프로그램개선/ 홍보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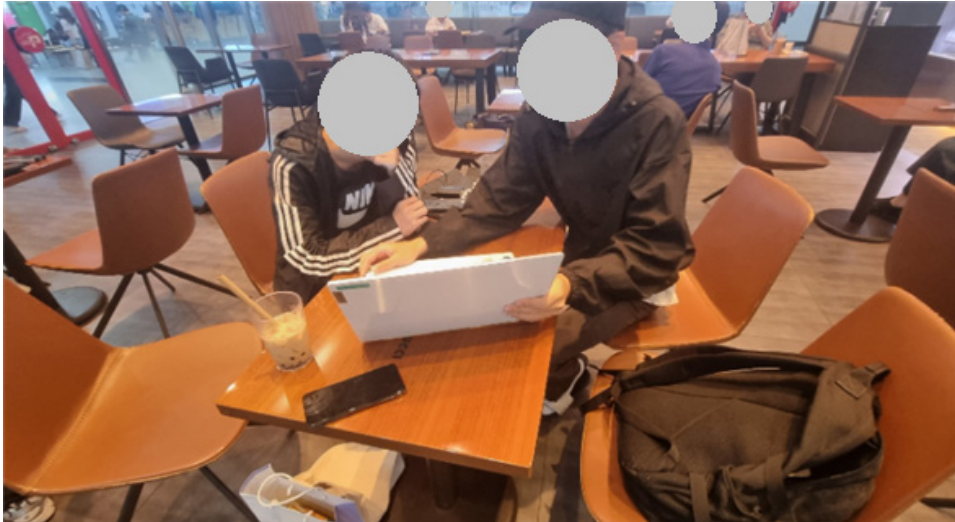
손성호(lens) : 처음 렌즈활동을 시작할 때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였고, 활동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그것을 극복 해 내면서
 나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있어 좋았고 마지막 활동보고회도 성공적
 으로 마쳐 활동을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최현식(lens): 사실 이번 활동에 처음부터 참여 하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참여 했는데도 굉장
 히 재미있었고, 특히 청소년 인권에 대해 탐구해보는 계기가 되어 굉장히
 좋았고, 즐거웠다. 이런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이 낮아지는 계기가 되었
 음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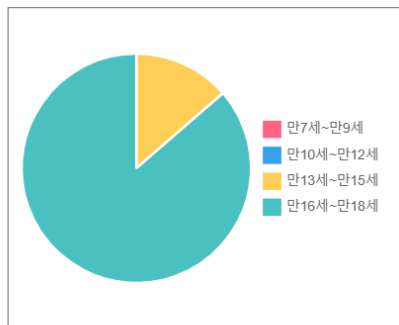
안유비(lens): 청소년들이 참여기구에서 낸 의견들이 잘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좋았
 고,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해 한층 더 알아갈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되어 좋았다.

박은주(코디):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배울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족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아동들을 존중하며 제대로 대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과 저 모두가 시간여유상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못해 아
 쉬움이 살짝 남아있습니다. 내년에도 활동을 하게된다면 이 부분은 보완을
 하여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1.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청소년 참여 기구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의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LENS'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참여기구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 기간 중 겪었던 경험과, 참여 의견 반영 비율 등을 조사하는 설문조사입니다.

LENS
전남 1권역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세렌디피티(전남 2 LENS)

LENS	유서연, 이아린, 임연아, 임은미, 정단비
코디 네이터	서지원

활동주제	
공동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주제	청소년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선정 이유

- n번방, 박사방 등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면서 나도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꼭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 행사를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을 몰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고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 잡히는 사례를 직접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계획세우기

8월 : 불법촬영, 무엇인가?

- 성 관련, 초상권 관련 불법촬영 사례 찾아보기
- 초상권 침해의 정의 알아보기
-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 인식 설문조사 진행

9월 : 현재 대한민국 내 불법촬영

-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 인식 설문조사 집계 후, 이야기 나누기
- 현 불법촬영(성 관련, 초상권 관련) 관련 법 찾아보고 한계점 파악하기

10월 :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내 불법촬영, 불법촬영 바로 알기

- 피해자와 가해자 연령 구분에 따른 현 불법촬영(성 관련, 초상권 관련) 관련 법 벌금, 형량 개정안 이야기 나눠보기
-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불법촬영 바로 알기&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 진행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만10세~만18세
- 방법: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주제 도출 경과

1. 주제 도출 과정

- 5월에 개최되었던 레드페스타 때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부스로 참여한 뒤,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낀 청소년들과 LENS 활동을 참여하게 되었음. 피해자들은 계속 나오는데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오는 뉴스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 불법촬영의 의미를 확장하여 이를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한 번 진행한 뒤라 발대식을 가면서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대학교, 고등학교에서의 피해 뉴스를 보고 불법촬영을 근절시키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에서 비롯되어 먼저 청소년들이 불법촬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청소년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음.

2. 문제점

- 코로나 이후 활성화된 원격수업을 통한 불법촬영(캡처)와 딥페이크 피해 사실도 적지 않았고 인스타그램만 들어가도 동의 없이 업로드된 인물 사진은 흔하게 볼 수 있었다.
- 동의 없는 촬영은 불법촬영이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 보통 성착취 동영상 촬영 및 유포만 불법촬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단원들과 함께 내가 생각하는 불법촬영은 무엇인지, 학교에서 허락없이 찍은 체육대회 사진이 졸업 앨범에 올라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이 사진은 불법촬영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지, 걸어가다가 버스킹 하고 있는 댄스팀 영상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고 했을 때 이걸 불법촬영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눴음. 이 결과 초상권 침해 사례 또한 불법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초상권과 성착취로 분야를 나눠 활동하기로 함.
- 각자 조사해온 초상권 침해 정의와 관련 사례 공유 및 성착취 불법촬영 사례를 공유하며 현재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누구인지 이야기를 나눴음.
- 우리가 불법촬영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는지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불법촬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만들기로 결정하여 설문조사의 질문을 각자 생각해 보고 그 질문들을 다같이 검토하며 실제 설문지에 쓰일 질문을 골랐음.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는 내 모습이 모자이크 없이 SNS에 올라갔을 때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인물의 사진을 사용할 때 사진 출처 기재 여부, 본인이 생각하는 불법촬영의 정의, 대한민국 현행법 상 처벌이 적절한지 등 초상권 관련 불법촬영, 성착취 관련 불법촬영으로 나눠 청소년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을 골랐고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의 초안을 만들고 서로 피드백을 나누며, 설문조사지를 만들었음.
- 완성한 설문조사지를 인쇄하여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날 제 6회 남구기념행사에서 직접 청소년들의 설문조사를 받았고 약 40명의 응답을 받았고 다같이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한 결과 의외라고 생각되었던 교육기관에서 불법촬영 관련 예방 교육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과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장소로 학교를 선택한 청소년들이 있다는 사실,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초상권 침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며, 현재 청소년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음.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청소년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과 실제 불법촬영 사례들을 엮어 올바른 불법촬영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함.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 활동 결과 -

설문조사 결과, 돈을 주고 캐리커처 작업을 맡긴 뒤 작가가 내 얼굴 그림을 SNS에 업로드했을 때 불법촬영 및 유포에 해당한다고 답한 사람이 66.7%로 나타났고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장소로 학교를 선택한 사람이 8.5%로 3번째로 높았다. 65.5%의 사람이 현재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낮다고 답했음.

이에 따라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성인인 경우로 나눠 개정안을 이야기했고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8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과 5년 이내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을 제안하며, 가해자가 성인이고 촬영을 동의하고 유포를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초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범은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9천만원 이상 5억 이하의 벌금을, 가해자가 성인이고 촬영을 동의하지 않고 유포도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초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9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범은 1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 20억 이하의 벌금을 제안함.

또한, 무엇보다 어떤 징역을 내리더라도 감형 없이 가야된다는 의견이며, 성착취가 아닌 초상권의 경우 명예훼손이 더해졌을 뿐 아니라 초상권 침해만 발생했을 때에도 처벌을 해야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의견을 모아 10월 21일 개최된 남구청소년어울림마당에서 전시물을 만들어 전시하며,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을 알렸고 아동, 청소년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모루를 이용한 걱정인형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음.

- 아동 제안 -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불법촬영 예방교육을 1년에 3~4번씩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영상시청 이외에도 전문가 초청 같은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불법촬영이 라고 해서 성착취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초상권침해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정부에서 공공화장실에 불법촬영 감지카드를 배치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수시로 관리하지만 사람들 불안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모든 곳에 감지카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몰래카메라가 있다면 신속하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몰래카메라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인 것 같다. 설치하더라도 발견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면 몰래카메라가 줄어들 것 같기 때문이다. 불법촬영, 초상권 침해에 관련된 법 조항을 더 강력하게 개정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불법촬영을 저지른 범죄자의 형량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75%나 되었다. 또 재범률이 높은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유서연 -

불법촬영이라고만 하면 성착취 영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초상권침해도 불법촬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원격수업 및 온라인 회의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얼굴을 캡처하거나 캡처된 사진을 본 경험이 있다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예라고 답해서 놀랐다. 초상권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이 점이 너무 아쉬웠다. 초상권에 대해서도 다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다. 불법촬영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또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불법 촬영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불법촬영의 피해범위 등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자주 교육함으로써 어린 아동들도 이 범죄의 무서움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 이번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학생의 신분으로는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조별활동도 대부분 또래들과 같이 하는데 이번에 중학생들과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내 생각이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자주 의견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이아린 -

이번 활동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려웠지만 단원들과 함께 하나하나 해결하며 나아가서 뿌듯했다. 또, 평소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점을 인식만 하고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활동을 하며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 법도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겪지 않아서 몰랐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시행되고 있다는 것과 같이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접해서 충격을 받기도 했다. 흔치 않은 경험해서 좋았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더욱 열심히 활동해보고 싶다.

- 임은미 -

처음 활동을 참여했을 때는 내가 주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활동을 계속 참여하면서 언니들과 열심히 자료조사도 하고 의견도 주고받으니 점점 주제를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고 남들에게도 주제를 알려줄 수 있다는 확신으로 활동을 마무리해서 뿌듯했다.

- 임연아 -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계속해보니 주제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고 렌즈 활동을 계속하면서 다양한 활동에 접하게 되어서 좋았다.

- 정단비 -

이번 활동을 통해서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렌즈 활동을 하면서 글을 쓰는 실력이나 새로 알게 되는 사실들이 많아져서 내가 전보다 더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 코디네이터 -

LENS는 처음으로 받게 된 담당 업무였다. 518문화제에서 함께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했던 청소년들과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발대식 전부터 불법촬영 근절이라는 주제를 정해놨었다. 첫 모임 날짜를 잡은 후, 청소년들에게 건넬 질문을 준비했다. 그냥 청소년들 간의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질문들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불법촬영은 원지, 졸업앨범에 동의 받지 않은 내 사진이 올라간 경우는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그런 질문들. 불법촬영은 성착취에만 국한되어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질문이었는데 청소년들의 답변을 듣고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

청소년들, 아동청소년당사자들이 불법촬영에는 초상권 침해 촬영도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 권역의 주제는 청소년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걱정했지만 언니들은 언니들 대로, 동생들은 동생들 대로 각양각색의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합쳐 설문조사를 만들고 발표를 준비하며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지 않았나 싶다. LENS가 아니었다면 두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모여 교류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멘토라는 이름 하에 LENS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오히려 내가 배운 자리가 아니었나 싶다.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아동 청소년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

LENS US(전북 LENS)

LENS	장서연, 김태우, 정수아, 이승민, 박주예 김민정, 정수빈, 이가인, 김선우, 한유민, 권명호, 오은재
코디 네이터	김지유

활동주제	
공통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주제	대한민국의 아동 보호 정책과 아동 권리 강화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의견 알아보기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선정 이유

대한민국의 아동보호 정책과 아동권리에 대해 아동들의 인식과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특히 소녀심판 드라마를 통해 소년법이 화제가 되었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권리를 악용하는 사례들을 보며 아동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주제로 선정했다.

2. 계획세우기

8월- OT 및 단원들 간 역할 분담, 권역별 주제 선정

9월-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문항 작성, QR 제작 및 지역 청소년 행사에 참여하여 설문조사 진행

10월-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의견 나누기 및 내용 정리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만 14세~ 18세 아동
- 방법: 모니터링 단원들 주변의 친구들 및 지역 청소년 행사에 참여하여 청소년 설문조사 실시

주제 도출 경과

1. 성별- 남/여
 2. 학년- 중1,2,3 /고1,2,3
 3. 대한민국의 아동보호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유무
 4. 아동 권리 중 본인이 살면서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권리 모두 체크
 5. 아동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유무에 대한 답변
 6.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어떤 권리가 가장 우선으로 강화되어야 하는지와 그 이유, 강화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관식으로 답변하기
 7. 아동 권리를 강화 시키기 위해 다음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체크하기
 - 1) 법적 장치 및 제도를 위한 촉구
 - 2)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 3) 학교 교육과정 내 아동 인권 교육 추가
 - 4) 기타
- 위와 같은 내용의 7가지 설문을 통해 아동들이 갖고 있는 아동 권리에 대한 현주소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 보완되었으면 하는 권리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활동함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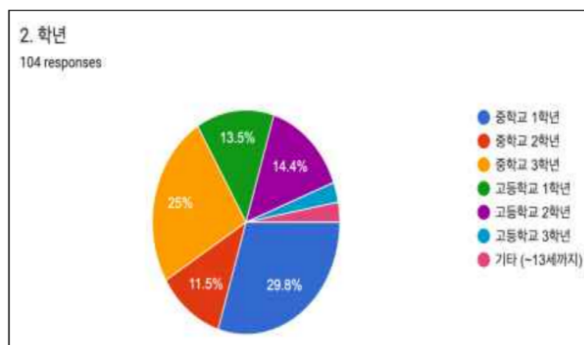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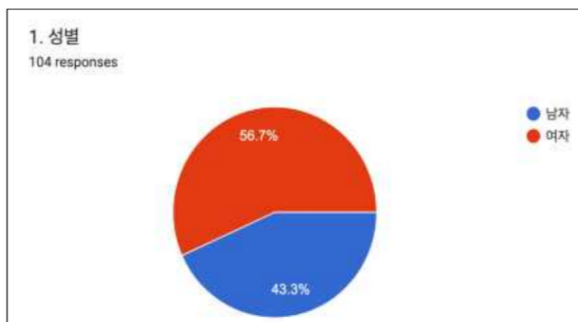
- OT 및 발대식을 진행하며 아동인권모니터링단 LENS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보고서 작성법, 카페 가입 등의 절차에 대해 설명함.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면서 자기소개를 했고, 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도 뽑아 역할 분담을 한 후 권역별 주제에 대해 정하는 시간을 가짐.
- 권역별 주제로는 아동 권리와 소년법 등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들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대한민국의 아동 보호 정책과 아동 권리 강화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의견에 대해 알아보자!’라는 권역 주제를 선정함.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 공통주제 설문과 함께 권역별 활동을 하기 위해 ZOOM을 통한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며 설문 조사 문항을 정해봄.
- 9세부터 19세까지의 대상을 정해 진행하고 싶었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만 14세~18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정책과 아동 권리에 대한 인지 및 아동권리의 강화 여부에 대한 생각, 강화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설문문항을 만들고 QR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의사를 들어보기로 함.
- 익산지역 내 청소년 행사에 참여하여 아동인권부스를 운영하며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아동 인권에 대해 알리고 QR설문의 참여를 유도했음. 11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주었고, 그 결과 아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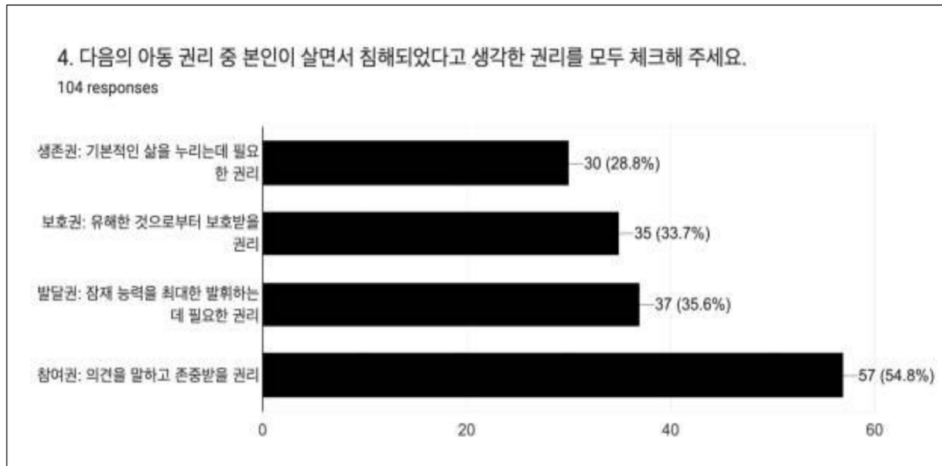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9월 9일에 설문문항을 만들고 10월 7일까지 주변 친구들과 익산지역 내 청소년 행사에 참여하여 참여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그 결과 110명의 아동이 참여해주었고, 남자43.3%, 여자56.7%로 남자보다는 여자의 비율이 더 많았음.



학년은 '중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2학년 > 고등학교 1학년 > 중학교 2학년'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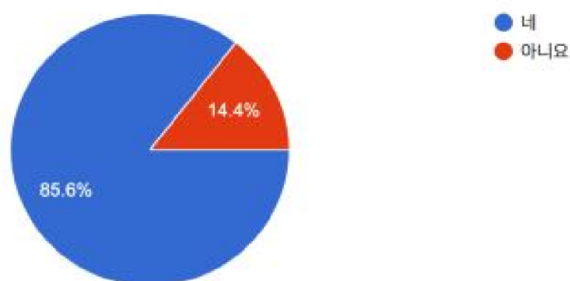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고있었다'고 답한 아동은 70.2%, '모른다'고 답한 아동은 29.8%로 많은 아동들이 아동 권리에 대해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이한 것은 아동권리 중 본인이 살면서 침해되었다고 생각한 권리는 참여권이 54.8%로 가장 높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권리는 생존권(32.6%) > 보호권(29.2%) > 참여권(25.8%) > 발달권(12.4%) 순이었음.

5. 아동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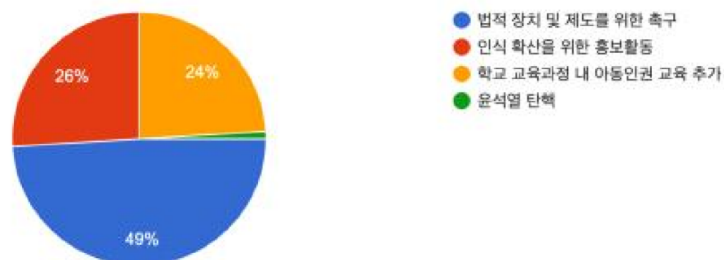
104 responses



또한 아동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가 85.6%, 아니요가 14.4%였는데, 아니라고 답한 아동들의 이유로는 ‘이미 충분하고 오히려 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와 ‘아동권리가 강화되면 그만큼 책임이 강해지는데 아동들의 책임의식은 변화가 없다’, 그리고 ‘아동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교권침해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어서 오히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아동들도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가 인상깊었음.

6. 아동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04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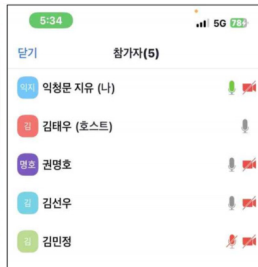
아동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법적 장치 및 제도를 위한 촉구(49%) >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26%) > 학교 교육과정 내 아동인권 교육 추가(24%) 부분 순으로 높았으며, 법정 장치로 아동 권리에 대한 보장을 시작으로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그리고 아동 당사자들이 많이 알고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 아동 인권 교육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답한 것을 알 수 있었음.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김태우: 처음에는 선배 추천으로 외부활동 한 본 해보자는 느낌으로 시작한 활동이었는데 다 같이 활동해 보면서 의견을 나누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이전에 못 해본 경험을 많이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 인권에 대해 다른 단원들과 이야기하며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한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한유민: 이 활동을 통해 아동의 인권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아동들이 생각하는 인권을 알아볼 수 있었고 생각보다 나도 다른 이들도 인권에 대해 많이 무관했다는걸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중간에 참여를 못 한 활동이 있기도 하고 조사를 잘 못 해와서 아쉬운 시간을 보냈던 것도 있었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도움을 줘서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김민정: 아동 인권 보호를 주장하기 위해 렌즈에 참여했는데 정작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아동보호 정책 조차 들어보지 않고 참여해 스스로 부끄러움이 컸다. 심지어 모임에서 만든 설문조사에 포함한 아동 인권 보호 정책에 대해 아는지 물어본 질문에서 거의 3/4가 안다고 답해 주도하는 나로써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회도 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대한민국의 4가지 기본권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앞으로 아동들의 권리를 주장할 때 어떻게 해야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 뿌듯했다. 모임들끼리 서로 바빠 만날 시간이 부족해 친해지지 못했다는 점과 활발히 직접 운동에 참여하며 주장하지 못했던 점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적어도 설문조사로나마 아동들에게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릴 수 있었던 것 같아 뜻 깊었다. 또한 아동들이 권리를 악용한다는 사례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 또한 있었고 많은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촉법소년과 같은 사례 때문에 아동 인권 권리 강화를 반대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다음에 참여할 기회가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임 친구들과 나누며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싶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나는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동시에 감사했고 기본 권리의 부족한 점은 고쳐나가며 아동들이 행복하게 성장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권명호: 처음 아동 인권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활동에 참여해보니 아동인권에 대해 배우고 설문 조사를 실기해보는 활동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아동인권의 인식과 부족한 점들을 알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이승민: 많이 참여하지 못 했지만 아동 인권에 대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흥미롭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았다. 이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아동 인권에 대해 조금이나 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거 같다.
- 장서연: 활동을 하며 개인사정으로 많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우면서도 다른 단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큰 것 같다. 그래도 이번 활동으로 나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며 채워 나가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렌즈를 시작할 때 활동 전보다 아동에 대해 더 알고 그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다짐했는데 거의는 아니더라도 목표에 많이 다가간 것 같아 기쁘다. 이제 활동결과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동안 노력한 만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지금까지 지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지유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 이가인: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중 사회불평 등 단원을 배우며 UN아동인권협약에 대해 관심을 보였는데,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렌즈 활동에 참여하며 대한민국의 아동 보호 정책과 아동 권리 강화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의견을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아동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사회·문화 과목에서 습득한 것과 같이 질문지법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할애되는 것이 적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문맹자가 참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아쉬운 부분도 존재했다. 렌즈 활동을 하며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아동의 권리를 배우며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혹은 인지하고 있지만 표현하기 어려웠던 침해 사례들을 주위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가정폭력에 처해 있던 친구에게 여러 가지 해결책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아픔을 겪었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방법과 자립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 김지유(코디네이터): 아동들의 인식과 법적 인지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아동학대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번 년도 아동인권모니터링단 LENS 활동은 아동들이 본인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권리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동 스스로가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한 권리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필수 충족 권리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고 답한 부분이(침해받은 권리는 참여권인데 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권리는 생존권이었던 부분) 특히나 인상 깊었으며, 아동들이 많은 아동들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가길 바란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여졌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의 개편과 강화를 요구하며 결국 사회적으로 뒷받침해주기를 촉구하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아동들의 민주시민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뿌듯한 활동이었다.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아동인권관련
설문조사
1분 걸려요!!
참여해주세요>.<



NLCS(제주 1 LENS)

LENS	곽효민, 송태윤, 정예림, 정호승, 차수빈, 이한진, 유예준
코디 네이터	이하은

활동주제	
공동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주제	아동의 정치 참여율과 교육의 연관성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선정 이유

- 회의를 통해 권역 주제를 설정하면서, 아동들이 정치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LENS 활동을 통해 현재 아동들의 정치 교육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들이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보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 계획세우기

8월

아동들이 정치 자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구글폼을 활용해 설문조사할 계획입니다. lens 팀원들의 주변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할 계획이며, 주제가 정치이니만큼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은 배제하고 설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청소년들에게 아동, 청소년의 정치 참여율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1차 활동에 이어서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인포그래픽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동아리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주변 청소년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10월

이제까지 설문조사하고 알아본 내용들을 가지고 최종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주변 청소년들에게 정치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lens 팀원들의 또래 학생들(고등학생)
- 방법: 구글폼을 통한 설문조사, 인스타그램을 통한 홍보 등

주제 도출 경과

아동,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 공통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참여권과 연관되어 있는 주제를 떠올리다 보니 정치 쪽으로 주제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는 통념을 깨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의 정치 교육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활동을 진행하면서 점차 이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차 활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및 시민교육의 현황과 보충할 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치 교육이 시행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54.5%의 절반이 넘는 아동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치와 법'과 같은 선택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이상, 정치에 대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 등을 활용하여 아동들에게 정치를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팀원들이 제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청소년들에게 아동, 청소년의 정치 참여율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1차 활동에 이어서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치 및 시민 교육의 충분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치 교육의 종류 등에 대한 물음이 포함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약 51.9%)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문 응답자들 대부분이 정치와 관련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학교 시스템과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정치와 관련된 좀 더 실용적인 과목이 추가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 내에서의 정치교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학교 안 정치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카드 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카드뉴스의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부족한 정치교육 실태와 비교되는 해외의 정치교육 상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현재 학생들이 생각하는 정치 교육의 방향성을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추가로 이제까지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제작된 카드 뉴스와 인포그래픽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1,2차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3차 활동에서는 공교육에서의 정치 교육 확대의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유를 크게 <정보화된 시민 육성>, <시민들의 참여 유도>, <비평적 사고 촉진>, <관용과 이해의 발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 교육은 정보화된 시민 육성을 가능케 하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른 투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 교육이 활성화 된다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시민활동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며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정치적 지식을 기르는 교육은 비평적인 사고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정치적 대화에서 편견을 인식하고 걸러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술입니다. 더 나아가 정치교육을 통해 관용과 이해심의 발달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협력과 타협의 문화를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Lens (이한진): 저희가 관심있어하는 주제와 관련해 아동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고 해도, 이런 활동을 계획적으로 진행해봤다는 점이 의미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Lens (정예림) :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 아동들의 결정권과 참정권이 무시되는 상황이 예상보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의 참정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게 이해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민감하지만 학생들의 관심은 부족한 주제로 활동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팀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씩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주 보고서를 써나 가고, 눈으로 직접 활동들이 점점 완성되어 나가는것을 보니, Lens 활동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Lens (곽효민) : 아동의 정치 참여에 대해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수의 학생들이 비슷한 의견을 가졌는데도 아직까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의 인권과 관련해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Lens (송태윤) : 간단한 설문조사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주제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주제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등한시되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됐습니다.

Lens (정호승) : 아동의 정치 참여율과 교육의 연관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아동의 실제 정치 참여율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포그래픽과 카드뉴스를 만들고, 더 나아가 보고서까지 제작하며 아동의 정치 참여율의 실체에 대해 알릴 수 있었던 것이 매우 뿌듯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 인권 모니터링단의 일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강해진 것 같습니다.

Lens (차수빈) : 이번 활동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분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활동하게 된다면 기금 모금 활동같이 좀 더 다양한 종류의 활동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Lens (유예준) :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 인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투표를 하고 정치적 선택권이 주어지는 반면, 정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동, 청소년의 정치 교육 활성화에 우리 모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니네이터(이하은) : 이번 lens 활동을 통해 저는 아동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종종 '어린 아이들이니까 크면 알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대하곤 했었는데, 이 활동으로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얕고 편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도 어려서 제 의견을 표현하려고 했을 때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적이 있었던 것이 떠오르며 이런 제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진행하면서, 아동의 인권, 특히 참여권에 대한 중요성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팀원 모두가 활발하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각자 최선을 다해 임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보람도 느낄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위에서부터 차례로

1. 1차 활동의 자료조사 내용
2. 2차 활동의 인포그래픽 활동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
3. 1차 활동의 설문조사 내용
4. 2차 활동의 카드뉴스 제작 활동(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용



Youth Activists(제주 2 LENS)

LENS	강윤교, 기가현, 김해인, 김건이, 이하영, 이현서, 이유민, 박한주
코디 네이터	강민경

활동주제	
공동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주제	대한민국 장애아동의 교육권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선정 이유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사회에서 더욱 소외되는 집단은 장애아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또한 자신의 삶의 능동적인 주체로 역량을 펼쳐보일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기에,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장애아동의 삶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이들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장애아동 교육권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주제 선정 목적은 장애 아동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제의하는 것이었다.

2. 계획세우기

8월

- 설문조사 및 대상자 인터뷰를 통한 주제에 대한 조사 - 〈주제 관련 정보 조사: 장애 유형에 대한 기본 조사〉
- (신체 장애 아동) 교육복지제도 및 시설 ○ (지적 장애 아동) 교육복지제도 및 시설

- 설문조사 완성 및 배부
- 설문조사 결과 정리 및 분석

9월

- 전문인 소견 인터뷰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카드뉴스 제작
- 가능한 정책 구상

10월

- 정치인 면담 / 최종 제의
- 2차 창작물 제작
- 활동을 기반으로 한 아티클 작성 및 발표

3. 조사대상 및 방법

〈주제 관련 정보 조사: 장애 유형에 대한 기본 조사〉

- 1) 제도적 장치 (관련 법령)의 존재 여부, 효율성, 실태 조사 등
- 2) 서면 인터뷰 및 설문조사 (장애복지시설 종사자, 장애 아동, 시설 주변 거주 비장애 아동, 장애와 관련 없는 아동, 필요시 장애를 겪고 계신 노인 분들)
+ NLCS와 연고가 있는 복지시설 위주로 설문조사 발송 시 수월할 것으로 여겨짐.
- 3) 복지시설 현장 방문

주제 도출 경과

발대식 이후 진행되었던 온라인 미팅을 통해 주제 선정에 대한 토의가 재차 이루어졌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 끝에 2023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권역 주제가 결정됨. 아래에 정리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조항에 초점을 맞춰 주제 내에서 활동 목적을 구체화함.

제23조	장애아동은 존엄성 보장·자립 촉진·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 교육,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5조	아동이 보호 치료의 목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 정부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26조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7조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 장애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 지적 장애 아동
 - 신체 장애 아동
- 초점을 맞춘 문제점 도출
 - 선별적 기준 - 급여에 따라서 발생하는 차등 복지
 - 제한적 지원 서비스
 - 장애아동이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 과정 필요
- 설문조사의 큰 틀
 1. 기본 인적사항
 - a. 아동/성인
 - b. 장애 유무
 - c. 재학/거주 지역
 - d. 연령
 2. 교육 제도
 - a. 전반적 교육과정 (추상적 개념)
 - i. 개별화된 학습 계획이 있는가?
 - ii. 만족도
 - b. 교육 시설 (물리적)
 - i. 보조 기술 및 보조 도구
 - ii. 특수교육시설의 분포도/접근성/만족도
 - c. 평등권
 - i. 비장애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3. 복지 제도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 a. 인식 실태 조사 (본인이 알고 있는 복지 제도)
 - b. 위 표기한 제도 중, 본인이나 타인이 실제로 이득을 본 사례가 있는지
 - c. 있다면 간단히 설명 (주관식)
 - d. 본인이 생각하는 복지 제도들의 문제점이나 제한점 (주관식)
 4. 주관식
 - a. 자신의 바람이 비춰질 수 있는 문항 (바라는 개선점 등)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 설문조사 완성 및 인스타그램을 통한 비장애 아동 및 성인에게 설문조사 배포
- 전국 70여개의 중고등학교와 제주장애아동 복지센터의 부모에게 설문조사 배포
- 카드뉴스 2부 제작 후 인스타그램에 게재

1.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실태
2. 장애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관한 만화

설문조사 답변

사실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이 교실 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지만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을 위해서 일반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 라는 옵션도 있고 또 같은 교실에서 비장애아동들과 같이 교육을 한다고 해도 선생님들이 다른 교재를 사용하거나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따로 교육을 할지언정 차별적 요소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차별 요소가 너무 많고 장애아에게 관대한 부분들이 심히 많다

장애 아동의 교육권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할 순 없지만 모든 아동이 똑같은 교육 기회를 얻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정신지체 같은 경우에는 또래들과 같은 수업을 듣기 힘들어서 특수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때 학교에 장애인 친구들이 많았고 그 아이들을 위한 특수반 수업도 있어서 친구들은 그 수업을 들으러 갔고 수업을 마치면 다시 반으로 돌아와 같이 종례시간을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비장애인 친구들도 그 몸과 정신이 불편한 친구를 꺼리는게 아니라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같이 놀았던 기억이 있고 어렸을때의 기억 때문인지 그런 사람들을 볼때 편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린시절 잠깐이라도 아픈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기를수 있게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교가 아닌 경우 학교에서 거의 모든 학생이 비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장애아동이 느끼는 차별적 요소나 교육 기회의 부족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나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비장애아동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장애아동의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마땅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에서 장애아동의 비율보다는 비장애아동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정보나 이에 대한 관심은 적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장애아동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전문 지식과 편견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장애아동들을 위한 교육과는 큰 차별점이 있을 것이다.

장애아동을 비장애아동 또는 다른 장애아동들과 분리시켜두기 때문에 비장애아동보다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알 방법도 없고 경험해보지 않아 설문 응답에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의 교육 과정과 장애인 교육 과정에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들과 관련된 인식이 부족하다.

사실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해 모르는 것부터 문제라고 생각된다 학교에서 장애교육 시간에 장애인의 대한 교육권을 다뤄주면 좋겠다

- 장애아동에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펀드레이징 행사 기획
- 국내 언론사인 틴매일경제에 기사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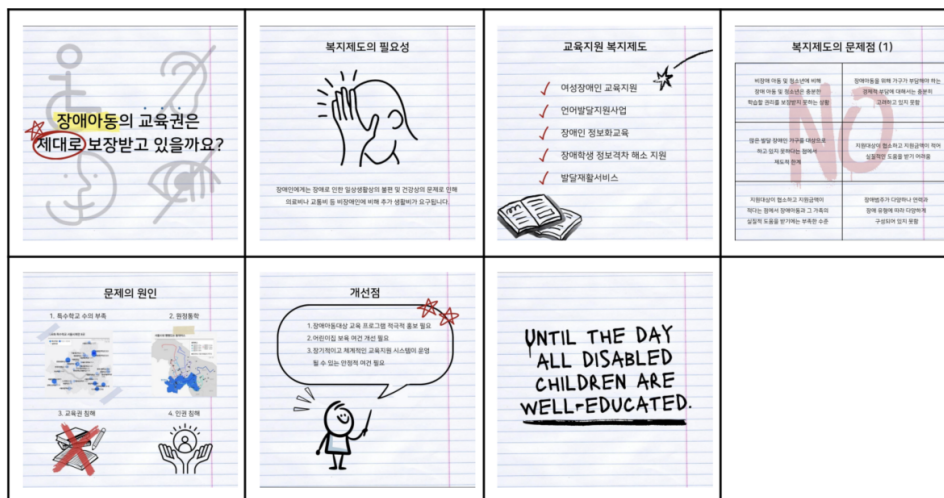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활동 결과

- 장애 아동과 그 부모, 그리고 비장애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장애아동과 그 부모의 설문 응답률이 저조하여, 응답자의 97%였던 비장애 아동 및 성인의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응답자의 88.4%가 장애아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긍정 의사를 내비친 반면 이에 대해 잘 알고있다고 대답한 이들은 21.9%에 불과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에게 주어진 교육 기회가 공평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아동이 똑같은 교육 기회를 얻어야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반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의 중증의 가진 장애아동과의 합반이 비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각기 다른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이들도 많았다.

아동 제안

-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응답자의 대다수가 장애아동 교육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장애아동 교육권의 중요성에 대해 긍정 의사를 내비친 반면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이들이 극소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장애아동 교육권에 대한 인식을 일깨울 수 있는 필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들이 받는 교육과 비슷하지만 다른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비장애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 더 나아가 학교 내 장애교육 시간에 형식적인 인식교육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의 생활 속 크고 작은 불편함을 체험 또는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장애아동이 단순히 배려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의 공동체 일원임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교육은 비장애 아동이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위해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장애 아동 교육권 보장에 대한 카드 뉴스 (@nlyouthactivists 인스타그램에 게재)

▼ 장애아동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 정리 링크

✓ [2023년 장애아동 교육권 실태조사](#)



◀ 숨사탕펀드레이징 포스터



▲ 펀드레이징 활동 모습

장애교육, 형식 넘어 이해 선행돼야

“대한민국 장애 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임을 깨달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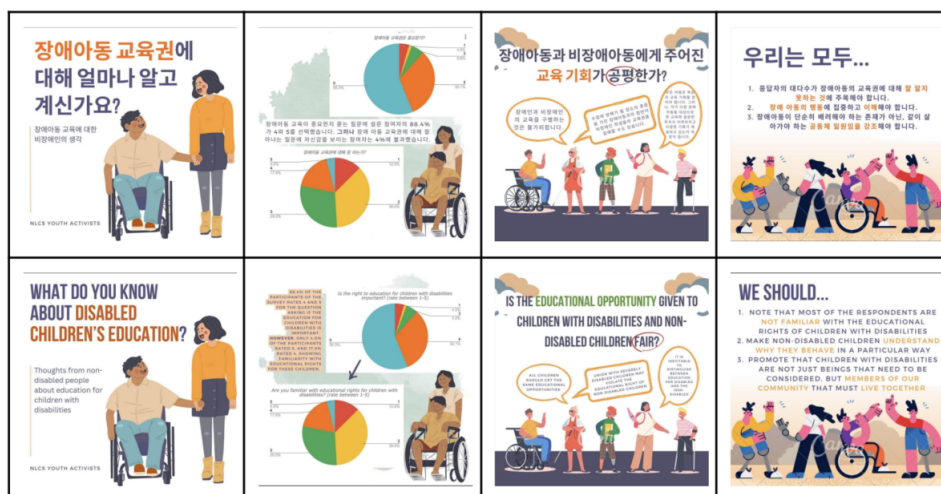
NLCS 제주 12학년 강문교

올해 8월부터 NLCS 제주 인권 동아리에서 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9월 동아리는 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장애 아동과 그 부모, 그리고 비장애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97%였던 비장애 아동 및 성인의 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응답자의 88.4%가 장애 아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반면 이에 대해 잘 안다고 대답한 이들은 21.9%에 불과했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에게 주어진 교육 기회가 공평한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답변이 있었다. 모든 아동이 똑같은 교육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중증 장애를 가진 아동과의 합선이 비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설문 분석을 통해 응답자 대다수가 장애 아동의 교육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장애 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장애 학생 교육과 일반교육을 분리해 접근하는 방식도 문제다. 장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기에 ‘결함’이 있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형식적인 장애교육을 넘어 장애 아동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동아리원을 모두 장애 아동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하나의 공동체 일원임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 틈매일경제 게재글



^ 2차 창작물 - 카드 뉴스 한글 및 영문 버전 (@nlyouthactivists 인스타그램에 게재)

다함께조(충남 1 LENS)

LENS	송민지, 김미화, 이고운, 정민재, 윤세영, 김리원, 이시영, 변환기, 전하민, 정민준
코디 네이터	이서정

활동주제	
공통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보장
권역주제	아동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널리알리기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 선정이유

권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이것은 성인이기 전 아동일 때부터 배우고 접하면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아동은 아동권리에 대해 알지 못함. 가령 아동권리라는 단어는 알아도 그 속에 정확한 내용을 모름. 아동 본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침해를 받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고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쉬움. 또한, 모니터링단 중 위처럼 아동권리라는 것을 들어 봤지만, 자세히 모르는 단원이 있고 앞서 언급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아동권리로 주제를 선정함.

2. 계획세우기

- 9월 7일

1)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교육.

- 2) 주제 선정.
- 3) 조사 및 캠페인 방법선정.

- 9월 8~27일

- 1) 아동권리조사.
- 2) 설문지 제작.

- 9월 28일~10월18일

- 1) 설문지 정하기.
- 2) 설문 조사 포스터제작.
- 3) 설문 조사진행.

- 10월 19일~11월7일

- 1) 설문 조사분석.
- 2) 카드뉴스 제작.
- 3)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준비.
- 4) 최종보고서작성.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초등 4학년~6학년.
- 방법: 구글폼을 활용해 포스터형식으로전시한 뒤 홍보를 통해 많은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약 2주간 진행함.

주제 도출 경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4대 기본권에 대해 강의를 들은 후 여러 가지 아동권리가 침해되는 상황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 궁극적으로 아동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 이런 문제 상황들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동들이 가지게 됨.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 1. 회의 일시: 2023.09.07.
- 2. 회의 방식: 대면
- 3. 회의 장소: 구암지역아동센터

4. 회의 참석자:

5. 회의 내용:

- 권역 주제 정하기.
- 앞으로 계획 설정하기.

6. 활동 내용:

- 아동권리에 대해 조사.
- 설문지에 들어갈 내용 정리.

7. 활동 세부사항 및 활동결과:

- 아동권리조사결과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 아동의 4대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음. 생존권은 아동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보호권은 모든 종류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함. 발달권은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참여권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말함. 또 프랑스 사회는 인간성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교육을 한데 있어 비판하고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고유한 가치와 인권을 주장함.

- 설문지 제작

아동권리를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아동당 2가지의 문항을 생각해 공유한 뒤 중복질문을 제외하고 문항을 만들. 리더인 민재 아동이 대표로 구글폼을 만들어 단원들에게 공유함. 설문지 문항:

1. UN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있나요?
2. 그렇다면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은 총 몇 가지일까요?
- 2-1. 기본권에는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3. UN 아동권리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4. 본인은 아동 인권을 잘 알고 실천하고 있나요?
5. 아동권리를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6. 그럼 본인이 생각한 방법으로 아동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나요?
7. 아동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8. 아동권리를 사람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슬로건 정하기

설문 조사를 진행하며 참여하는 아동들에게 우리의 목적을 알리기 위함. 아동들이 의견을 내고 투표를 통해 정함.

슬로건 후보:

1. 아동권리를 지켜야 모든 아동들이 행복합니다.
2. 아동은 존중받아야 하나의 사회 구성원입니다.
3. 아동을 위해서라면 아동권리를 지켜주세요.

최종 슬로건:

아동을 위해서라면 아동권리를 지켜주세요.

-포스터 제작

원활한 설문 조사를 위해 큐알코드를 첨부한 포스터를 제작함. 큐알코드를 중심에 두고 슬로건과 설문 조사 제목을 조화롭게 적고 꾸며 제작함.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2023.10.19

2. 회의 방식: 대면

3. 회의 장소: 구암지역아동센터

4. 회의 참석자:

5. 회의 내용:

- 설문 조사 진행
- 설문 조사결과분석
- 카드뉴스제작

6. 활동 내용:

- 설문 조사 진행
- 설문 조사결과분석
- 카드뉴스제작

7. 활동 세부사항 및 활동결과

- 설문 조사 진행

앞서 미리 만든 포스터를 센터에 전시해 홍보함. 약 2주간 36명이 참여함.

-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생각 나누기

아동권리를 들어는 봤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캠페인을 통한 홍보가 아동권리를 잘 알리는 방법이라 답함.

SNS를 활용한 홍보를 하자는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함.

- 카드뉴스제작

내용을 정하는 조와 컴퓨터로 카드뉴스를 제작할 조를 나눠 진행함. 내용 정하는 조는 지금까지 한 활동을 바탕으로 페이지마다 내용을 정리함. 제작조는 내용을 받아 적고 꾸밈.

page 1. 제목. “당신은 아동권리를 알고 있나요?”

page 2. 아동권리 정의.

page 3. UN 아동권리협약 소개.

page 4. 4대 권리.

page 5. 설문 조사 결과 분석 내용.

page 6. 설문 조사에서 아동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동들의 의견.

page 7. 슬로건을 마무리로 내용 강조.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 55.6%가 UN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고 44.4%가 모른다 답함.
2. 50%이상이 기본권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름.
3. ”아동을 존중한다, 아동권리를 잘 알고 실천한다, 아동에게 아동학대 같은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는다. “등의 의견이 있음.
4. 38.9%가 아동권리를 잘 지키고 있다고 답하고 38.9%가 그렇지 않다, 나머지가 보통이라고 답함.
5. ”아이들에게 어른과 같은 권리를 줘야 한다.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의견을 낸다. “등의 의견이 있음.
6. 본인이 생각한 대로 아동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는 83.3%가 그렇지 않다 답함.
7. 88.9%가 아동권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함.
8. 63.9%가 캠페인을 통해 아동권리를 알리는 것이 좋다고 함.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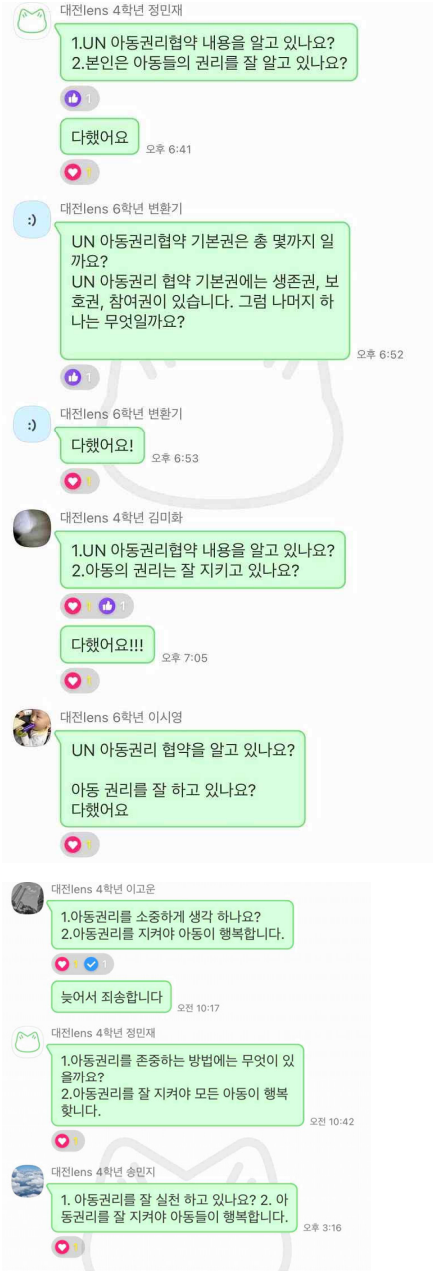
LENS:

- 사람들이 아동권리를 잘 알고 있진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면 좋겠다.
- 처음에는 아동권리가 뭔지 잘 모르고 별로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동권리를 공부하고 많이 알아보니 아동권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활동해서 즐거웠다.
- 처음에는 아동권리가 뭔지 모르고 기본권도 뭔지도 몰랐는데 아동권리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아동권리를 알게 되었고 참여권, 생존권, 발달권 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아동권리를 잘 지키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 캠페인을 하면서 아동권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 좋았다.
- 아동권리를 알릴 수 있어서 좋았다.

코디네이터:

우리는 모두에게 인권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이는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몇 안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동들은 누가 알려 주지 않고서는 본인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들과 이야기를 나눠 봤을 때도 아동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동권리에 대해 알려주는 게 맞지 않냐는 말에 큰 공감이가 되었고 주제를 아동권리를 알리는 것으로 정하게 되었다. 설문 조사를 통해 우리의 생각처럼 아동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아동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에 관해 관심을 갖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자 SNS 캠페인을 진행했다.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본 적 없고 가이드 없는 활동이라 길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팀 아동들의 활발한 의견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활동을 통해 팀 아동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잊지 않고 더 나아가 실천하며 성장하면 좋겠다. 아쉬운 점으로는 설문지 문항이다.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소통해야 하는 점에서 주제에 대해 깊이 다가가서 문항을 만든 것이 아닌 단편적인 문항인 점이 아쉬웠다.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우리가이기조(충남 2 LENS)

LENS	권성수, 박세지, 이예찬, 전하은, 손명재, 여재왕, 김주경, 김두현, 안세린
코디 네이터	이서정

활동주제	
공동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주제	아동과 청소년이 생각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선정 이유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만 17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자살률은 2021년 기준 10만 명당 2.7명에 달했으며,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10~19세 아동 사망원인 중에 43.7%가 '고의적 자해(자살)'로 나타남. 이와 관련해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한 아동 인권 당사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함

2. 계획세우기

○ 9월 7일

- 1)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 교육(9월 7일)
- 2) 1차 회의 진행(9월 7일) (장소 : 구암지역아동센터, 시간 : 오후 3~5시)
- 3) 권역별 주제 선정
- 4) 활동계획서 작성

5) 모둠(1,2모둠) 나누기, 역할 분담

○ 9월 8~27일

- 1) 모둠 활동 진행
- 2) 2차 회의 진행(9월 27일) (장소 : 구암지역아동센터, 시간 : 오후 3~5시)
- 3) 설문조사 질문 확정

○ 9월 28일~10월 18일

- 1) 설문조사 질문지 제작
- 2) 설문조사 진행
- 3) 설문 조사 결과 분석
- 4) 3차 회의 진행(10월 19일) (장소 : 구암지역아동센터, 시간 :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10월 20~11월 3일

- 1)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홍보자료(포스터) 제작 및 홍보
- 2)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준비
- 3) 최종보고서 작성

3. 조사대상 및 방법

대상: 초등 4~고교생 | 설문조사대상인원 : 약 30명 |

방법: 사전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살 원인과 대안에 대한 3개의 질문 확정. 스티커 부착식 방식으로 구암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 1주일간 설문을 진행. 초등학생과 중고교생의 생각을 비교하기 위해 스티커 부착식 설문지를 초등용, 중고교용 2가지로 나눠 제작

주제 도출 경과

1. 주제선정 이유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만 17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자살률은 2021년 기준 10만 명당 2.7명에 달했으며,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10~19세 아동 사망원인 중에 43.7%가 '고의적 자해(자살)'로 나타남. 이와 관련해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한 아동 인권 당사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함

2. 계획세우기

○ 9월 7일

- 1)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 교육(9월 7일)
- 2) 1차 회의 진행(9월 7일) (장소 : 구암지역아동센터, 시간 : 오후 3~5시)
- 3) 권역별 주제 선정
- 4) 활동계획서 작성
- 5) 모둠(1,2모둠) 나누기, 역할 분담

○ 9월 8~27일

- 1) 모둠 활동 진행
- 2) 2차 회의 진행(9월 27일) (장소 : 구암지역아동센터, 시간 : 오후 3~5시)
- 3) 설문조사 질문 확정

○ 9월 28일~10월 18일

- 1) 설문조사 질문지 제작
- 2) 설문조사 진행
- 3) 설문 조사 결과 분석
- 4) 3차 회의 진행(10월 19일) (장소 : 구암지역아동센터, 시간 :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10월 20~11월 3일

- 1)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홍보자료(포스터) 제작 및 홍보
- 2)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준비
- 3) 최종보고서 작성

3. 조사대상 및 방법

대상: 초등 4~고교생 | 설문조사대상인원 : 약 30명 |

방법: 사전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살 원인과 대안에 대한 3개의 질문 확정. 스티커 부착식 방식으로 구암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 1주일간 설문을 진행. 초등학생과 중고교생의 생각을 비교하기 위해 스티커 부착식 설문지를 초등용, 중고교용 2가지로 나눠 제작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3.09.07.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장소 : 구암지역아동센터

4. 회의 참석자 : 권성수, 박세지, 이예찬, 전하은, 손명재, 여재왕, 김주경, 김두현, 안세린

5. 회의 내용

- ① 권역 주제 도출
- ② 앞으로의 활동 계획 논의

6. 활동 내용

- ① 설문조사를 위한 사전 문헌 조사(통계 및 관련 기사 등)
- ② 설문문항 설계

7. 활동 세부 사항 및 활동 결과

① 1모둠(박세지, 안세린, 전하은, 이예찬, 김두현)

‘아동청소년 자살률 변화’와 관련한 통계자료 및 기사 조사 결과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청소년 자살률은 3년 사이 44%나 증가됐음을 확인.
- 정신건강관련 조사 결과에서는 대상 아동의 20%가 자살 충동을 느꼈으며, 9%는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통계자료를 검색하고, 친구들과 결과를 공유하면서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을 깨달았음.
- 회의에서는 자살 충동을 줄이기 위해 자살을 생각한다면 도움을 청하면 좋겠고, 자살 예방과 관련한 교육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옴.

② 2모둠(권성수, 손명재, 김주경, 여재왕)

‘아동청소년 자살률 원인 분석’과 관련한 기사 등 자료 찾기 결과

- 구글과 통계청 사이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의 아동과 청소년이 학업과 가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 수 있었음.
- 청소년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학원 등에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고 있음.
- 청소년 자살률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21년에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살 생각 비율과 자살 시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자살과 관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콘텐츠에 노출된 문제도 확인함.

*** 1,2 모둠 공통 조사 내용**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수립에 주목하는 한편, 대한민국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인 높은 아동 자살률, 특히 가정 문제, 우울증, 학업 부담, 집단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특히 "자살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학업부담, 이로 인한 수면부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고 강조. 자살 예방과 자살의 근본원인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해 아동의 정신적 웰빙(well-being)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반복해서 권고함.

- ③ 자료 조사 후 설문 문항 선정 작업은 SNS를 통해 진행키로 하였으나 일정 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2차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질문 확정키로 함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2차 회의〉

1. 회의 일시 : 2023.09.27.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장소 : 구암지역아동센터
4. 회의 참석자 : 권성수, 박세지, 이예찬, 전하은, 손명재, 여재왕, 김주경, 김두현, 안세린
5. 회의 내용
 - ① 설문 문항 확정
 - ② 설문방식 및 대상 최종 확정
 - ③ 추가 활동 계획
6. 활동 내용
 - 설문 문항 확정 및 스티커 부착식 설문지 작업 계획
7. 활동 세부사항
 - 설문지 문항 확정 및 설문지 제작

설문 문항은 ① 아동과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대책을 알아보고자 함
 설문 방식 및 목적은 ② 개방형(스티커 부착) 설문을 통해 설문 참여 아동에게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을 홍보 추가활동으로 ③ 설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한편, 이를 활용해 청소년 자살 예방 포스터를 그리고, 이를 전시 홍보키로 함.

※ 최종 확정 설문 문항

청소년이 죽음을 떠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성적 ② (학교)폭력 ③ 갑자기 살기 싫다는 생각(무기력감 등) ④ 외모

2. 학년이 올라갈 때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성적 ② 폭력 ③ 우울감 ④ 외모

3.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② 또래 상담 등 학교 상담 강화
③ 상담 전화 홍보 확대
④ 온라인 채팅 상담 확대

〈3차 회의〉

1. 회의 일시 : 2023.10.19.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장소 : 구암지역아동센터

4. 회의 참석자 : 권성수, 박세지, 이예찬, 전하은, 손명재, 김주경, 김두현 (2명 불참)

5. 회의 내용

- ① 설문 결과 공유 및 분석
- ② 활동 소감 공유
- ③ 추가 활동(포스터 제작) 기획

6. 활동 내용

- 설문지 제작(09.28~10.7) 및 설문 실시(10.11~10.18.)

7. 활동 세부사항

- ① 설문 조사 진행
 - 설문 문항 확정 이후 SNS에서 설문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 진행. 설문 방식은 우리가 이기조 아동들이 가능한 방식을 고려해 스티커 부착식으로 하고, 설문 문항을 포함한 설문지 구성에 대해 추가 논의 진행해 설문지 제작 완료
 - 약 1주일간의 조사를 통해 24명 대상 설문 진행(목표 30명)
- ② 설문 분석 및 생각 나누기
 - 3차 회의에서 설문 결과를 분석하고 각자의 활동 소감을 공유 초등학생 및 중고교생이 생각하는 자살 원인과 대안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아래 '참고표 1' 참조)

- 중고교생이 원인으로 꼽은 '성적'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 현재의 성적 스트레스와 중고교생 때 예상되는 스트레스를 점수화하고, 각자 자살을 생각할 것 같은 스트레스 점수 매기기 진행(참고표 2 참조)
- ③ 청소년 자살 예방 포스터 제작 및 전시 통한 홍보 계획 구체화
- 초등학생보다 중고교생이 자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만큼, 자살 원인으로 지목한 '성적'과 관련한 자살 예방 포스터를 그리고, 이를 구암지역아동센터에 전시하기로 함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설문 조사 결과〉

- 청소년 자살 원인과 대책에 대한 초등학생과 중고교생 간의 답변이 다르게 나타남
- 청소년이 죽음을 떠올리는 가장 큰 이유로 초등학생의 경우 64%가 '(학교)폭력'에, 중고등학생의 43%가 '성적'과 '(학교)폭력'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
- 진급을 하면서 더 크게 느껴지는 자살의 원인에 대한 질문인 '학년이 올라갈 때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성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 설문 참가 아동의 38%로 가장 많았음. 특히 중고교생의 경우 절반 이상인 57%가 '성적'이라고 응답. 반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우울감(36%) > 성적(29%) > 폭력(21%)의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원인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과 중고교생의 답변이 차이를 보임. 초등학생은 절반 이상(57%)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를 고른 반면, 중고교생은 '온라인 채팅 상담 강화'라고 답한 경우가 43%로 가장 많았음.

[참고표 1] 청소년 자살 문제 설문 결과 분석표

보기	질문1			질문2			질문3		
	초등	중고등	전체	초등	중고등	전체	초등	중고등	전체
1	21%	43%	29%	29%	57%	38%	57%	14%	43%
2	64%	43%	57%	21%	29%	24%	0%	29%	10%
3	7%	0%	5%	36%	0%	24%	21%	14%	19%
4	7%	14%	10%	14%	14%	14%	21%	43%	29%

〈설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단 생각 나누기〉

[참고표 2] 모니터링단원이 스스로 매긴 성적 스트레스 점수표(현재와 중,고교 진학 후 예상)

이름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점수로 표현해 본다면? (중학생 이후는 예상치임)			스트레스 점수가 몇 점 일 때부터 자살을 생각하게 될까요? (기준 점수)
	현재(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30	50	80	100
	70	80	90	70
	30	50	75	85
	0	20	90	50
	10	30	80	90
	50	60	70	100
	50	75	85	90
평균	34.28571	52.14286	81.42857	83.57142857

〈아동 제안〉

- 각종 통계와 설문 결과에서 일치하는 '성적'과 관련한 중고교생의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에 대한 학교와 정부 등의 세심한 관심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 필요
- 아울러 중고교생들이 대책으로 가장 많이 꼽은 '온라인 채팅 상담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
-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서의 청소년 자살 예방과 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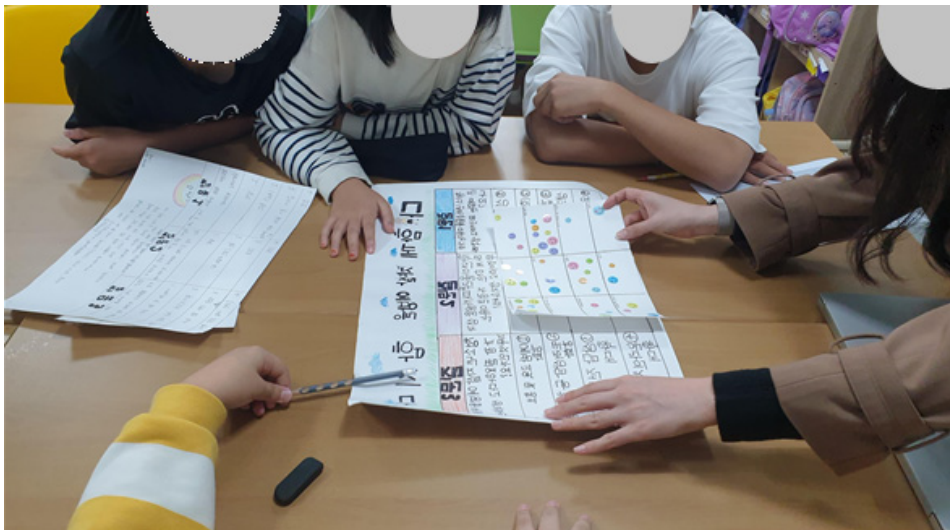
〈LENS〉

- 주제가 어려웠고, 다른 사람들이 걱정되었다. 단원들이 잘 참여하지 않았다.
- 처음 주제를 정할 때보다 자료를 조사하고, 설문을 진행하려니 걱정이 많이 됐는데, 조원들이 잘해 줘서 고마웠다.
- 부모님이 넣고 싶어 넣은 소중한 존재인데, 자살을 하는 것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자기 인권을 없애려는 행동이다. 그러나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 아동과 청소년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중고등학생은 성적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다는 것을 설문조사로 알게 되니 굉장히 무섭다.
- 성적이 나쁘면... 많이 슬프고, 부모님이 혼내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다.

03.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209



▲ 우리가이기조 LENS 단원들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제작한 '청소년 자살 예방' 홍보 포스터. 현재 구암지역아동센터에 전시하고 있다.





▲ 10월 19일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우리가이기조의 '설문결과 분석 및 논의' 중 단원들이 초등과 중
 고등학생으로 나눠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확인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c_lens_w(충북 LENS)

LENS	김은율, 이성혜, 김민경, 정현희, 남예린, 박하은, 김정범, 최혜원
코디 네이터	한형주

활동주제	
공동주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권역주제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아동의 발달권 침해

모니터링 활동

Step1. 주제선정 및 계획세우기

1. 주제선정 이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자료 중, 고교생 스트레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스트레스 인지율(35.4%)과 우울감 경험률(23.6%)이 점점 증가하는데, 이는 과도한 학업량과 시험, 학업 경쟁, 가정에서의 기대 압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지역은 정부에서 지정한 학습시간과 다르게 초·중학생의 학원시간이 11시까지, 고등학생은 12시까지 다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학업 경쟁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와 과한 교육 부담감으로 학생의 발달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주제로 선정했다.

2. 계획세우기

8월

1. 충북권역 아동 주제선정 회의 진행
2. 권역주제 관련 자료 수집 및 토의 진행

3. 설문조사 질문 작성 및 검토

9월

1. SNS 개설 및 게시물 작성 (인스타그램)
2. 설문조사 질문지를 네이버 폼으로 변경 (링크 생성)
3. 충북 중·고등학생대상으로 설문 진행 - 160명 대상
4. 권역주제 캠페인 준비 (피켓 제작 및 회의)

10월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권역주제 관련 포스터 제작 (인스타그램 업로드)
3. 권역주제 캠페인 진행

3. 조사대상 및 방법

대상: 충북 시내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약 160명

방법: 구글 폼 설문 및 현장조사

주제 도출 경과

권역주제 :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아동의 발달권 침해
 (충북)충주 학생들의 학습 상황과 아이들의 발달권 관련 요소들을 조사해왔다.
 총 116명이 설문에 응답해주었으며, 고등학생이 107명 참여해주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정보 문항

- 성별
- 나이
- 행복과 불행요소
- 아동인권 인지정도

학습관련 문항

- 학습 방식
- 학습시간
- 학업 스트레스 정도와 원인
- 학업동기 및 스트레스 해소법

발달권 관련 문항

- 일 평균 수면시간

-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
- 일주일 평균 휴식시간
- 식사 정도
- 문화생활 정도

기타 문항

- 진로설계에 대한 정보
- 자신의 의견존중 정도

결과

학업이 학생들에게 주는 스트레스(압박)정도는 과반수 이상(51.7%)이 높음으로 나타남. 학업이 주는 스트레스의 주 원인은 저조한 성적, 학습 의지의 부재, 그리고 부모님의 잔소리로 나타남. 학생들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오락과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음. 학생들의 하루 평균 3.9시간으로 방과 후 학교 끝나는 시간이 6시 인 것을 감안하면, 꽤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학생들이 학습에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 자기개발을 위한 기초지식 쌓기, 그리고 그들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로 응답했고, 이들의 학습동기는 성적향상과 명확한 목표설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 에도 부모님의 칭찬과 격려가 큰 동기가 되었다고 응답함.

그러나 이러한 학습의 부담은 학생들의 올바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의 일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으로, 청소년 수면권장 시간인 8시간~8시간 30분에 못 미치는 것이 나타났다. 수면시간을 줄이는 이유로는 스마트폰 사용(48.1%)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바로 뒤에 학습이 원인으로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일과 중 밀린 휴식이나 개인 시간을 수면시간을 줄이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 같다. 학생들의 일주일 총 운동시간은 3시간 이하였으며, 월 평균 문화 및 여가시간은 48.6%의 학생이 거의 누리지 않거나,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외인 점은 학생들의 평소식사는 아침과 점심, 저녁 모두 매일 먹는 비율이 높았고, 평균 휴식시간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외 희망하는 장래에 대한 설문결과가 51.7%가 장래희망이있다고 응답했고 45.7%는 아직 장래희망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응답을 통해 보았을 때,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습관과 선호도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임.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차. 발대식 및 OT

(LENS 활동 전반적인 소개)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소개

› OT자료를 만들어서 진행하였음.

(교육) 아동인권 관련 설명, 공통주제인 아동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부가적 설명

› 코디네이터 OT때 교육내용과 과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교육 실시하였음.

(아이스브레이킹 활동) 진진가게임 변형, 뇌 그림 맞추기 게임 실시

› 활동준비는 잘했으나, 진행이 미숙하여 QnA 시간으로 대체하였음.

(회의 내용 1) LENS 활동일, 장소, 시간대 협의

› 비대면 회의는 화요일 오후 8시경, 대면회의는 학교 일정 조정 후 월요일 8시경

(회의 내용 2) LENS단 내 역할 생성 및 분담

역할	이름
(서기) 회의기록	예린, 정범
(사진사) 활동사진	은율
(인플) SNS 및 글	혜원, 성혜
(디자인) SNS 및 그림	민경, 하은
(총괄) 발표 및 정리	현희

(회의 내용 3) 권역별 주제 선정회의

› 장애, 교육, 다문화, 노키즈 존 등 다양한 토픽이 나와 추후 회의 후 결정.

2차. 주제선정 회의

LENS 활동 목표와 목적 상기

전 활동내용 복기 및 주제 선정 회의

(회의 내용 1) 아동인권 관련 핵심소재 찾기

› ‘교육’과 ‘발달권’ 관련 키워드를 주제로 회의진행

(회의 내용 2) 핵심소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논

› 아이들이 느끼는 ‘교육의 부담’을 잘 이야기했지만, ‘아동 발달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판단하여 관련 내용 교육 재진행

(회의 내용 3)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권역별 주제 선정

› 아이들 스스로가 해결하고 싶은 주제를 아이들 손으로 직접 선정

(개인 과제) 권역별 주제 선정에 따른 키워드 설정 및 개인 조사 실시

3차. 1차 활동 실시

저녁식사를 같이하며, LENS단원들과 친목도모 및 소통

〉 피자 준비를 코디쪽에서 준비하였고, 학교 측에서 음료와 시설 제공해주셨음.

(중요 활동) 활동 계획서 작성

〉 활동 계획서 작성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진행하였음.

(발표) 개인 과제로 실시했던 자료조사 내용 전원이 발표

〉 발표 준비가 미흡한 학생이 있었음. 주기적으로 과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음.

(회의 내용 1) 발표내용을 토대로, 권역 주제 관련 토론

〉 발표 준비가 미흡한 학생들은 발달권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교육으로 이어지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 진행

(회의 내용 2) 설문 대상 및 설문 방법 등 효과적인 조사방법 고안

〉 대상은 충북 지역의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160명 정도, 방법은 네이버 폼 작성, SNS를 통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진행

(회의 내용 3) 앞으로의 LENS 활동 방향과 활동 내용 관련 회의

〉 활동 계획서에 자세히 기술하였음.

4차. (자율) 설문지 작성 관련 회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나서 설문지 지문 작성을 위한 회의를 진행

〉 활동 기록 및 활동사진을 남기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가적인 모임이 있을 시에 자료를 필히 남겨두라고 이야기 남김.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활동 이행 상황]

1차. 3차 활동 회의

(중요 활동) 충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과 “발달권”에 대한 설문조사지 작성

〉 기본 정보 문항 7개, 학습 관련 문항 12개, 발달권 관련 문항 17개로 작성

(회의 내용 1) LENS 활동 홍보방법 및 설문방법 고안

〉 피켓 홍보 방법, 인스타그램 활성화 등 다양한 접근방법 고려.

(회의 내용 2) 설문지 작성 및 구글폼 생성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5PYnaA9Wda4dDLE8VK4EWcybO4evDQlyHKWKPLUKSwj3bgw/viewform>

(회의 내용 3) 권역별 캠페인 준비

〉 장소선정 : 충주연수동 시내(고등학교 및 학원가), 교내(신명중, 충원고)

공동주제 체크리스트 배부 실시 (각 10명~ 15명)

〉 9월 24까지 공동주제 설문지 배부 완료.

2차. 피켓 홍보 활동 (시내)

(중요 활동) 충북 초·중·고등 학생들에게 “발달권”과 “학습”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참여인원 : 민경, 예린, 성혜, 정범

〉 활동내용 : 피켓 문구 작성 및 충주 시내 학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2차 피켓활동은 9월 17일로 예정되었으나, 우천으로 활동취소

(1차 목표) 충주 시내 학생에게 LENS 알리기

〉 충주 시내에서 피켓 홍보 활동을 실시했으나, 종교집단으로 오해받아서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설문 참여 협조를 받기 어려웠음.

〉 참여한 인원들은 진지하게 설문조사에 협조해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임.

(2차 목표) 충주 시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50부 배부

〉 본래 목적인 50명을 채우지 못하고, 설문 참여인원 16명으로 마침.

3차. 4차 활동 회의

(중요 활동) 인스타그램 게시물 작성

〉 본래 인스타그램을 따로 작성하기로 역할을 분담했으나, 학생들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인스타그램 활용이 미흡하였음.

(회의 내용 1) 인스타그램 컨셉 설정

〉 홍보 역할을 담당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생들이 다 함께 인스타그램 LENS 홍보 컨셉에 대한 회의를 진행함.

〉 약간 B급 감성이 있는 광고 패러디로 렌즈 활동을 유쾌하게 풀어가기로 정함.

(회의 내용 2) 게시물 업로드 내용 및 일정 회의

1. LENS 충북 권역 소개

2. LENS 멤버 소개

3. 아동인권에 대한 전반적 소개

4. “발달권”에 대한 조명(설문조사 소개)

5. “과도한 학습”이 “아동의 발달권”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 공개)

6. 인권 관련 만화나 스토리 작성

(회의 내용 3) 4팀으로 구성하여 각 게시물 작성

〉 2명씩 각 4명으로 구성하여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작성했으나, 게시물 마무리가 미흡하여 추가 보완이 필요함. (10월 중으로 수정하여 다시 게시할 예정)

4차. 피켓 홍보 활동 (교내)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피켓홍보 활동 개시

〉 9/20일 교장선생님 허가 후, 조례시간 및 쉬는 시간 중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참여 격려

(1차 목표) 교내 학생에게 설문지 참여 격려 및 LENS활동 관심도 높이기

〉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아동인권 및 LENS활동에 관심도가 조금 늘었다고 함.

(2차 목표) 교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100부 배부

〉 설문조사 중 116부 수거 완료함.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학생 활동 기록지(전원 참석)

번호	일자	시간	내용	장소
1차	8/1 (화)	20:00~22:00	발대식 및 OT	충원고 교내식당
2차	8/9 (수)	20:00~22:00	주제 선정 회의	비대면(구글미팅)
3차	8/16 (수)	18:20~20:30	1차 활동 실시	충원고 교내식당
4차	8/17 (목)	교내 시간 중	설문지 관련 회의	충원고 교내
번호	일자	시간	내용	장소
1차	10/26 (목)	19:00~21:00	활동 마무리	충원고 교내
번호	일자	시간	내용	장소
5차	9/4 (월)	20:00~22:00	3차 활동 회의	충원고 교내
6차	9/10 (일)	13:00~18:00	피켓 홍보활동	충주 시내
7차	9/18 (월)	20:00~22:00	4차 활동 회의	충원고 교내
8차	9/20 (수)	교내 시간 중	피켓 홍보활동	충원고 교내
번호	일자	시간	내용	장소
9차	10/26 (목)	19:00~21:00	활동 마무리	충원고 교내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박하은	내용
아쉬운 점	활동일이 적어 활동이 급하게 진행되어 아쉬움 학교 활동이 주로 이루어져서 아쉬움
배운 점	아동 발달권에 대한 이해 서로 토론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과 사고력
총평	정말 나에게 큰 변화를 주는 계기였고, 나의 의견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서로 협동을 하여, 협업하는 능력을 길렀다. 나의 경험을 풀어 활동한 적은 처음이라 매 만남이 즐거웠다.

김은율	내용
아쉬운 점	멤버의 지역이 다양하여 소집이 쉽지 않았다. 활동 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번아웃이 찾아와 힘들었다.
배운 점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통이 어려울 때의 대처방법
총평	글이 아닌 사진의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역할을 했다. 자신이 받은 게 많아서 따로 평가를 매길 수 없다.

최혜원	내용
아쉬운 점	활동 준비 기간 중, 활동 준비를 위해 멤버들과 자주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시간과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쉬웠다.
배운 점	친구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생각, 비판들을 들을 수 있었다. 친구들과의 협동능력, 자신들끼리 어떠한 활동을 해낼 수 있다는 점
총평	협동심과 노력할 수 있는 힘을 '같이' 키울 수 있어서 좋았다.

김민경	내용
아쉬운 점	충주 사람들의 소극적인 태도 + 우리들의 소극적인 태도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활동 시간대를 잡기 어려움
배운 점	친구들과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친밀감이 올라감.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총평	권리 실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못해서 아쉬웠음. 하지만 같은 충주 사람들끼리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 의미가 있었음

정현희	내용
아쉬운 점	토론 할 때 이야기가 계속 엇나가서 힘들었음 하고 싶은 활동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움
배운 점	평소에 발달권에 대한 흥미나 지식이 없었는데, 이를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됨. 내가 몰랐던 일들을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되어서 좋았음
총평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발달권에 대해 알게되어서 좋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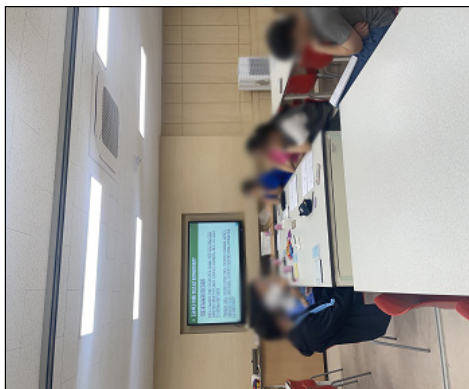
남예린	내용
아쉬운 점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부족한 시간과 바쁜 일정 때문에 아쉽다. 좀 더 진지하게 활동하면 좋았을 것 같다
배운 점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총평	우리의 행동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성혜	내용
아쉬운 점	야외 활동을 더 하고 싶었다. 다들 일정이 안맞아서 시간이 부족했다.
배운 점	아동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했다. 주도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총평	짱 짱 짱 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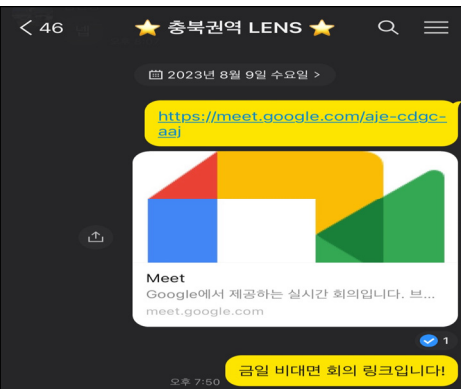
김정범	내용
아쉬운 점	시간 부족 활동범위가 협소
배운 점	설문조사 작성법 주도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방법
총평	처음하는 활동이었는데도 모두가 잘 참여하고 성과도 의도한 대로 나와서 더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시간이 부족했던게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주도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었다는게 나에겐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 친구들도 모두 다 잘 참여해 줘서 고마웠고 캠페인하러 직접 시내에 나간 것도 좋았다. 시골 고등학교의 우리가 이렇게 아동 인권을 위해 활동한 것이 보람찼다.

한형주(코디)	내용
아쉬운 점	1. 학생 개인의 일정도 바쁘고, 나의 일정도 자유롭지 못하여 시간 조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진로선생님의 적극적인 서포트로 늦은 밤 교내에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공간과 시간의 제약은 활동범위를 상당히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 2. 물리적 거리가 멀어서 시내에서 활동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시내와 멀리(차로 30분 이상) 떨어진 학교 특성상 시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활동이 교내위주로 한정되어 진행되었다. 3. 아이들의 주도적인 활동이 되길 바라며 활동에 깊게 개입하진 않았다. (먼저 의견을 내는 행위x) 아이들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캠페인을 스스로 고안하길 바랬지만 이러한 활동 경험이 적어 시간이 꽤 오래 소모되었다. 때문에 계획했던 활동 일정을 따라가지 못하여 조금 더 간소화하여 진행이 되었다. (추가로 아이들이 바쁜 일정으로 개인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배운 점	나의 역량 부족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지 못했다. 좀 더 쉬운 내용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활동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지만, 흥미나 자발적 행위를 기대하여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을 깨달았다. 조금 더 아이들의 역량에 맞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 아이들과 10살이나 차이가 나서 의사소통의 벽이 있을 것 같았지만, 그리 크게 문제되진 않았고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특성과 문화,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 추후 관련 분야에서 일할 때 많이 참고가 될 것 같다.
총평	일은 항상 계획했던대로 흘러가진 않는다. 좀 더 노력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많이 얻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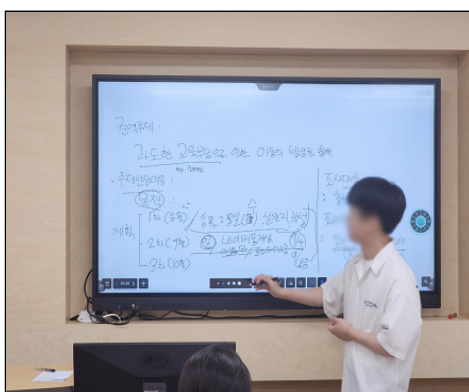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8월1일. LENS 활동일 및 시간대 협의



8월 9일. 구글미팅링크 (단톡방)



8월16일. (코디) 활동계획서 의견정리



8월16일. LENS 단원과 저녁식사(친목도모)



9월4일. 충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과 “발달권”에 대한 설문조사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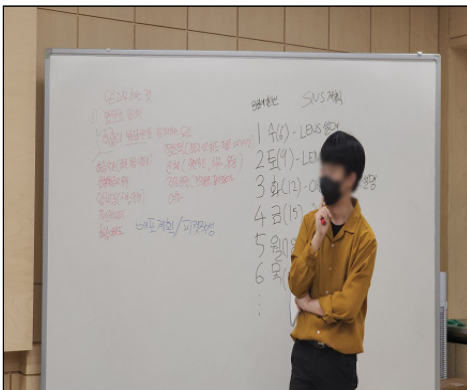
9월4일. LENS 활동 홍보방법 및 설문방법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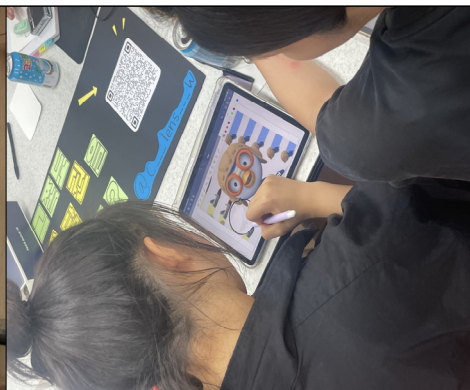
9월10일. 권역별 캠페인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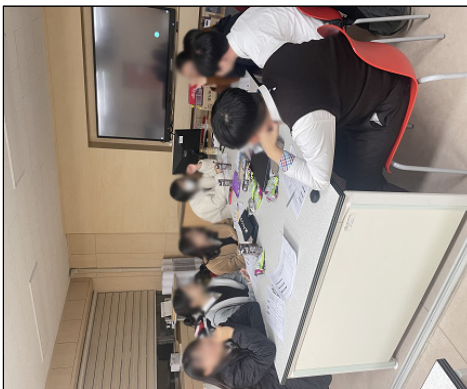
9월 10일. 충북 초·중·고등 학생들에게 “발달권”과 “학습”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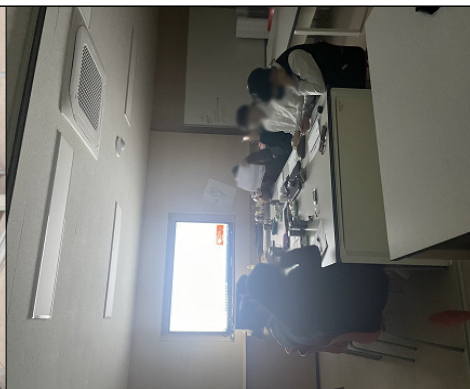
9월18일. (코디) 인스타그램 계획정리



9월18일. 인스타그램 게시물 작성



1. 설문지 결과 분석



2. 활동 마무리 소감 발표회



활동결과물. 인스타그램 게시물

[충북 LENS] 학습과 발달권 설문조사

본 설문지는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인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LENS 관련 활동 일환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지역조사입니다.
설문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개인의 응답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활동에서만 사용될 것이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대답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점을 통해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메일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LENS 충북권역 대표 한형주
Tel : 010 - 8778 - 4747 / mail : eric971002@naver.com

Google에 로그인하여 진행상황을 저장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 표시는 필수 질문입니다.

이메일 *

이메일 주소

❶ 필수 질문입니다.

I. 기본정보

설문질어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여러분의 성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 남
☐ 여자
☐ 기타: _____

2. 여러분의 학년에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

- ☐ 중학교 1학년
☐ 중학교 2학년
☐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2학년
☐ 고등학교 3학년

3. 여러분의 현재 기분 상태

1 2 3 4 5
매우 나쁨 ○ ○ ○ ○ ○ 매우 좋음

4.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바로 생각나는 단어나 문장 세 가지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답변

5.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바로 생각나는 단어나 문장 세 가지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답변

6. 어떠한 경로로 이 설문조사를 접하게 되었나요? *

- ☐ 현장 (길거리 홍보)
☐ SNS (인스타그램)
☐ 지인과 친구들 통해 전달
☐ 기타: _____

7. 아동 인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1 2 3 4 5
잘 모른다. (아동 권리가 무엇
이 있는지 모름) ○ ○ ○ ○ ○ 너무 잘 알고 있다. (아동 권리
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가능)

다음

1/3페이지

양식 지우기

설문조사지

04

제언

제언

2023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LENS(Lens of children)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공통주제로 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다. 아동의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전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논의를 통해 주제를 구체화하여 권역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또, 권역에 따라 참여권 외에 다른 아동권리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권역별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1. 권역별 모니터링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은 아동권리협약 제12조(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두도록 해야 한다), 제12호 일반논평(피청취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도,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아동의 의견이 청취될 기회를 국내법의 절차규칙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아동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에 입각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다.

‘아동주도’의 원칙 하에 진행한 활동은 아동당사자에게 권리주체로서 아동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주도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느낀 경험과 성취감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이후 아동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하였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권리주체성 확보와 아동참여권의 실현, 아동 개인의 역량 향상이라는 모니터링 활동의 목표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발견되었다.

첫째, 아동 모집시기의 변경이 필요하다. 6월에 시작한 모니터링단 지원기간과 기말고사 기간이 겹치며 모니터링 지원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아동의 자발적 참여가 지속되는 데에 봉사시간이나 활동비보다는 단원 간의 친밀감과 아동-코디네이터 간의 친밀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으로 고려할 때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 시작과 단원 모집 시기를 앞당기고, 1개월 내외로 계획하였던 모집 기간 역시 늘림으로써 아동의 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면모임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모니터링단은 대면모임과 비대면 모임(줌, 카카오톡 등)을 병행하였는데 논의의 효율성과 질적 측면에서 대면 모임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대면 모임에 대한 높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대면 모임은 월 1~2회 진행되었는데 학업으로 인한 스케줄 조정의 어려움, 거주지역의 차이, 비용의 부담 등으로 대면 모임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학교와 학원 스케줄로 단원 모두 참여 가능한 회의 날짜를 잡기 어렵고, 비슷한 지역끼리 팀을 구성하였음에도 동일한 동네가 아닌 이상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회의 장소 대관비용 등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면 모임시 교통비지원과 활동비 지원이 있었으나 아동이 필요로하는 만큼의 활동 횟수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거주지역에서 장소 대관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모임이 어려웠던 권역이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대다수의 시간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시간으로 사용하는 아동의 일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공통 주제 모니터링(설문 조사)

2023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권을 알아보고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정된 1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이며, 체크리스트는 조사대상의 연령대와 학교급에 따라 아동용(10~12세 또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청소년용(13~18세 또는 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총 1,50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중복응답을 제외한 총 1,500명의 체크리스트에 대해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체크리스트 모니터링 결과에 기초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인권교육에 대한 학교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은 인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권리교육을 받은 아동·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86.2%였고,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은 인권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본 전제는 권리 보장의 주체인 아동·청소년의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하여 당사국이 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가정 내 생활 참여’와 ‘기타 가정 참여’ 영역이 ‘교육 참여’와 ‘사생활 존중’ 영역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가정의 중요한 결정 과정 참여와 의견 존중’, ‘모임참여 의견존중’, ‘소통을 통해 맡은 집안일 하기와 같은 가정 내 생활 참여’를 보장하고, ‘미래 직업에 대한 의사 소통’, ‘종교 활동의 자유’, ‘정치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청소년 대상)’와 같은 기타 가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의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정에서의 참여권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이 아동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남자 아동(초등학교 연령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정 내 생활 참여, 교육 참여, 사생활 존중, 기타 가정 참여 영역에서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학교 운영 참여’와 ‘학교 활동 참여’ 영역이 ‘수업 참여’와 ‘학습 운영 참여’ 영역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학교행정 결정 과정 참여’, ‘학칙 학생의견 반영’, ‘학교생활 관련 의견 제시’를 보장하고, ‘학교 공식 매체에 자유로운 의견 표현’, ‘학생의견 개진 게시판 설치’, ‘학생자치회의실 등 의견 나누는 공간 마련’ 등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 자유로운 정치활동 참여’는 다른 학교 영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나 참정권 행사의 의미 등 선거교육이나 지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선관위와 함께 각 학교 선거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투표권 행사 지도를 위한 특강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투표권이 있는 학생(만 18세)은 선거를 위한 조퇴나 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표확인증이 있는 학생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등 적극적인 선거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사항 중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의 하향 또는 삭제,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 하향, 모의투표 허용 및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관련 지침, 유의사항 개발 등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해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있고, 이와 관련된 국회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모의투표는 청소년이 선거권 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거교육 수단에 해당하나, 여론조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이유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소년이 미래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권자가 된다는 점, 청소년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현장에서 모의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하여, 하위 영역 중 사회

참여 기타(나의 인권침해 고발, 타인의 인권침해 고발) 영역을 제외한 정책과정 참여, 지역중심 참여, 단체자율 참여, 정치적 참여(청소년 대상) 영역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학교와 교육청의 학생자치회,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함께 주최하는 대한민국아동총회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와 활동은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는 반드시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유엔아동특별총회(2002.05)에서 결의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과제를 이행함과 동시의 아동·청소년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참여 활동이 단기적인 활동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정책에 정책의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모아 제안할 정책과제를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제안된 정책과제의 실질적인 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참여 기회의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러한 참여 기회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이 접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최근 다양한 형태로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담아내고 공유할 온·오프라인 형태의 창구나 아동·청소년의 참여활동을 지원할 다양한 전문가를 배치하고, 아동·청소년의 참여활동을 지원할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인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 교육 열풍과 맞물려 더욱 정교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필요로 한다. 아동·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강조는 더 심화되어 아동·청소년의 참여 기회는 더욱 제한된다. 사회에서의 다양한 참여와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더욱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교육권만이 아닌 참여권을 함께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개선이 사회 전반에서 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아동·청소년이 삶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2조는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니세프(UNICEF)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포함되며,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권고 받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을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을 바꾸기 위한 인식 개선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 보장, 사회에서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 마련 등 아동·청소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의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05

부록

모니터링단 월별 활동보고서(권역주제) 우수사례

사례1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조이름 (권 역)	DHI 인연동 (대구)	성명	김00(팀 대표)	
제출일	8월		12일	
활동 주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증가			
활동 방법	내용	장소	날짜	시간
	실태 공유 및 문제 논의, 주제 선정	대구국제고등학교	8월 9일	13:20~14:10
	활동 방법 및 일정 선정	대구국제고등학교	8월 9일	14:20~15:10
현황 및 실태	2019~2020년 출생 미신고 아동은 146명으로 파악됨. 단체는 가정에 있는 미신고 아동을 포함하면 그 수를 8000~2만 명으로 추산함.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의 원인은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 관계 문제 36명(78.2%)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 지연 5명(10.9%) ▲미혼모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지연 4명(8.7%) ▲외국 거주 1명(2.2%) 임.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 전수조사에서 열에 하나꼴로 사망 아동이 발생하는 등 일반적 영아 사망률과 비교해 미등록 아동 사망률이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출산 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지금과 달리 병원에서 출생정보를 시·읍·면에게 통보하는 방식인 출생 통보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활동 내용	한국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인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증가’라는 주제를 선정함. 출생 미등록 아동과 관련한 기본 지식을 쌓기 위해 인터넷 조사를 진행함. 대한민국의 현 실태, 원인 및 ‘출생통보제’를 둘러싼 논쟁 등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가 공부한 내용을 동아리 부원 전체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증가를 위한 방법으로 정보 공유를 위한 홍보물 제작, 서명 캠페인, 정책 제언, 법률안 제정 및 개정 요구, 정책 토론회 진행 등의 의견을 제시함.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금전적 지원, 대중의 관심 필요, 정책이나 법 제·개정의 필요성, 캠페인이나 카드 뉴스의 제작 진행임. 투표를 통해 카드 뉴스라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데 목적을 맞춤.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 사항	출생 미등록 아동 존재의 근본적 원인은 한국 사회의 인식과 체계에 있음.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시각, 이들과 함께 태어난 아이까지 제대로 보호하고 지원하지 못하는 정책과 법률은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임. 현실은 저출산에 대한 염려뿐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해서는 대중의 관심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 그렇기에 그 관심 및 지원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낌.
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	2차 활동으로 12명을 4/4/4 세 팀으로 나누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카드 뉴스 내용 준비 및 제작을 진행할 예정임. 그 내용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실태, 외국의 사례,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미혼모, 미혼부를 위한 지원 정보 공유 등이 있음. 3차 활동 시기 제작한 카드 내용에 대해 발표를 통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임.

사례2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조이름 (권역)	충북	성명	이00																									
제출일	8월 22 일																											
활동 주제	(권역 주제) 과도한 교육부담으로 인한 발달권 침해																											
활동방법	내용	장소	날짜	시간																								
	발대식, 활동주제선정	충원고등학교	8/1	08:00~10:00																								
	활동계획	충원고등학교	8/16	06:30~08:30																								
현황 및 실태	2021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3~18세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공부(46.5%)이다. 압도적인 비율로 학업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다. 외모(12.5%), 직업(12.2%)이 그 뒤를 이었다.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는 청소년이 흔히 받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학업, 외모, 직업 등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50.5%로 세계 1위이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은 네덜란드의 16.8%보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행복지수도 OECD국가 중 60.3%로 꼴찌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원인은 학업스트레스로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중독, 방임, 사이버폭력 등의 순이었다. ▷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table><caption>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caption><thead><tr><th>연도</th><th>스트레스 정도 (%)</th></tr></thead><tbody><tr><td>2016</td><td>38.0</td></tr><tr><td>2017</td><td>40.0</td></tr><tr><td>2018</td><td>42.0</td></tr><tr><td>2019</td><td>44.0</td></tr><tr><td>2020</td><td>46.5</td></tr></tbody></tabl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 만족도 <table><caption>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 만족도 (%)</caption><thead><tr><th>학업스트레스</th><th>학교생활 만족도 (%)</th></tr></thead><tbody><tr><td>매우 높음</td><td>10.1</td></tr><tr><td>높음</td><td>18.2</td></tr><tr><td>중간</td><td>25.3</td></tr><tr><td>낮음</td><td>32.4</td></tr><tr><td>매우 낮음</td><td>13.9</td></tr></tbody></table> 전체 평균 33.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연도	스트레스 정도 (%)	2016	38.0	2017	40.0	2018	42.0	2019	44.0	2020	46.5	학업스트레스	학교생활 만족도 (%)	매우 높음	10.1	높음	18.2	중간	25.3	낮음	32.4	매우 낮음	13.9
연도	스트레스 정도 (%)																											
2016	38.0																											
2017	40.0																											
2018	42.0																											
2019	44.0																											
2020	46.5																											
학업스트레스	학교생활 만족도 (%)																											
매우 높음	10.1																											
높음	18.2																											
중간	25.3																											
낮음	32.4																											
매우 낮음	13.9																											

활동 내용	발달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이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성장할 권리라고 명시하고있다. 이 발달권의 의미를 알고 주제를 선정했다. 정부에서 지정한 시간과 다르게 총주에서는 초,중학생이 학원을 11시까지 고등학생은 12시까지 학원을 다니는 게 발달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했고, 학교에서의 경쟁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의 교육적 기대로 학생들의 발달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7가지 정도의 설문지 문항을 만들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이 겪고 있는 것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이상하게 생각한 적 없다. 하지만 이는 발달권을 침해받고 있었던 것이었고, 이 문제를 알리고 싶어졌다. 각기 다른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공감이 되어주고 싶다.
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	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의 척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실태를 알리기 위해 추후에 sns로 학생들에게 실태 알리고, 발달권 보장 알리기 사연 받고 만화화하고자한다. 10월에는 최종적으로 부모 대상으로 캠페인 진행한다.

사례3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조이름 (권 역)	라이트 빌더 (경기2권역)	성명	정00	
제출일	08월		20일	
활동 주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조사 및 경계심 함양)			
활동방법	내용	장소	날짜	시간
	아동들을 만나 아동학대 인식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설문조사 질문 양식 제작	가정	8/5~8/10	00:00~00:00
	아동들을 위한 아동학대에 대해 알리는 팸플렛 안내서 배포	학교 또는 청소년 밀집 구역 인근 길가	8/20~	등교/ 하교시간 (8:20~8:45, 13:00~13:50)
	2005~2013년생의 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이하여 모집하고 아동학대 인식 조사 진행 (2011~2013년생)	아동과 상의 후 결정 (학교, 청소년 공간 등)	8/6~	00:00~00:00
현황 및 실태	최근 아동학대에 대하여 많은 기사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아동의 인권의 문제들이 사회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가장 보호 받아야 할 가정, 학교, 그리고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등 아동학대의 실태들이 이슈 되면서, 이것에 대한 법 강화 및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더욱 활발히 하여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매체나 언론 매체에서는 아동들이 사건을 당한 후에 학대에 대해 알기도 하지만 이것마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아동			

활동 내용	학대에 대한 인식을 아동들에게 더욱 심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아동학대에 대한 자료조사 - 아동학대의 정의: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혹은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동. -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아동에게 무리한 신체적 힘을 가하는 행위로서, 폭력, 폭행, 고의적인 상해 등이 있습니다. (2)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서적인 마음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모욕, 괴롭힘, 무시, 격리 등이 있습니다. (3) 성적 학대: 아동에 대한 성적인 접근이나 행위로서, 성적 강요나 성적 접촉이 있습니다. (4) 심리적 학대: 아동의 심리적인 마음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협박, 공포, 인신공격, 억압 등이 있습니다. (5) 유기 및 방치: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환경을 구성하거나, 아동을 방치하여서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 - 아동들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경우 (1) 물리적 흉터, 타박상 또는 부스스한 부상: 미묘한 상처나 상처가 잘 나지 않는 부위나 작은 상처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상을 통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갑자기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바뀌거나, 특정 사람과 만나는 것을 꺼리거나, 침묵하는 경우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행동: 너무 어린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인 행동이나 지식을 보일 수 있습니다. (4) 정서적 변화: 갑작스러운 무기력함, 우울감, 불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학교 성적 및 행동 문제: 학업과 행동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6) 사회적 고립: 가까운 친구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거나 사회적 활동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양식〉
활동 내용	아동 · 청소년의 아동학대 인식 설문조사 질문지 구성 (스티커 붙이는 방식)
	〈초등학생용(초1~초6, 2011~2016년생)〉 (설문 진행자):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 이에요. 아래에 있는 질문을 보고 스티커로 답해주시면 되요. 모든 설문과정은 비밀로 처리 되니 안심하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동학대란 무엇일까요? -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는 것 - 내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는 상황 - 부모님과 선생님 같은 어른들이 나에게 사랑과 따뜻함을 주는 것 - 아동학대를 보거나 겪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하나요? - 나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112나 아동 상담 센터나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곳의 어른에게 알리는 것 - 나의 부모님에게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 가까운 친인척 에게 알려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 친구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할 때 보이는 상황들은? - 몸에 이상한 흉터나 멍이 있을 때 - 나랑 같이 안 놀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때 - 나랑 매일 이야기하고 지내는 것 - 항상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 나오는 것

활동 내용	4. 어떤 것이 아동학대의 상황일까요? 1) 친구들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 2) 다른 친구들에게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냈을 때 3) 친구가 나를 때렸을 때 4)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때리는 것 5. 아동학대를 줄이고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친구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지 않는 것 2)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3) 나에게 나쁜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기 4) 그 친구에 대하여 상처를 주는 것 (설문 진행자): 이 설문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 이예요. 스티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학생용(중1~고3, 2005~2010년생)〉 (설문 진행자):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스티커로 답해주시면 되요. 모든 설문과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비밀로 처리됩니다. 1. 아동학대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1)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무시를 당하는 것 2) 친구들끼리 언어적으로 상처를 입는 것 3)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아는 어른들에게 소외받고 폭력 당하며 방치되는 것 2.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친구가 자주 다치거나 부상을 입은 상태로 있는 것 2) 친구들의 학업 성적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	--

활동 내용	3) 자주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4) 학업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 3. 아동학대를 목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내가 직접 개입하여 상황을 해결한다. 2) 상담센터나 112, 아동 보호 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 3) 그 친구에 대해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 4)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에게 대신 부탁한다. 4.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자존감을 높여준다. 2) 가족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부모님이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사과하라고 한다. (설문 진행자): 이 설문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 이예요. 스티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	이번 1차 활동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다. 앞으로 아동들이 자신이 폭력이나 방치가 되었다는 것이 아동학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동들을 여러 부분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나 더 좋은 해결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활동 기간 동안 자신이 맡은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소통이 비대면 이라서 잘 안되었던 점이 있지만, 모두 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	다음 활동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 인터뷰 촬영을 진행한 후에 영상을 좀 편집한 후에 아동들이 이해하기 쉽고 인식이 쌓일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주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높여주는 활동을 할 것이고, 작은 설문조사도 진행하여 아동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함께 협력하여 활동해야 하는 부분은 협력하면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사례4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조이름 (권 역)	다함께조(충남)	성명	김00, 송00, 이00, 정00, 윤00, 변00, 이00, 정00	
제출일	10월		30일	
활동 주제	아동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널리 알리기			
활동방법	내용	장소	날짜	시간
	포스터 만들기	구암지역아동센터	10월 12일	1시간
	설문 조사하기	구암지역아동센터	10월12일~18일	
	결과분석, 카드뉴스	구암지역아동센터	10월 19일	2시간
현황 및 실태	약 일주일 동안 아동권리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1. 36명 중 20명이 아동권리에 대해 안다고 답하였음. 2. 아동권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함. 4대 권리를 묻는 말에 대부분 답하지 못함. 3. 아동을 학대하지 않는다, 존중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임. 4. 본인은 아동권리를 잘 지키고 있다고 14명이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나머지가 보통에 답함. 5. 의견 대부분이 3번과 비슷하게 답변함. 6. 대부분 아동이 본인이 생각한 대로 아동 권리가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함. 7. 32명이 아동 권리가 소중하다 답함. 8. 23명이 캠페인 하기, 10명 이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기, 나머지가 모르겠다고 답함			

활동 내용	- 다함께조의 의견을 모은 질문들로 구글폼을 만듦. 링크를 큐알코드로 변환시켜 간단하게 포스터를 제작함. 제작과정에서 아동권리를 알릴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의견에 투표로 슬로건을 정함. 그렇게 완성된 포스터는 구암아동지역센터에 전시하여 많은 아동이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설문 조사결과를 함께 보며 분석함. 동시에 결과를 보며 자신의 느낀 점을 적으며 다음 활동인 카드뉴스제작에 대해 기획하는 시간을 가짐. 역할분담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해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팀과 내용을 정리하는 팀으로 미리캔버스를 이용해 제작함.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	- 캠페인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로 인해 아동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 아동권리를 알아갈수록 잘 지키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걸 느꼈고 많은 아동이 우리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보았다. 대부분 아동권리를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모두가 아동권리를 잘 알고 실천해줬으면 좋겠다. - 아동권리를 알릴 캠페인을 하고 이것이 소중하다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보았는데 아동의 권리를 잘 알고 있다고 했고 본인은 잘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아동권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써주었고 어느 정도 다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	카드뉴스제작을 완성하고 SNS를 개설해 업로드할 예정

사례5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충남(우리가이기조)	이름	권00, 박00, 이00, 전00, 손00, 여00, 김00, 김00, 안00	
제출일	11월 1일			
활동 주제	인권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이유’			
활동 방법	내용	장소	날짜	시간
	설문조사	구암지역아동센터	10월 11일~18일	
	설문결과 분석 회의	구암지역아동센터	10월 19일 15:30~17:30	2시간 (권00, 박00, 이00, 전00, 손00, 김00, 김00 7명 참석)
	포스터 작업	구암지역아동센터	10월 31일	2 (박00, 김00)
현황 및 실태	아동 당사자가 생각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 구암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스티커 부착식)를 실시해 총21명(초등 14명/ 중고등 7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① 어린이(초등 4~6학년)와 중고교생(중 1~고 3)이 생각하는 자살 이유와 대책에 대해 차이를 보임 ② 구체적으로는 ‘죽음을 떠올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초등학생은 64%가 (학교)폭력을, 중학생은 43%가 성적, (학교)폭력을 1순위로 선택. ③ ‘학년이 올라갈 때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초등학생은 ‘우울감(36%)’을, 중고교생은 57%가 ‘성적’을 1순위로 답함. ④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은 57%가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선택한 반면, 중고교생은 43%가 ‘온라인 채팅 상담 강화’를 1순위로 응답함.			

활동 내용

1. '우리가이기조'는 1차 회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생각하는 '청소년 자살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문을 조사를 진행기로 한 뒤, 2개 조로 나뉘어 설문 조사 문항과 선행 조사 관련 기사 등을 검토하였으며 원인과 대안으로 나눠 모두 3개의 스티커 부착 방식의 설문지를 만들어 구암지역아동센터에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간 설문을 진행하였음.

[참조] 설문 결과 표

보기	질문1			질문2			질문3		
	초등	중고등	전체	초등	중고등	전체	초등	중고등	전체
1	21%	43%	29%	29%	57%	38%	57%	14%	43%
2	64%	43%	57%	21%	29%	24%	0%	29%	10%
3	7%	0%	5%	36%	0%	24%	21%	14%	19%
4	7%	14%	10%	14%	14%	14%	21%	43%	29%

2. 10월 19일 오후 3~5시에 진행된 2차 회의에서 설문 결과를 분석한 뒤, 이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각자의 소감을 이야기함.



3. 2차 회의에서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성적'을 소재로 한 자살 예방 포스터를 그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함. 초등학생보다는 중고교생이 자살 위험이 더 높다는 데 의견을 모아 1차로 중고교생용으로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함. 시간 등 상황을 고려해 포스터는 웹포스터로 제작(그림 참조). 오프라인에서의 전시 장소는 구암지역아동센터로 하였음.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 사항	-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차이는 나는 것은 초등학교 때보다 중고교생 때 공부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프고, 무서웠다. -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자살에 대한 여러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살을 왜 하면 안 되는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 중고교생들이 성적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다는 것에 놀랐다.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 자살의 원인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내 주변의 사람(형, 누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더 크게 놀랐다. -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 아직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초등학생은 예방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중고교생은 온라인 채팅 상담이라고 답한 것이 눈에 띄었다. 두 가지 대책이 모두 잘 이뤄지면 좋겠다. -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생각한 자살 이유가 다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특히 중고등학생이 자살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적 때문이라는 게 놀랍다. - 이번 활동을 하면서 자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아무쪼록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 중고등학생이 성적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다는 것을 설문 조사와 분석을 통해 확인하니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	설문 결과에 따라 ‘성적’을 소재로 ‘청소년 자살 예방 포스터’를 웹포스터 형태로 제작함에 따라, 우리가이기조 조원들이 SNS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12월까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함. 예) 카톡 프로필 사진, 인스타그램 활용 등

사례6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제주1	이름	곽00	
제출일	10 월 29 일			
활동 주제	아동/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교육 실태장소날짜			
활동 방법	내용	장소	날짜	시간
	설문결과 분석, 조사	제주	10.20	8~10pm
현황 및 실태	현재 정치교육의 정도와 관련하여 NLCS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관찰하기 위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48%의 학생들이 정치와 시민의 의무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반면 52%는 반대라고 응답하여 결과는 다소 팽팽했다.			
활동 내용	학생들은 교내 시민 교육의 효과와 방법으로 이러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1. 정보화 시민 육성 - 정치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선거, 정부 구조, 다양한 분파의 역할을 포함한 정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후보자와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시민참여 활성화 -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치에 대해 배울 때, 지역 사회의 시민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시민활동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3. 비판적 사고 촉진 - 정치 교육은 단순한 사실과 수치를 넘어서 비판적인 사고와 분석을 장려하고, 학생들이 경쟁적인 생각과 주장을 평가할 있도록 한다. 또, 믿을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식별하고 언론과 정치적인 편견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 사항	공교육의 역할은 학생들을 준비된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 학생들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민주적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치 제도, 정부 기능, 시민 의무 등에 대해 교육하고 그 후에 더 참여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도 느끼게 되었다. 또, 지난 활동(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이어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 교육 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미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사례7

월별 활동보고서(캠페인)

권역	제주2	이름	이00	
제출일	11 월 5 일			
활동 주제	장애 아동의 교육권			
활동 방법	내용	장소	날짜	시간
	펀드레이징 행사	NLCS 제주	10월 9, 13, 16, 20일	00:00~00:00
현황 및 실태	장애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펀드레이징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다.			
활동 내용	권역별 활동비 예산을 사용하여 펀드레이징 행사용 솜사탕을 약 200개를 구매하였다 구매한 행사용 솜사탕을 나홀에 걸쳐 판매하여 대략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이를 사랑의 달팽이와 하트-하트 재단에 각각 50만 원씩 기부하였다.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 사항	제주 2팀의 모든 조원이 참여한 행사를 통해서 100만 원 상당의 큰 금액을 모으게 되어 정말 뿌듯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장애아동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정말 보람찬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사례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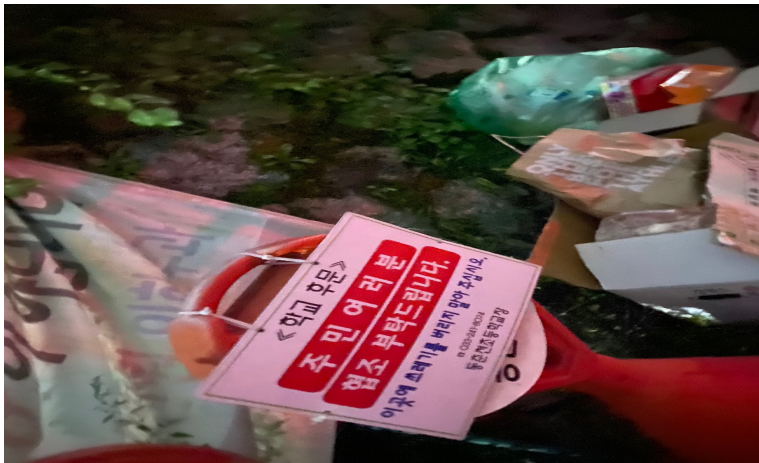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조이름 (권 역)	(경기3권역)	성명	이00	
제출일	9월		24일	
활동 주제	(권역 주제) 다문화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활동방법	내용	장소	날짜	시간
	인터뷰	안양외국어고등학교	2023.09.12	09:50~10:00
	회의	안양외국어고등학교	2023.09.15	04:00~05:00
현황 및 실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연구 :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중등교육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인식 개선과 관련된 현 교육부의 정책과 선행 연구들, 그리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커리큘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문화사회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다문화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고 이에 기반이 될 효용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 현재 다문화에 관련된 여러 정책 중 한국은 다문화 인식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는 곧 ‘다양성 공존’보단 다양한 문화를 무리 없이 동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임을 의미했다. 즉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그리고 정을 강조하는 동화주의 정책은 일반 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죽산고등학교와 같은 일반고등학교와 동탄국제고등학교, 그리고 민사고와 같은 특목/자사고로 분류하여 현행되는 다문화 교육 커리큘럼을 조사했는데, 논문 분석 결과와 같이 단순히 동화시키려는 커리큘럼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안양외국어고등학교의 교사 두 분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외국어고등학교 다문화 프로그램의 현황과 교사들이 느끼는 필요성을 조사했다. 글로벌 인재로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외교 이기에 다문화 교육이 더 중시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웬만한 일반고			

	등학교보다 다문화 교육이 현저히 적게, 혹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교사들은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이 충분히 받아야 할 교육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교환학생이 많이 들어오는 외고의 실정기에 보다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활동 내용	인터뷰 활동 전 논문 분석과 타학교 사례 수집을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했다.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연구 :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중등교육을 중심으로’를 통해 한국 다문화교육의 한계와 현 교육부의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을 정리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실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껴 다양한 학교의 사례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인식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후 예상과 달리 다문화교육을 진행하는 학교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안양외국어고등학교 교사에게 실제 인터뷰를 요청해 학교 다문화 교육 실태를 보다 자세히 알아낼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	예상 외로 다문화 교육을 가장 중시할 것 같던 외고와 국제고마저 다문화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고, 그만큼 교육 환경 속 당사자로서 새롭고 실질적인 커리큘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	안양외국어고등학교 교사 두 분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새로운 커리큘럼을 고안해볼 예정이다. 교과목 별개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창체 시간이 존재함을 활용하여 실제 도입 가능한 다문화 인식 개선 커리큘럼이 무엇인지 토의 과정을 거쳐 커리큘럼을 학교에 제안해볼 계획이다.

사례9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조이름 (권 역)	감자(강원권역)	성명	장00	
제출일	9월		24일	
활동 주제	(권역 주제) 스쿨존에서의 안전사고			
활동방법	내용	장소	날짜	시간
	활동보고서 작성, 2차 활동 논의	춘천지역아동센터	9/19	19:00~20:30
	스쿨존에서의 위험요소 사진촬영	동춘천초등학교	9/19	18:30~19:00
	아동권리, 스쿨존 교육	춘천지역아동센터	9/19	18:00~18:30
현황 및 실태	민식이 법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민식이 법을 악용하여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활동 내용	 스쿨존에 관한 교육을 들은 후 직접 스쿨존에 가서 위험하거나 잘 관리 가 되어 있지 않는 것들에 관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유를 생각해봤다.			

	위 사진은 동춘천초등학교 후문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스쿨존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안내문이 적혀있음에도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	스쿨존에 대한 문제 및 사고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	스쿨존에서의 지켜야할 안전수칙과 스쿨존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관해 아동들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사례10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조이름 (권 역)	안성초프렌즈 (경기2권역)	성명	윤00	
제출일	10월		28일	
활동 주제	(권역 주제) 가정 내의 아동학대			
활동방법	내용	장소	날짜	시간
	자료조사	집·도서관	9/24~10/28	-
	대면활동	유쌤 수학교습소	10/28	11시~18시
현황 및 실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인 경우 1/2 가중처벌) 성폭력 일 경우 특례법, 아동법 적용으로 무거운 처벌			
활동 내용	① 문제 개선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신고자 보호(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필요) - 피해자 아동을 돕는 서비스 필요 - 가해자 처벌 강화 등 ... ② 인식개선을 위해 모두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 부모들은 아동의 생명과 인격과 권리에 대한 존중을 배워야 한다. -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	아동학대를 한 부모(어른)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서 기분이 좋았다.			

2023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 인쇄일 | 2023년 11월
| 발행일 | 2023년 11월
| 발행인 | 송 두 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기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아동청소년인권과 02)2125-9644
| F A X | 02)2125-0929
| 제 작 | (주)두루행복한세상 (070) 4659-0803

ISBN 978-89-6114-992-1 93330

비매품